
광주시 지역축제 핵심스토리 발굴 연구

최종보고서

2024.12.



광주시의회
GWANGJU CITY COUNCIL

제 출 문

광주시 축제발전 연구회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광주시 지역축제 핵심스토리 발굴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2월

주관연구기관 : (주) 런 런 컨설팅
총괄책임자 : 최용선 학술연구본부장
참여연구원 : 이병일 학술연구팀 과장
정승영 학술연구팀 팀원
선민호 학술연구팀 팀원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절. 연구 추진체계 및 절차	5
1. 연구의 구조	5
2. 연구의 범위	6
3. 연구의 방법	6
4. 축제 콘텐츠 기획을 위한 축제 스토리텔링 요소	7
5. 지역축제 스토리 발굴 단계	10
제2장 광주시 3대 지역축제 현황 및 분석	19
1절. 광주시 3대 지역축제 현황 및 타 지자체 비교 사례	21
1. 광주 남한산성 문화제	21
2. 광주 왕실도자컨퍼런스	27
3. 퇴촌 토마토 축제	30
2절. 스토리 구조 관점에서의 광주시 3대 지역축제 현황 분석	34
제3장 광주시 3대 지역축제 핵심소재 자료조사	35
1절. 남한산성 관련 자료 조사	37
1. 자원핵심조사	37
2. 전승가치조사	41
2절. 조선 왕실 백자 관련 자료 조사	54
1. 자원핵심조사 - 조선시대 왕실용 백자의 유형	54
2. 전승가치조사	62
3절. 토마토 관련 자료 조사	76
1. 기초조사	76
2. 전승가치 조사	78

제4장 축제별 스토리 도출 및 활용방안	91
1절. 축제별 스토리 도출 및 활용 방안 구성 절차	93
2절. 남한산성 문화제 스토리 발굴 및 활용 방안	95
1. 속성별 스토리 자원 추출	95
2. 스토리 자원의 매력도 평가 및 스토리 도출 방안	100
3. 스토리 활용 방안	101
3절. 왕실도자컨퍼런스 스토리 개발 및 활용 방안	104
1. 속성별 스토리 자원 추출	104
2. 스토리 자원의 매력도 평가 및 스토리 도출 방안	107
3. 핵심 스토리 개발	108
4. 스토리 활용 방안	110
4절. 퇴촌 토마토 축제 스토리 발굴 및 활용 방안	112
1. 영역별 스토리 자원 추출	112
2. 스토리 자원의 매력도 평가 및 스토리 도출 방안	114
3. 핵심 스토리 개발	115
4. 스토리 활용 방안	117

표 목 차

[표 1] 연구의 구조	5
[표 2] 자료조사 예시(생강)	11
[표 3] 스토리 자원 추출 : 스토리 속성과 목록(예시)	12
[표 4] 스토링에 활용할 주제와 소재(예시)	13
[표 5] 서귀포 칠십리 축제의 스토리 발굴 사례	14
[표 6] 다자구 할머니 스토리의 축제 활용 사례	16
[표 7] 스토리의 축제 활용 사례	17
[표 8] 전투 스토리의 축제 활용 사례	18
[표 9] 축제 주요 내용	21
[표 10] 수원 화성 힐링폴링 축제를 구성하는 축제들의 개요	25
[표 11] 수원 화성 힐링폴링 축제의 핵심 스토리 및 관련 축제 콘텐츠	26
[표 12] 광주 왕실도자컨퍼런스의 프로그램 구성	27
[표 13] 이천도자기축제 프로그램 주요 내용	29
[표 14] 퇴촌 토마토 축제 주요 내용	30
[표 15] 화천 토마토 축제 프로그램 주요 내용	33
[표 16] 축성 시기별 남한산성 성곽의 변화	37
[표 17] 남한산성의 주요 스토리 자원 목록	95
[표 18] 조선 후기 남한산성의 복합적 위상	97
[표 19] 남한산성 스토리의 축제 활용 방안	101
[표 20] 조선 왕실 백자의 주요 스토리 자원 목록	104
[표 21] 핵심 스토리 ‘달해전’의 주요 내용	108
[표 22] ‘달해전’ 스토리의 축제 활용 방안	110
[표 23] 토마토의 주요 스토리 자원 목록	112
[표 24] 핵심 스토리 ‘토비의 모험’의 주요 내용	116
[표 25] ‘토비의 모험’ 스토리의 축제 활용 방안	117

그림 목 차

[그림 1] 지역축제 스토리 기본구조	8
[그림 2] 과업의 추진 절차	10
[그림 3] 제29회 광주시 남한산성문화제 개막식	22
[그림 4] 남한산성문화제 주요 공연 프로그램	22
[그림 5] 남한산성문화제 주요 전통문화 관련 행사	23
[그림 6] 남한산성문화제 주요 체험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24
[그림 7] 광주 왕실도자컨퍼런스 주요 전시 프로그램	28
[그림 8] 광주 왕실도자컨퍼런스 주요 공연·이벤트	28
[그림 9] 주요 체험 프로그램	28
[그림 10] 퇴촌 토마토 축제 공연행사	31
[그림 11] 퇴촌 토마토 축제 체험행사	32
[그림 12] 퇴촌 토마토 축제 부대행사	32
[그림 13] 남한산성 도로체계	39
[그림 14] 남한산성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남한산성의 구획별 토지 이용	40
[그림 15] 남한산성의 도시구조적 특징을 나타내는 지도	40
[그림 16] 남한항공 하궤 터에서 확인된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42
[그림 17] 수어장대 뒤편 왼쪽 담장에 있는 ‘매 바위’	47
[그림 18] 지수당 앞에 설치된 서훈남의 묘비 2개	49
[그림 19] 천안 온조왕 사당	50
[그림 20] 남한산성 내 4개의 성문	51
[그림 21] 국보로 지정된 백자 달 향아리	55
[그림 22] 국보 백자 병형 주전자	55
[그림 23] 백자 청화 구름 용무늬 향아리	57
[그림 24] 백자 청화 산수무늬 사각병	58
[그림 25] 백화 철화매죽문 향아리	59

[그림 26] 백자 철화 포도 원숭이 무늬 항아리	60
[그림 27] 조선과 명나라의 청화백자	61
[그림 28] 일본의 초기 백자 형태인 이마리 백자의 특징	61
[그림 29] 국가유산으로 등록된 가마터, 광주 조선백자 요지	67
[그림 30] 우산리 가마터 출토 명문 일람표	69
[그림 31] 백자 청화 쌍룡문 대준	72
[그림 32] 과일과 채소가 있는 정물화	79
[그림 33] 축제별 스토리 도출 및 활용 방안 구성 절차	93
[그림 34] 남한산성의 스토리 자원으로서의 매력도 평가 및 스토리 도출 방안	100
[그림 35] 조선 왕실 백자의 스토리 자원으로서의 매력도 평가 및 스토리 도출 방안	107
[그림 36] 토마토의 스토리 자원으로서의 매력도 평가 및 스토리 도출 방안	114

제1장 연구의 개요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1995년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지역축제가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지역의 관광객 유치 등에 기여하고 있음
 -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각 지자체는 지역 마케팅의 수단으로 생태관광, 문화관광 등을 표방하며 각종 지역축제가 생겨남
 - 지역의 생태적, 문화적 자원을 이용한 지역축제는 지역의 자원을 콘텐츠로 발전시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지역축제는 지역민 결집, 지역홍보, 문화관광 콘텐츠 축적, 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업의 상품 개발 등을 이끌어내며 지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에 필수적인 요소
-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축제만의 고유한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 축제의 획일화로 이어지고 있음
 - 몇몇 우수한 지역축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축제들은 축제 자체의 정체성 상실이라는 커다란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경우가 많음
 -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후발 축제들이 지역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선발 축제를 벤치마킹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는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축제마다의 고유성과 차별성은 사라지고 축제의 획일화 및 정체성의 부재가 화두로 제기되고 있음
- 지역 축제의 목적 실현을 위해선 지역만의 킬러 콘텐츠가 필요함
 - 축제의 가치는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데 있으므로 지역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킬러 콘텐츠가 반드시 필요함
 - 그러나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 상품을 명품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자리잡으면서 지역의 경제적 이익만 중요시되고, 인문학적 기반을 소홀히 한 채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사례가 많아 지역축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실제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이 풍부하고 매력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정체성과는 별 상관이 없는 음악제나 영화제, 오페라 축제 등 문화예술을 축제의 핵심 콘텐츠로 삼는 경우가 많음

■ 스토리텔링을 지역축제에 도입하여 축제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

-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것으로 이야기 자체를 상품화하거나 이야기를 통해 상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축제의 표현기법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 스토리텔링은 관광자원에 이야기를 통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관광자원만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드러내 주는 기술이므로 지역축제 소재가 같더라도 내용이 다른 축제를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가능함

■ 따라서 지역축제에 스토리텔링은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축제와 스토리를 입체적으로 결합하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나. 연구의 목적

- 지역을 관통하는 인문학적 콘텐츠 발굴을 통해 광주시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축제의 정체성과 흡인력 확보
- 지역축제의 핵심 스토리의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객의 재방문을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
- 광주시의 3대 지역축제가 지속가능성과 자생력을 갖춘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방향 제시

2절. 연구 추진체계 및 절차

1. 연구의 구조

[표 1] 연구의 구조

과업의 배경 및 성격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과업의 범위와 방법
지역축제 현황 및 동향분석	• 축제의 개념과 성격
	• 국내의 지역축제 현황
	• 광주시 3대 축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지역축제 우수사례 분석	• 핵심스토리외 지역축제
	• 핵심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우수사례 분석
광주시 축제의 핵심 스토리 발굴	• 토마토 축제의 핵심 스토리 발굴과 홍보전략 제시
	• 왕실도자기 축제의 핵심 스토리 발굴과 홍보전략 제시
	• 남한산성 축제의 핵심 스토리 발굴과 홍보전략 제시
광주시 축제의 발전방향	• 핵심 스토리가 축제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광주시 지역축제의 발전방향 제시

2. 연구의 범위

■ 지역적 범위

- 경기도 광주시 관할지역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광주시 3대 축제지역 일원

■ 시간적 범위 : '25년 ~ 중장기 계획

■ 내용적 범위

- 국내 지역축제 현황과 동향 분석
- 지역축제 우수사례 분석
- 광주시 3대 축제(왕실도자기 축제, 토마토 축제, 남한산성 축제)의 핵심스토리 발굴
- 광주시 지역축제의 발전방향 제시

3. 연구의 방법

■ 문헌분석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발간된 경기도 광주시 문화유산 관련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역사, 관련인물, 지역 문화적 의미를 분석

■ 구성요소 분석

-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서사 이야기의 세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경기도 광주시 유무형문화유산 가운데 스토리텔링 대상으로 주목되는 것을 선별

■ 사례분석

- 스토리텔링 대상으로 주목되는 문화유산을 지역축제에 연계시키기 위해 문화콘텐츠 관련 국내외 주요사례를 콘텐츠 영역별로 분석하여, 정책제언 도출에 있어 비평자료 및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

■ 현장조사

- 문헌자료에 한계가 있거나, 문헌에 없으나 현장에 존재하는 문화유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간헐적인 필드워크(Field Work)를 수행

4. 축제 콘텐츠 기획을 위한 축제 스토리텔링 요소

가.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의의

■ 스토리텔링의 개념

-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이야기(story)와 말하기(telling)의 합성어로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거나 이야기를 남들에게 표현·전달하는 행위를 지칭하며(김동기, 2010), 단어, 사진 또는 소리 등을 이용하여 실제 사건이나 가상 사건을 설명하는 기술(art)을 뜻하기도 함
- 스토리텔링은 특정 매체를 통해 이야기를 서사로 변환하는 과정, 즉 서사의 구성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야기의 행위적 측면과 생성 과정을 강조할 때는 이야기나 서사보다는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한강희, 2010)¹⁾

■ 지역축제에서 스토리텔링의 의의

-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통한 상품화 과정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의사소통기법으로서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시키고 의미를 전달하는데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음(신현식, 2011)
- 특히 지역축제 시장에서 스토리텔링은 가치 체계를 명쾌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소통 도구로 차별화 전략의 시대에 중요한 마케팅 도구로 떠오르고 있음(이주현, 2007)
- 지역축제의 원천적 가치는 지역의 문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지역 및 해당 축제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가치체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경우 내용적 측면에서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신현식, 2011)
- 축제 스토리텔링은 지역의 가치를 이야기화하여 방문객에게 표현 및 전달하는 도구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축제 스토리텔링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축제 콘텐츠로 표현하여 방문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방문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일반 스토리텔링보다 더 구체적이며, 따라서 일반 스토리텔링과 다소 구별된다고 볼 수 있음(정나은·이병민, 2022)

1) 이야기는 사건의 개념적 배열(a conceptual arrangement)을 의미하고, 서사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결과물로, 이야기의 산물을 의미함. 그에 반해 스토리텔링은 특정 매체를 통해 이야기를 서사로 변환하는 과정, 즉 서사의 구성 과정을 의미함(Marta Sibierska, 2017).

나. 지역축제 스토리텔링 구조

■ 스토리텔링 구조의 이해

- 서사는 내용인 이야기와 담론인 표현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야기(story)는 ‘무엇을’ 보여줄 것이며, 담론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로 요약됨(신현식, 2011)
- 즉 스토리텔링은 이야기의 내용을 의미하는 ‘story’와 다양한 방식의 표현인 말하기로 ‘telling’ 2개의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오경환, 2002).
- 한편 김기국(2007)은 스토리텔링의 이론적 배경 연구에서 스토리텔링에는 현재성, 현장성, 상호작용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하면서 스토리텔링은 일방적(one way)으로 이야기하기가 아닌 화자와 청자가 함께(two way) 이야기하는 것으로 능동적인 상호작용(interaction)이 발생된다는 관점을 제시
- 또한 김광욱(2008)은 텍스트 중심의 스토리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관점에서 탈피하여 이야기가 진행되는 현상으로 연구관점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념이 스토리텔링이며, 이러한 이유로 스토리는 텍스트와 같은 정태성에 주목하고, 스토리텔링은 상호성과 같은 동태성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본 과업에서는 지역축제의 스토리 구조를 ‘이야기(story)’, ‘표현(telling)’, ‘상호작용(interaction)’ 3가지로 규정하고자 함

- 지역축제 스토리텔링은 지역 및 축제 관련 내용을 이야기(stoty)로 방문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telling)하는 행위로 축제공간에서 축제기획자와 방문자가 상호작용(interaction)하며 방문자의 감성을 자극시키고 설득하는 축제 활성화(energize) 행위를 하기 때문임

[그림 1] 지역축제 스토리 기본구조



다. 스토리텔링의 속성

- 지역 축제 스토리텔링 구조 속에는 각 구조의 특성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속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속성들은 스토리텔링을 활용단계로 연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
- 이희원(2007)은 스토리텔링의 요소가 문화관광축제의 기획과 축제 효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축제 스토리텔링을 내용적 요소와 표현적 요소로 구분하였으며, 내용적 요소로는 이야기(story)로서 지역성, 특수성, 세계성을 구성하였고, 표현(telling)적 요소로는 디자인과 감성표현을 구성하였음
- 소은영(2008)은 스토리텔링이 관광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스토리텔링 요소로 기술성, 시각성, 감성, 역사성 4가지를 제안하였고 김혜진과 최규환(2009)은 관광자원의 스토리텔링 요소가 관광지 매력지각 및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이해용이, 감성, 교육·테마, 고유성, 매력성, 흥미성을 스토리텔링 요소로 구성하였음
- 김수진(2007)은 문화관광자원의 스토리텔링 속성이 관광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스토리텔링 요소로 수요측면에서는 매력성, 평판, 생동감, 신뢰성을 구성했고, 공급 측면에서는 교육·테마, 감성, 흥미성, 이해용이를 구성하였음
- 신현식(2010)은 문화관광축제 스토리텔링 속성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지역축제 스토리텔링 구조를 이야기(story), 표현(telling), 상호작용(interaction)으로 설명하고 이야기(story) 속성으로 주제, 아키타입(archetype), 축제만의 특별성, 문화(예술)적 특성, 지역적 특성을 구성하였으며, 표현(telling) 속성으로 시각적 표현, 감성적 표현, 행동적 표현을 구성하였으며, 상호작용 속성은 재미성, 교육성, 흥미성, 신뢰성으로 구성하였음
- 본 과업에서는 스토리텔링의 다양한 속성들을 지역 축제에 적용하기 보다는 스토리 활용을 보다 분명하고 간결하게 도모하기 위해 시각적 요소, 내용적 요소, 감성적 요소로 나누어 연결시키고자 함

5. 지역축제 스토리 발굴 단계

- 지역축제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지역민에게 새로운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연대성을 확인하게 하고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도 여가 활용 및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
- 축제와 스토리텔링의 결합은 축제의 정체성 상실과 획일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축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

[그림 2] 과업의 추진 절차



- 특히 그 지역만의 기반에 근거한 스토리는 지역에 밀착된 고유의 인물(character)과 이야기(story)를 발굴하여 축제 프로그램과 결합하는 과정(telling)이라 할 수 있음
-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방안은 축제의 주제, 공간, 프로그램 등 타 축제와는 차별화 되고 그 지역만의 고유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차별화를 위해서는 지역 자원과 이야기, 콘텐츠 등 핵심컨셉에 따라 창의적으로 스토리텔링하여 방문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매력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함

가. 자료조사

- 자료조사는 스토리텔링 개발을 위한 선제 조건으로서 각 지역 특산물의 특징과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조사를 의미함
-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 특산물 및 역사문화자원에 대해 기초조사, 자원 핵심 조사, 전승 가치 조사, 활용가치 등의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 기초조사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에 대한 조사라고 할 수 있으며, 자원 핵심 조사는 지역 특산물의 맛과 효능과 식문화, 그것에 기여하는 생산 기술·조직에 대한 조사라고 할 수 있음
 - 전승가치 조사는 지역적 특성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이나 구전 자료를 통해 전통성과 역사성을 밝혀내는 작업이며, 활용가치 조사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축제·행사·체험 활동이나 음식·관광 상품 등 특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연계 관광 상품의 현황을 조사해 현재의 가치와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과업에서는 경기도 광주시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해 기초조사, 자원핵심조사, 전승가치 조사, 활용가치조사 등을 수행하고 자료조사가 한계가 있을 시 창작의 단계로 전환하여 수행할 예정임

[표 2] 자료조사 예시(생강)

항목		내용
기초조사	자연환경	• 우수한 사질 양토, 온화한 기후
	문화환경	• 미국에서 생산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 • 00가 현재 전국 최대 주산지
자원핵심조사	식문화	• 원재료로서 사용은 제한적 •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로 개발 • 서양의 진저브레드, 조리의 필수 식재료
	생산기술·조직	• 유통 완공으로 저장성 강화 및 종강 확보 보급 기대
전승가치조사	세계의 구전·기록	• 중국 농서 제민요술, 요리서 주례의 기록 • 아라비안나이트(정력제) • 피타고라스(소화제, 구풍제), 로마인(해독제, 식욕 돋우는 데 좋음)
	국내의 구전·기록	• 동의보감, 경험방(노인의 헛기침에 효과), 다산방(중풍, 감기에 효과) • 수운잡방, 음식디미방의 식용 관련 기록
활용가치조사	연계서비스·상품	• 에센셜오일로 아로마테라피 등 건강에 유익한 효과 • 반신욕, 족욕, 수면에 도움 • 관련 요리, 관광 연계 체험 • 홍보 및 판매 행사, 팸투어 요리교실, 팸 파티, 농촌관광포럼 등 • 온라인 쇼핑몰 입점 계약

나. 스토리 자원 추출

- 스토리 자원 추출은 과정은 인문학적 연구방법으로 지역 문화자원의 역사성·전통성·고유성을 추출해내고 지역의 자원 요소와 특성 및 변별성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정임
- 지역 연고성, 품질 효능성, 전승 문화성, 관광 기반성, 인물 기반성으로 스토리의 속성을 분류하고 속성별로 대상의 스토리 자원을 분석하여 스토리 목록을 작성하고 스토리 발굴의 방향성을 정하게 됨

[표 3] 스토리 자원 추출 : 스토리 속성과 목록(예시)

속성	목록
지역 연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제 1 주산지 • ○○의 사질 양토에서 자라는 뿌리식물의 우수성
품질 효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조건과 재배 환경이 우수 • 친환경 및 유기농 재배
전승 문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양에서도 귀하고 신성하게 여겨짐 • 강직·정결의 상징성과 정신문화의 수도 ○○과 결부
관광 기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도시 브랜드와 연계 가능한 광범위한 관광자원 • 상징성과 유교의 철학과 정신적 가치를 담은 6차 산업화 가능성
인물 기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먹은 건강 음식 • 머리와 가슴을 단련하여 유교정신의 가치 함양 • 퇴계 이황의 활인심방, 퇴계와 서애 유성룡의 관계 등

- 지역 연고성은 특산물의 존재량, 차별성, 인지도 등 재배지 특성을 의미하고, 품질 효능성은 특산물의 맛과 효능과 심미성, 청정 및 친환경성을 의미하며, 전승 문화성은 오래전부터 전승되거나 근거가 되는 문화 등 전통성과 관련된 기록 및 구전, 밀접한 전승 문화가 존재하는가에 관련된 것임
- 관광 기반성은 지역의 역사문화와 연계된 관광 인프라의 존재, 다양한 사업으로의 확장성 및 발전 가능성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물 기반성은 생강과 역사 인물과의 관련성으로 역사성, 장소성, 인지도가 지표가 될 수 있음
- 본 과업에서도 자료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역 연고성, 품질 효능성, 전승 문화성, 관광 기반성, 인물 기반성의 차원에서 스토리 자원을 분석하여 스토리 목록을 작성하고 스토리 발굴의 방향성을 잡고자 함

[표 4] 스토링에 활용할 주제와 소재(예시)

구분	주제어	소재
생강	토마토	건강, 테라피
	광주 토마토	품질의 우수성, 최대 주산지
	토마토 향미	선비 정신
역사	중국	소동파
	서양	코란에 나오는 하늘과 통화는 작물
	고려	현종 때 전사자 가족에게 하사
	조선	인종, 정조 때 신하에게 하사한 귀한 선물
인물	○○인물	이황, 유성룡, 이현보
	유교정신	군자의 고귀함, 정결, 강직함
	문화유산	도산십이곡 등 역사인물의 유산
장소	우수 경관	에던 길(이황이 오가던 길)
	인물 관련 장소	군자리, 도산구곡, 만휴정 등
전통·산업	전통조리	향토음식, 종가음식, 차등
	산업화	가공식품, 6차 산업, 힐링 체험, 문화상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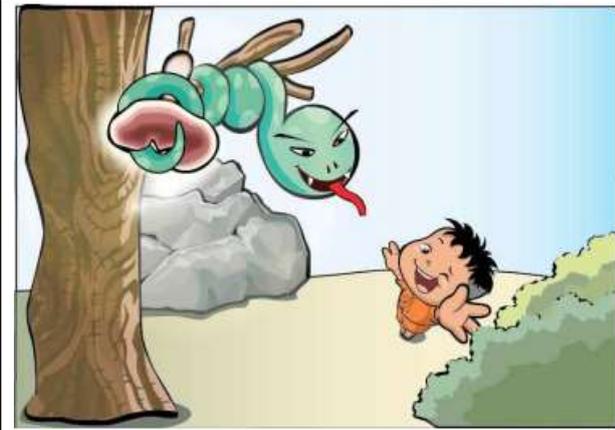
다. 스토리 발굴

- 발굴한 스토리 자원으로 핵심 테마를 선정하고, 스토리텔링의 지속성을 위해 시리즈화를 기획하면서 스토리 연계 자료를 결합해 스토리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 핵심 테마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기 위한 핵심 아이디어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차재관, 2011) 테마가 정해져야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음
 - 스토리의 시리즈화는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파생될 수 있는 스토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아 기획하는데, 스토리 시나리오 개발은 스토리 연계 자료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며 스토리 자료를 주제별로 세분화하여 이야기를 구성해나감
 - 스토리 발굴 자원을 광주시의 각 축제와 어떻게 연계하여 효과적인 스토리 콘셉트로 만들어 낼 것인지 정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문화요소를 연관시켜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발굴 자원과 특성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연계 자료를 결합하여 스토리텔링을 완성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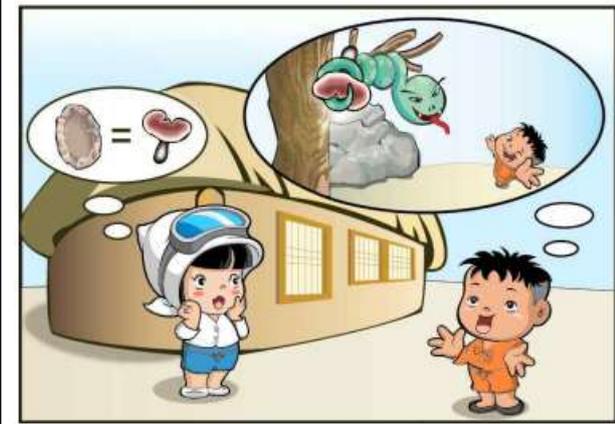
- 훌륭한 스토리의 조건으로는(김훈철·최병옥·김동훈, 2008) 스토리의 연계성, 스토리의 명성, 스토리의 진실성, 스토리의 일관성, 스토리의 재미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을 갖춘 스토리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축제를 찾게 만들 수 있음

[표 5] 서귀포 칠십리 축제의 스토리 발굴 사례

핵심테마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 칠십리 축제의 테마가 불로장생인 만큼 스토리텔링의 키워드는 불로장생으로 선정 • 축제의 대표 캐릭터를 서귀포에 전해내려 오는 서복 이야기를 통해 재구성 	
스토리의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리텔링에 등장할 축제 대표 캐릭터인 섬돌이와 해순이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함과 개구쟁이적인 표정, 초롱초롱한 눈망을 속에 간직된 동심을 빌어 아름답고 감동적인 대자연의 신비와 함께 활력이 넘 치는 발랄함과 신선함, 희망이 가득한 ‘꿈의 도시 서귀포’를 표현 • 섬돌이와 해순이를 한 쌍으로 형상화하여 서귀포 칠십리가 갖는 거리와 공간적 개념, 섬과 바다의 의미를 동시에 상징하도록 함 • 진시황의 명령으로 불로초를 구하러 왔었다는 서복의 이야기를 섬돌이와 해순이 상황에 삽입시켜 6 개의 세부 이야기로 구성된 스토리텔링을 제작 	
시나리오 개발	
	<p>진시황시대에 서귀포 천지연폭포 근처에 사는 해순이와 섬돌이가 살고 있었는데 두 남매는 병드신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다.</p>
	<p>두 남매는 할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섬돌이는 영주산(한라산)에 약초를 캐러 다니고 해순이는 전복을 캐러 다녔다.</p>



섬돌이는 약초를 캐러 가는 도중에 산중턱에서 귀한 영지버섯을 지키고 있는 커다란 뱀을 만나게 된다. 섬돌이는 영지버섯이 병을 고치는 효험이 있는 것을 알고 뱀에게 영지버섯을 달라고 부탁하지만 뱀은 주지 않았다.



섬돌이는 하는 수 없이 밑으로 내려가고 해순이에게 이야기를 한다. 두 남매는 고민하던 중에 바다에서 귀한 전복을 캐어 바꿔보려는 생각을 한다. 그리하여, 해순이는 전복을 캐는데 열중한다.



해순이가 고생 끝에 귀한 전복을 캐어 섬돌이와 다시 산에 오르던 중,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고 있는 서복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리하여, 셋은 같이 영지버섯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뱀이 있는 곳으로 가서 남매는 전복과 영지버섯을 바꾸자고 했더니, 전복이 귀한 것을 알고 있는 뱀도 흔쾌히 바꿔주었다. 그리하여, 누이는 빨리 산에서 내려와 할머니에게 영지버섯을 다려 드렸다. 할머니의 병이 며칠만에 나은 모습을 서복이 보고 이것이야말로 불로초라고 생각했다.

라. 스토리텔링의 활용

- 스토리텔링 활용단계는 더 많은 가치 창출을 위해 스토리텔링을 확장하여 지역 연계 사업화와 파생 프로그램 개발의 아이디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미 개발한 스토리텔링을 토대로 지역적 연관성과, 연계할 콘텐츠에 차별성 있는 콘셉트를 추가하여 축제에 대한 흥미 유발(주목성)·감성적 가치(친근감 등)가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스토리텔링에 지역의 역사, 공간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창작한 부가적 스토리로 문화콘텐츠화하는 과정으로 소비자는 이를 문화관광 자원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됨
 - 공연, 축제, 체험 프로그램, 시청각 해설, 전시, 관광 가이드, 멀티 미디어쇼, 안내 책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된 스토리텔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자 참여형 스토리텔링으로 발전될 수 있으며(송영애, 2013) 이로써 스토리 자원이 문화자원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음

■ ‘다자구 할머니’ 스토리의 활용 사례

[표 6] 다자구 할머니 스토리의 축제 활용 사례

여성영웅 원형	스토리	스토리텔링	표현요소에 따른 축제활용	
생산과 창조의 여신 -새로운 질서 창조 및 거둬의 주제	시련과 고난	그 당시 실제상황 재현	시각적 요소	공간배치, 경관조화, 캐릭터 개발, 홍보물 및 안내판
	묘책과 지략	지혜를 배워볼 수 있는 스토리	내용적 요소	주제공연, 체험프로그램 등 -다자구 할머니 퍼레이드, 할매할매 합창단 콘테스트, 이야기 대회 등
	문제의 해결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영웅원형		감성적 요소
	마을의 안녕	마을의 풍요와 안녕 기원		

- ‘다자구 할머니’는 충북 단양군 용부원리를 중심으로 여성신격으로 전승되어 온 설화로 죽령고개에 좌정해 있던 여신이 할머니로 현신해 도적의 피해와 이에 따른 고통을 지혜롭게 해결하여 그 신성성을 드러내고 공동체 제의의 신체(神體)로 자리 잡는 여신신화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기리기 위해 마을에서는 해마다 봄과 가을에 충북 민속자료 제3호로 지정된 죽령 산신당에서 ‘다자구 할머니’를 신으로 모시며 산신제를 지냄
- ‘다자구 할머니’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성향을 가진 생산과 창조의 여신으로 스스로가 지닌 풍요와 생산력을 바탕으로 삶·죽음·구원의 문제에 관여하고 인간의 근원을 제공하며 이와 같은 캐릭터 특성을 축제에 반영, 대표 지역축제로서 마을의 기원과 안녕을 기리도록 함

■ ‘생강선생’ 스토리의 활용 사례

- ‘선생’은 일찍부터 도를 깨달은 자, 덕업이 있는 자, 성현의 도를 전하고 학업을 가르쳐주며 의혹을 풀어주는 자, 국왕이 자문할 수 있을 만큼 학식을 가진 자 등을 의미함
- 생강선생은 안동생강을 의인화함으로써 스토리텔링의 주인공 화자(話者)이자 이야기를 연결하는 매개자라고 할 수 있음
- 옛날 안동 땅에 강(薑)이라는 선비가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생(生)기 넘치는 강선비라 하여 ‘생강(生薑)선생’으로 불렀다는 것이 인물의 기본 설정이며, 외모는 울퉁불퉁한 생강처럼 개성이 강해 보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없는 고귀하고 정결한 향취가 있다는 전개임

[표 7] 스토리의 축제 활용 사례

캐릭터 원형	스토리	표현요소에 따른 축제활용	
 <p>생강선생 -고귀하고 정결한 스승</p>	생강선생과 퇴계, 서애와의 인연	시각적 요소	생강선생 이야기를 소재로 이벤트 홍보 시리즈 만화(다양한 영상물로 제작)
	생강 가공품이 남녀의 인연을 맺어줌	내용적 요소	스승과 제자의 추억여행
			생강 창작요리 경연대회
			퇴계의 예던 길 걷기
	생강선생과 농암과의 만남		만휴정 외나무 다리(사랑고백 명소화)
	생강선생과 소동파		월영교 문보트 타기
			생각 전문 음식점
	힐링 카페		

■ ‘진주성 전투’ 스토리의 활용 사례

- 진주남강유등축제 기획의 기반이 되는 기본 이야기 구조는 진주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에서 도출한 것으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중 하나인 충의가 어떤 양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며, 충절의 도시라는 진주시의 상징적 이미지를 강화
- 유등축제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등(燈)은 기본 이야기 구조 속에서 재발견된 이야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등(燈)은 진주성 전투 당시 군사작전을 위해, 진주성 내부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 그리고 진주성 전투 후 순절한 사람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사용

[표 8] 전투 스토리의 축제 활용 사례

구분	등장인물	갈등	일련의 사건	표현요소에 따른 축제활용	
제1차 진주성 전투	주인공 : 김시민	1592년 진주성에서 벌 어진 6일 간 의 전투	-일본군의 침략 -민관군의 합동전투 -한국의 승전 -김시민의 순절	내용적 요소	<관람> - 진주성 둘레길 걷기 - 남강 둔치 걷기 - 유람선 타기 - 부교 통행하기 - 옛 엔터테인먼트 관람
	적대자 ; 일본군				
제2차 진주성 전투	주인공 : 논개	1593년 진주 성에서 벌어진 참극과 복수극	-일본군의 재침략 -한국의 패전 -논개의 복수 -논개의 순절	내용적 요소	<체험> - 유등 띄우기 - 한복 착용하기 - 소형등 만들기 - 소망등 만들기 - 창작등 만들기
	적대자 : 일본군 수장				

제2장 광주시 3대 지역축제 현황 및 분석

1절. 광주시 3대 지역축제 현황 및 타 지자체 비교 사례

1. 광주 남한산성 문화제

가. 축제 개요

- 축제 슬로건 : 우리의 2천년, 세계와 함께한 10년
- 축제 장소 : 남한산성 도립공원 일원
- 개최 기간
 - 10월 3일(목)~6일(일)까지 4일간 개최(2024년 기준)
- 주최, 주관 : 광주시, 광주시문화재단
- 소요예산
 - 6.4억원(출연금 5.7억원/도비 0.7억원)
- 방문객 수(2024년) : 7만여명

나. 축제 주요 내용

- 축제 프로그램은 크게 개막식, 각종 공연 프로그램, 전통문화·역사 관련 행사, 학술 행사, 체험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로 나눌 수 있음

[표 9] 축제 주요 내용

분류	프로그램명
대표 프로그램	개막식
공연 프로그램	산성 콘서트, 산성성내장 트로트 콘서트, 산성한마당, 남한산성예술꽃피우다, 야외무대 문화공연
전통문화·역사 관련 행사	수호자 퍼레이드, 행궁 야간개방, 송렬전 제향 퍼포먼스, 효종갱 전시, 남한산성 대동굿, 다례시연
학술 행사	남한산성 학술 심포지엄, 남한산성을 넘는 녀석들(역사강연)
체험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산성야행, 과거시험 체험, 가족과 함께 즐기는 체험부스, 산성리 주민과 함께하는 떡메치기, 전통놀이, 아트마켓, 산성성내장 먹거리장터

■ 각 프로그램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대표 프로그램

- 개막식
 - 행궁 외행전을 무대로 삼아 개막 메인 공연 진행
 -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대동놀이 의미를 반영하고 UNESCO 등재 10주년을 기념한 개막 프로그램 구성

[그림 3] 제29회 광주시 남한산성문화제 개막식



○ 공연 프로그램

- 산성 콘서트
 - 멋진 노을의 명소, 수어장대에서 열리는 대중가요 콘서트
- 산성성내장 트로트 콘서트
 - 중앙주차장 야외무대에 설치된 산성성내장에서 열리는 트로트 콘서트
- 산성한마당
 - 인화관에서 진행되는 농악, 무예시범, 인디가수, 대학 동아리, 지역 시니어 동아리 등의 공연
- 남한산성 예술 꽃 피우다
 - 중앙주차장 야외무대에서 낮 시간대에 진행되며 광주시 활동 가수, 청소년 뮤지컬, 퓨전국악, 무용단 등의 공연으로 구성
- 야외무대 문화공연
 - 중앙주차장 야외무대에서 '남한산성 예술 꽃 피우다' 이후 시간대에 진행되며 남한산성 권역 7개 지방문화원,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동아리, 남한산성 부녀회 등의 공연으로 구성됨

[그림 4] 남한산성문화제 주요 공연 프로그램



○ 전통문화 관련 행사

- 수호자 퍼레이드
 - 장소 : 남한산성 행궁 한남루~산성로터리~중앙주차장
 - 내용 : 남한산성을 지킨 사람들 모두가 영웅이라는 관점을 반영하여 나라와 가족, 이웃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수 많은 영웅을 모티브로 한 히어로 퍼레이드로 구성
- 행궁 야간개방
 - 전통과 현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융복합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남한산성 건물에 투영, 공연까지 접목하여 새로운 남한산성의 모습을 선보임
 - 행궁, 한남루, 인화관 등 건물에 미디어 파사드(영상맵핑, 조명) 운영
- 송렬전 제향 퍼포먼스
 - 송렬전에 위패를 모신 온조대왕을 기리는 전통 제향의식을 음악과 퍼포먼스로 각색하여 재현
- 효종갱 전시
 - ‘새벽에 종이 울릴 때 먹는 국’이란 뜻으로 경기도 광주 사람들이 끓여서 서울에 내다 팔던 해장국인 ‘효종갱’ 음식 재현
- 남한산성 대동굿
 - 중앙주차장 야외무대에서 진행되며, 남한산성 축성 및 병자호란 때 죽은 영혼을 달래는 굿 의식으로, 남한산성문화제의 발원 동기가 된 청량당굿 재현
- 다례시연
 - 침괘전에서 오후 시간대에 진행되며, 전통차와 함께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시간

[그림 5] 남한산성문화제 주요 전통문화 관련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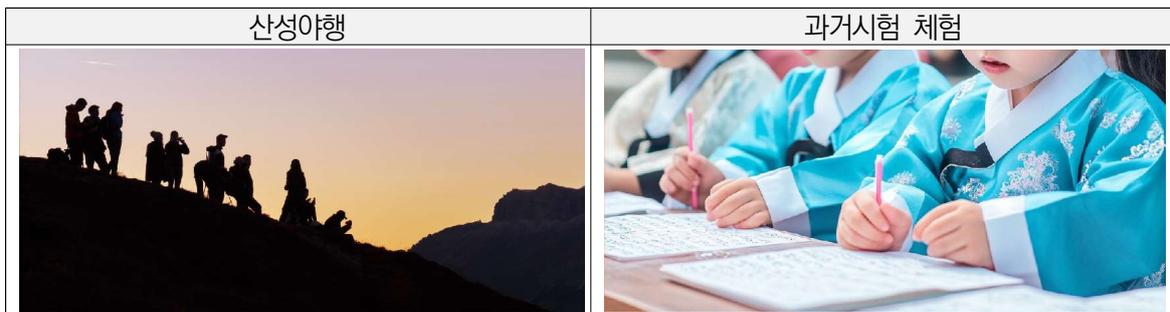
○ 학술 행사

- 남한산성 학술 심포지엄
 -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며,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연구자료 발표 및 토론으로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학술행사
- 남한산성을 넘는 녀석들(역사강연)
 - ‘병자호란에서 알 수 있는 외교의 중요성’,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를 품다’ 2개의 주제로 2회의 역사강연 진행

○ 체험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 산성야행
 - 밤을 지키는 남한산성 속에 존재하는 우리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마주하는 프로그램으로 남한산성 탐방로 코스를 기반으로 한 산성야행 운영
- 과거시험 체험
 - 행궁 한남루에서 진행되며 역사기반 퀴즈쇼 등 과거시험 체험 프로그램 진행
- 가족과 함께 즐기는 체험부스
 - 중앙주차장 일대에서 진행되며 공예, 천연염색, 막걸리 빚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 진행
- 산성리 주민과 함께하는 떡메치기
 - 산성리 주민들과 함께하는 떡메치기 체험 프로그램 진행
- 전통놀이
 - 투호, 제기차기, 팽이치기, 대형 윷놀이, 젠가로 성벽 쌓기 체험, 전통 민화 따라 그리기 등의 놀이체험 프로그램 진행
- 아트마켓
 - 손뜨개, 인센스홀더, 가족소품 등 다양한 아트 플리마켓
- 산성성내장 먹거리장터
 - 주민들과 상인회가 준비한 남한산성의 전통음식 먹거리 다양한 체험과 나눔 프로그램 운영 및 아트마켓 및 중소규모 공연 진행

[그림 6] 남한산성문화제 주요 체험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다. 타 지자체 축제 비교 사례

■ 수원 화성 힐링폴링 축제

○ 비교 사례 선정 이유

- 수원 화성 역시 남한산성과 유사하게 조선 후기에 수축된 성곽 도시이며 행궁과 성벽이 잘 보존되고 복원되었다는 점, 두 성 모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점, 조선의 특정 군주(정조 및 인조)와 관련성이 깊다는 점 등에서 유사성이 높고 축제의 스토리 기반이 탄탄하여 비교 사례로 선정함

○ 축제 개요

-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정조를 메인 테마로 하여 매년 가을 수원 화성 일대에서 벌어지는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등의 축제와 전시를 총괄하는 명칭
- ‘20~’23년에 이어 ‘24~’25년 문체부 선정 문화관광축제*에 연속 선정되었으며, ‘24~’25 축제 선정시에 최고점을 받아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23년 축제기간 동안 40여만 명이 방문함
- 전국 1,200여개의 지역축제 중 문체부가 지정하는 우수축제로 ‘24~’25년 기간의 경우 25개의 지역축제가 선정됨
- 각 축제 및 전시의 개요와 개최 기간은 아래 표와 같음(2024년 기준)

[표 10] 수원 화성 힐링폴링 축제를 구성하는 축제들의 개요

명칭	행사 개요	개최 기간(24년 기준)
수원화성 문화제	수원화성에서 열렸던 혜경궁 홍씨의 환갑연과 수원화성에 담긴 정조의 부국강병 정신에 초점을 맞춘 축제	10/4~10/6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원행을묘정리의궤’에 기록된 1795년 정조의 창덕궁에서 수원 화성으로의 대규모 행차	10/6 (행렬의 수원 방문일)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정조, 수원화성을 테마로 한 미디어아트쇼	9/28~10/20

○ 수원화성 힐링폴링 축제의 스토리텔링 전략과 콘텐츠

- 힐링폴링 축제는 정조, 수원화성과 관련된 방대하고 상세한 역사기록들에 근거하고 있음
- 기록들은 건축, 정조의 가족사, 군사·국방, 왕실 의례, 복식, 요리, 과거시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의 변용과 응용이 용이함

- 콘텐츠가 너무 많아 축제의 포커스가 명확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원화성-정조와 관련된 핵심 스토리들을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스토리와 콘텐츠 표현 방식에 따라 세부 축제별로 나누고 있음
- ‘수원화성 문화제’는 혜경궁 홍씨의 환갑연과 수원화성에 담긴 정조의 꿈에,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로 향하는 창덕궁-수원-화성을 거치는 능행을 핵심스토리로 하고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축제’는 정조와 수원화성을 시각화하는 미디어아트에 집중함
- 이처럼 힐링폴링 축제를 구성하는 축제들을 분산하는 동시에 개최 시기를 동일하게 맞춰 각 축제 간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고 있음. 즉, 핵심 스토리를 중심에 두고 세부 축제를 구성하면서 개최 시기는 동일하게 맞춰 분산과 집중의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힐링폴링 축제의 핵심 전략임
- 힐링폴링 축제를 구성하는 각 축제들의 핵심 스토리 및 이를 표현한 콘텐츠는 아래의 <표 9>와 같음

[표 11] 수원 화성 힐링폴링 축제의 핵심 스토리 및 관련 축제 콘텐츠

세부 축제	스토리	관련 축제 콘텐츠와 표현 방식	
수원화성 문화제	정조가 화성 완공을 축하하는 연회를 열다	시청각적 요소	•수원화성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낙성연’을 재현한 공연 및 드론쇼
	정조가 화성 완공을 축하하는 별시를 개최하다	체험형 프로그램	•화성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 개최된 과거시험(별시)을 재현한 어린이 대상 역사퀴즈 경연대회
	정조가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환갑연을 개최하다	시청각적 요소	•혜경궁 홍씨의 환갑연인 ‘진찬연’을 소재로 한 공연(연극) •진찬연을 준비하는 수라간 나인과 보부상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판소리극
체험형 프로그램		•진찬연을 기록한 ‘봉수당 진찬도’를 대형 벽화형식으로 재현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봉수당 진찬도’ 퍼즐 빨리 맞추기 대회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정조대왕이 행차 중에 수원에 들리다	시청각적 요소	•수원 구간에서 있었던 정조대왕 행렬 재현 •정조가 행궁이 있던 수원화성에 도착함을 알리는 파말 및 군문의식 •수원유수가 정조 행렬을 맞이하는 광경 재현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진찬연 등 정조의 화성 및 수원 방문	시청각적 요소	•정조의 화성과 수원 방문을 기록한 화성행 행도를 모티브로 한 미디어아트 전시

2. 광주 왕실도자컨퍼런스

가. 축제 개요

- 축제 주제 : 「빛나는 조선 왕실 도자, 광주가 빛다」
- 축제 장소 : 곤지암도자공원 일원
- 개최 기간
 - 2024. 5. 3.(금)~5. 15.(수)
- 주최/주관 : 광주시축제추진위원회·광주왕실도자컨퍼런스 운영위원회
- 사업비 : 7.25억원(도비 10%, 시비 90%)
- 방문객수(2024년) : 9만 1천여명

나. 축제 주요 내용

- 축제 프로그램들은 성격에 따라 크게 전시, 공연·이벤트, 체험 행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표 12] 광주 왕실도자컨퍼런스의 프로그램 구성

분류	프로그램
전시	광주 왕실도자 패션쇼, 광주 왕실도자 전시회, 미디어 파사드
공연·이벤트	개막 공식행사, 왕실 도자 진상식 및 진상 행렬, 광주 왕실 사람들, 광주 왕실 버스킹
체험	도자기 물레체험, 도자기 흙 밟기, 도자기 초벌 페인팅, 조선 왕실 다도 체험 등

- 각 프로그램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전시 프로그램

- 광주 왕실도자 패션쇼
 - 분수광장 일대에서 개최되며 광주왕실도자의 전통적인 디자인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전통한복 및 퓨전한복 패션쇼
- 광주 왕실도자 전시회(상시)
 - 광주시 도자기 명장들이 만든 도자기를 전시하고 설명하며(도슨트) 구입도 할 수 있는 상설 전시회
- 미디어 파사드
 - 광주 왕실도자의 정체성과 아름다움을 스토리텔링하는 야간 경관 미디어 파사드로 축제 기간 중 공휴일에만 진행함

[그림 7] 광주 왕실도자컨퍼런스 주요 전시 프로그램



○ 공연·이벤트

- 광주 왕실 사람들
 - 행사장 곳곳에 조선 왕실 복장을 입은 배우들이 돌아다니며 관객들과 소통하는 이벤트
- 개막 공식행사(개막식)
 - 도자기 진상 퍼포먼스, 달항아리 휘호 등의 식전 공연과 풍물 공연, 국악 공연 등으로 구성된 개막식 행사
- 왕실 도자 진상식 및 진상행렬(행사)
 - 왕에게 도자기를 진상하는 진상식과 진상행렬을 재현한 공연
- 광주 왕실 버스킹
 - 어쿠스틱, 서커스 등 다양한 장르의 시민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

[그림 8] 광주 왕실도자컨퍼런스 주요 공연·이벤트



○ 체험 프로그램

- 도자기 물레체험, 도자기 흙 밟기, 도자기 초벌 페인팅, 조선 왕실 다도 체험 등

[그림 9] 주요 체험 프로그램



다. 타 지자체 축제 비교 사례

■ 이천 도자기 축제

○ 비교 사례 선정 이유

- 광주와 유사하게 이천 역시 예로부터 도자기로 유명한 지역으로 두 축제 모두 도자기를 핵심 소재로 하며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비교 사례로 선정함

○ 축제 개요

- 이천 도자기의 우수성과 전통미를 알리기 위해 매년 봄 개최되는 축제로 이천시와 이천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기관광축제 지원 사업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으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엔 38만여명이 방문하였음

○ 축제 주요 내용

- 축제 전반의 스토리텔링은 명확하지 않으나 국내외 최신 트렌드의 다양한 도자기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판매 행사를 중심으로 축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음
- 이천 도자기 축제의 프로그램은 크게 개막식, 도자기 전시·판매, 체험, 공연으로 분류됨

[표 13] 이천도자기축제 프로그램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개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막식 식전공연 : 클래식 공연 • 개막식 퍼포먼스 : 도자명장과 도예고 학생들의 세대를 잇는 물레시연 및 체리스트 연주 • 이천도자기축제 성공기원 다례제 • 경기도지사 축사, 이천시장 환영사 • 개막식 축하공연(대중가수)
전시	기획전	공방별 작품을 한곳에 모아 친환경을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 구성
	명장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장 작품의 전시를 통한 이천 도자의 역사와 위상 홍보 • 부귀영화를 뜻하는 '목단' 문양 도자기 작품 전시
	현대작가 공모전	축제 주제인 봄꽃과 관련된 친환경 작품 전시
	해외교류전	이천시와 교류 중인 해외 도시의 도자 작품 전시
한국세라믹기술원전		3차원 스캐닝(3D프린팅)을 활용한 도자기 제작 체험을 통해 이천의 첨단기술에 도자기를 접목한 이색 체험 제공
체험	사기막골도예촌 행사	도자세일판매, 도자기체험, 문화공연, 버스킹, 이벤트 등
	화덕쌀밥 굽기	화덕가마에서 구워낸 화덕쌀밥 나눠먹기 이벤트
	사찰음식 체험	사찰음식을 이천도자기에 담아 플레이팅한 작품 감상 및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머그컵 만들기 체험	원하는 그림 그린 종이를 초벌 머그에 입힘
	트레저 헌팅	비급 도자기를 원하는 바구니에 담아 저렴하게 구입
공연		버스킹, 디제이박스 등

3. 퇴촌 토마토 축제

가. 축제 개요

- 축제 주제 : 「토마토로 붉게물든! 너른고을 퇴촌거리!」
- 축제 장소 : 퇴촌면 광동로 일원
- 개최 기간
 - 2024. 6. 14.(금) ~ 6. 16.(일)
- 주최/주관 : 광주시축제추진위원회 / 퇴촌토마토축제운영위원회
- 사업비 : 3.75억원(시비 3.35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0.4억원)
- 방문객수(2024년) : 30만여 명

나. 축제 주요 내용

- 축제 프로그램은 크게 각종 공연행사, 토마토 관련 체험행사, 부대행사로 나눌 수 있음

[표 14] 퇴촌 토마토 축제 주요 내용

분류	프로그램명
공연행사	KBS2 라디오 “주현미의 러브레터”, 토마토 열린 콘서트, 식전공연
체험행사	토마토 놀이존 운영, 황금 토마토를 찾아라, 토마토 레크리에이션, 토마토화분 만들기
부대행사	토마토 김치 페스타(토마토 김치 경연대회 수상작 시식회 등), 토마토 품평회 및 시식회, 토마토 및 지역 특산품 판매장 운영, 토마토 품종별 전시

- 각 프로그램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공연행사

- KBS2 라디오 “주현미의 러브레터”
 - KBS2 방송국에서 주관하고 행사장 메인무대에서 열리는 개막행사 식후공연

- 토마토 열린 콘서트
 - 2일차 저녁, 행사장 메인무대에서 열리는 대중 가요 콘서트
- 식전공연
 - 행사장 메인무대에서 열리는 식전공연으로 고적대 퍼레이드, 오케스트라 공연, 대북공연 등을 진행

[그림 10] 퇴촌 토마토 축제 공연행사



○ 체험행사

- 토마토 놀이존 운영
 - 퇴촌농협 앞 토마토폰장에서 진행되며 물풀장, 바이킹 등의 놀이시설 운영
- 황금 토마토를 찾아라
 - 퇴촌농협 앞 토마토폰장에서 진행되며 상품칩이 들어 있는 토마토를 찾아 금, 토마토 등의 경품을 얻는 체험 프로그램
- 토마토 레크리에이션
 - 행사장 메인무대에서 진행되며 ‘토마토 높이 쌓기’, ‘토마토 몸무게를 맞춰라’, ‘토마토로 말해요’ 등 축제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 토마토화분 만들기
 - 축제 방문객이 직접 토마토 모종을 화분에 옮겨 심어 자신만의 토마토 화분을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

[그림 11] 퇴촌 토마토 축제 체험행사



○ 부대행사

- 토마토 김치 페스타
 - 김치 페스타 부스에서 3일간 진행되며 토마토 김치 경연대회 수상작 시식회, 김치 아카데미, 토마토 김치 만들기 체험 등의 토마토 김치 관련 프로그램 진행
- 토마토 품평회 및 시식회
 - 행사 메인무대 앞에서 진행되며 퇴촌면의 5개 작목반에서 생산한 토마토들을 품평 및 시식하는 프로그램
- 토마토 및 지역특산품 판매장 운영
 - 퇴촌토마토연합회, 퇴촌면새마을회 등에서 주관하는 퇴촌면 토마토 및 지역 농산물 직거래 판매부스
- 토마토 품종별 전시(상시)
 - 행사장 주변 및 포토존에 다양한 품종의 토마토를 전시하여 축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퇴촌면 토마토 홍보

[그림 12] 퇴촌 토마토 축제 부대행사



다. 타 지자체 축제 비교 사례

■ 화천 토마토 축제

○ 비교 사례 선정 이유

- 퇴촌면과 동일하게 토마토를 핵심소재로 하여 진행되는 축제이며 지역의 유명 축제로 자리잡았다는 점에서 비교 사례로 선정함

○ 축제 개요

- 화천군 사내면 지역의 토마토 홍보를 위한 지역 축제로 화천군이 주최하고 화천토마토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음
- 산천어 축제가 화천군의 관광객 유치를 겨울철 핵심 콘텐츠라면, 화천 토마토 축제는 더위가 절정인 8월 초에 개최되어 화천군 피서철 관광 핵심 콘텐츠 기능을 맡고 있음

○ 축제 주요 내용

- 화천토마토축제에서 가장 유명한 콘텐츠는 ‘황금반지를 찾아라’이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토마토와의 연관성이 높지 않고 더위 해소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여름 축제를 토마토를 통해 브랜딩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화천의 지역 정체성에서 군부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지역에 위치한 군부대(15사단)와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다수 편성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아래 표에서도 화천토마토축제의 프로그램을 토마토 관련, 피서 관련, 지역 군부대 관련, 기타로 크게 분류하였음

[표 15] 화천 토마토 축제 프로그램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축제 선포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전공연 : 군악대 행진, 주민자치위원회 공연 등 • 선포식 : 군수 등 환영사 및 축사, 불꽃놀이 • 축하공연(대중가수)
토마토 관련 프로그램	황금반지를 찾아라	상품성이 없는 과숙 토마토를 이용하여 조성된 대규모 토마토 풀에 숨겨진 금반지를 찾는 이벤트로
	오뚜기와 함께하는 천인의 식탁	축제 후원사인 오뚜기와 함께 현장에서 1000인분의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어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사
	관련 체험	토마토 슬라이스 체험, 토마토 네컷 및 포토존
	관련 부대행사	토마토티셔츠 및 굿즈 판매, 토마토 푸드코너 및 먹거리존 운영, 공영쇼핑 라이브커머스
피서 관련 프로그램	물난장	물대포·물풍선을 활용한 이벤트
	워터존 내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개 터널 • 아이스 족욕존 • 슬라이딩·기구 수영장 • 물총놀이터 • 버블놀이터
지역 군부대 관련	군부대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사단 군악대 공연 • 2군단 태권도 시범 • 스포츠 게임 • 승리부대 장병의 밤
	밀리터리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국이체험존 • 육군 대형 군장비 전시 및 체험 • 군장병 쉽터
기타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선아트·페이스페인팅만들기 • 산타우체국 • 체험비즈팔찌 만들기 체험 • 119 안전 체험
	부대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천군 농특산물 판매장 • 4-H 홍보 및 판매부스

2절. 스토리 구조 관점에서의 광주시 3대 지역축제 현황 분석

■ 남한산성 문화제의 프로그램들은 전체적으로 남한산성의 고유한 역사와 연관성이 떨어짐

- 국악과 대중가요 등 공연 프로그램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며, 국악 공연 또한 남한산성의 역사와는 연관성이 미약함
- 그 이외의 프로그램들도 ‘옛 것이란 느낌’만 있을 뿐 남한산성 고유의 역사적 스토리와는 관련성이 없음
- 남한산성의 역사와 관련성이 높은 프로그램은 수호자 퍼레이드, 남한산성 대동굿 정도이나 수호자 퍼레이드는 ‘남한산성을 지킨 모두가 영웅이자 수호자’라는 컨셉이 지나치게 포괄적 이어서 스토리로서의 설득력이 약함
 - 그 외에 효종갱 전시 역시, 광주 지역의 전통 음식일 뿐으로 남한산성의 고유한 역사와는 연 관성이 약함

■ 광주 왕실도자컨퍼런스

- 전체적으로 수많은 지역의 백자 중 오직 광주 백자만이 조선 왕실 전용으로 쓰였음을 강조 하는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함
-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 프로그램과 대중 대상의 축제가 섞여 있어 행사 전반의 정체성 도 모호함
- 조선 왕실 복장을 입은 배우들이 출몰하는 ‘광주 왕실 사람들’, 왕실도자를 현대적으로 재 해석했다는 ‘왕실도자 패션쇼’는 왕실 백자가 아니라 의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
- 축제 기간도 길고 프로그램들도 분산되어 있어 관람객들에게 임팩트를 주기 어려움

■ 퇴촌 토마토 축제

- 토마토를 소재로 하는 다양한 체험, 이벤트, 음식 체험 등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 광주시 3대 축제 중 핵심 소재에 가장 충실함
- 그러나 축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스토리의 부재로 개별 프로그램들의 나열에 그치고 있 어 경쟁 축제 대비 차별성이 부족하고 가족 단위 관람객(어린이)들에게 더 큰 몰입감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부족
- 또한 ‘여름 축제’를 컨셉으로 내세운 경쟁 축제와 비교할 때 축제 전반의 컨셉이 약하고 프 로그램들의 규모도 경쟁 축제에 비해 아기자기한 편

제3장 광주시 3대 지역축제 핵심소재 자료조사

1절. 남한산성 관련 자료 조사

1. 자원핵심조사

■ 남한산성의 역사적 중요성

- 남한산성은 17세기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피난하면서 항전했던 장소로 조선 후기 국방의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산성을 둘러싼 성곽과 자연적인 방어 지형이 중요한 역할을 함
 - 서울의 중심부에서 동남쪽으로 25km 떨어져 있으며 내부는 도시가 입지할 수 있을 만큼의 넓은 분지로 백성과 함께 왕조가 대피할 수 있는 조선 왕실의 보장처였음
 - 산성 안의 행궁에는 유일하게 종묘와 사직을 모실 수 있는 좌전과 우실을 갖추고 있어 유사시 임시수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던 매우 중요한 곳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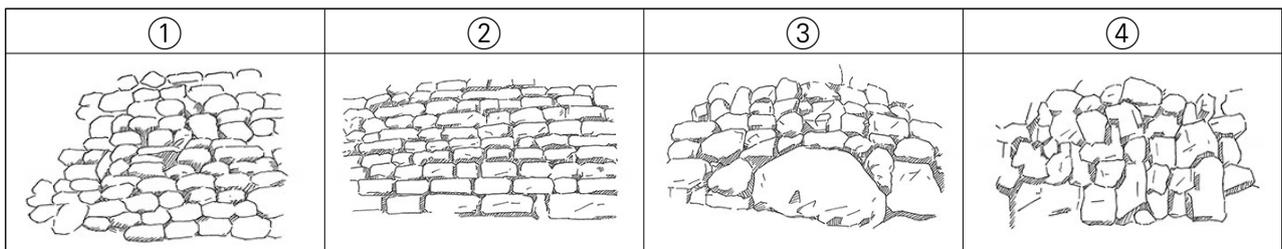
■ 입지 조건

- 남한산성은 평균 고도 해발 480m 이상의 험준한 산세를 따라 둘레 11km가 넘는 성벽을 구축하여 많은 병력으로도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지리적 여건을 구비하고 있음
 - 『여지도서』에서 남한산성은 ‘천작지성(天作之城)’이며 가운데는 평평하고 바깥은 험고하며 그 형세가 웅장해 산꼭대기에 관을 쓴 것 같은 형상이라 함
- 내부는 넓고 평탄하여 80여 개가 넘는 우물과 45개의 연못이 있을 정도로 수원이 풍부하여 수만 명이 넘는 병력의 식수를 해결 가능함

■ 성곽의 특징

- 남한산성은 7세기에 처음 축성되어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동안 신무기가 개발됨에 따라 새로운 원거리 무기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산성을 지속적으로 증개축해 한국 산성축조법의 발달과정이 잘 나타나있음

[표 16] 축성 시기별 남한산성 성곽의 변화



- ① 조선시대 이전 -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은 옥수수알 모양의 성돌을 촘촘하게 쌓음
- ② 인조 시기(17세기 초, 본성) - 장방형으로 가공된 성돌로 평평하게 쌓음

- ③ 속중 시기(17세기 후반, 한봉성) - 크기가 큰 깎돌과 성돌사이에 작은 사잇돌을 섞어 쌓음
 - ④ 영조 시기(18세기 중반, 신남성) - 돌의 모양이나 모서리를 맞추는 방식으로 견고하게 쌓음
- 성곽은 본성과 외성으로 구분하는데, 본성은 하나로 연결된 본성이며, 외성으로 동쪽에 봉암성과 한봉성, 남쪽에 신남성이 있으며, 동·서 두개의 돈대*가 구축되어 있음
- * 돈대 : 돈대는 적의 움직임을 살피거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영토내 접경지역이나 해안지역의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하는 초소
- 본성은 1624년(인조 2년)~1626년 (인조 4년) 사이에 개·증축 당시 축성되어 둘레는 7,545m이고 내부는 2,135,752㎡로서 대략 627,200평으로 측량되었음
 - 외성 중에 봉암성은 처음 성을 쌓은 이후, 300여 년간 보수하지 않아, 훼손된 상태였으나, 2022년에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2023년 겨울에 공사를 마치고 성문을 개방함
 - 병자호란 당시 청군이 신남성을 점거하고 검단산 정상에 대포를 설치하고 남한산성에 포격을 가했으며 이를 전후 삼아 영조 시기에 이 위치에 돈대를 설치함
- 성벽은 자연석으로 막돌쌓기를 하였는데, 높은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큰돌을 아래에 쌓고 작은 돌을 위로 쌓았으며 위로 갈수록 안쪽으로 기울어지며 성벽의 높이는 3~7m임
- 여장과 옹성
- 몸을 숨긴 채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시설인 여장은 남한산성에 기록상으로 1,944개가 있다고 함
 - 옹성은 방어가 취약한 성문이나 성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걸을 더 둘러 이중으로 쌓은 성벽으로 남한산성의 중요지점에 5개의 옹성이 있으며 끝 부분에 포루*를 설치한 것이 특징임
- * 포루 : 대포를 쏠 수 있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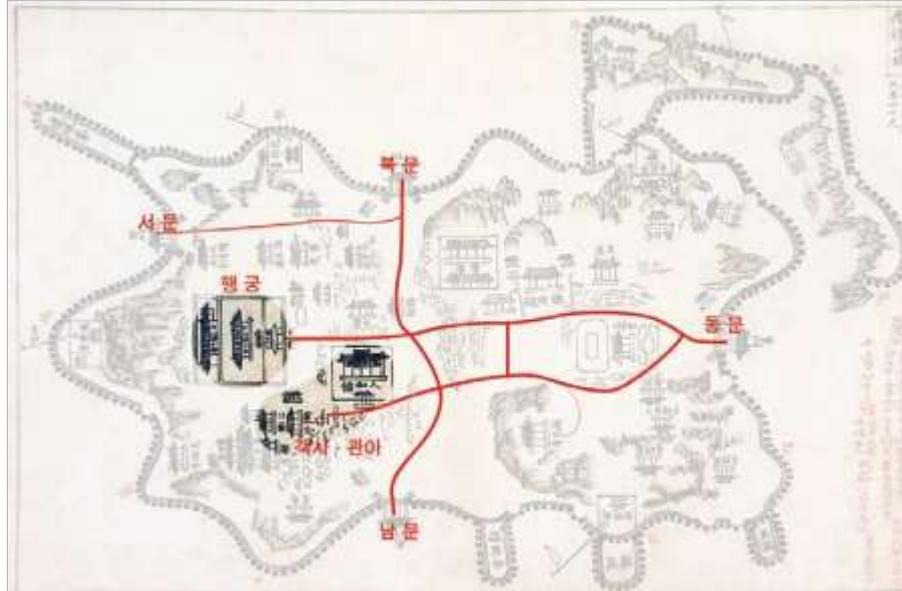
■ 성문과 문루

- 남한산성의 성문은 산세와 지형의 영향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형상을 하고 있어 그 중간에 암문을 많이 두어 활용함
- 병력과 물자의 이동을 위한 비밀의 문인 암문은 남한산성에는 총 16개가 존재함
- 남한산성에 있는 4대 성문은 밑에 흥예문을 두고 위에는 문루*를 세운 것으로 문의 규모는 남문이 가장 크고 다음 북문, 동문 그리고 서문의 순서임
- ※ 문루 : 궁문, 성문 따위의 바깥문 위에 지은 다락집을 뜻함
- 문루는 모두 정면이 3칸이지만, 측면은 남문이 3칸, 북문 2칸, 동문 2칸, 서문 1칸으로 되어 있음
 - 문루의 지붕은 모두 팔작지붕 양성*을 바르고 동문의 무익공 훌처마를 제외하고는 모두 겹처마의 초익공을 함
- ※ 지붕마루의 양쪽에 회반죽을 바른 벽

■ 남한산성의 도로망과 평지의 특징

- 성안의 도로망은 개천을 따라 형성되는 동서 간선로와 남문과 북문을 연결하는 남북 간선로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둘의 정점에는 행궁영역과 공해영역이 자리함

[그림 13] 남한산성 도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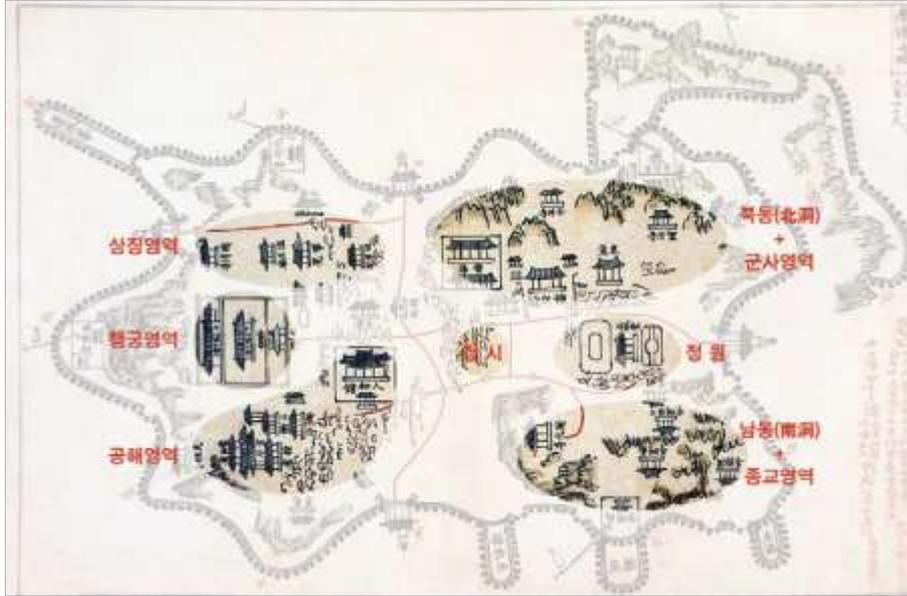


- 수어장대가 있는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개천이 남한산성을 동서로 가로지르며 자연스럽게 개천을 따라 동서 간선로가 형성됨
- 동문에서 시작한 물길을 따라오다 보면 지수당 근처에서 남쪽과 북쪽의 양갈래로 갈라져 뻗어 나가다가 남북 간선로와 만나게 되고 이곳에 생긴 사다리꼴 영역 안에 지수당과 연무대의 빈터가 자리함
- 남문과 북문을 연결하는 남북 간선로가 있으며, 북쪽 동서 간선로의 정점에는 행궁영역이 남쪽 동서 간선로의 정점에는 객사*를 비롯한 공해영역이 자리함
 - ※ 객사 : 임금을 상징하는 ‘궐패’를 모시고, 지방 수령이 문안을 드리던 곳으로 관리들의 숙소로 사용한 장소
- 남한산성의 평지 지역은 행궁 영역이 있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는 형태를 가져, 행궁에서 산성 안을 전체적으로 관망하고 통치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짐
 - 남북 간선로를 기준으로 서쪽은 행궁 및 공해 영역, 관아영역의 행정기관이 집중되어 있고, 동서간선로를 기준으로 남북로의 동쪽에서는 군사지역과 종교 및 민간지역으로 나뉨
 - 남북 간선로와 동서 간선로의 가로망과 대지의 높낮이가 성 내 토지영역을 나누는 기준이 됨
- 두 간선로의 중간에 종각이 설치되어 도시의 중심을 이루고, 중앙에서 하루 여러 차례 시간을 알리는 역할과 비상시 성내에 지휘를 위해 소집, 통보하는 역할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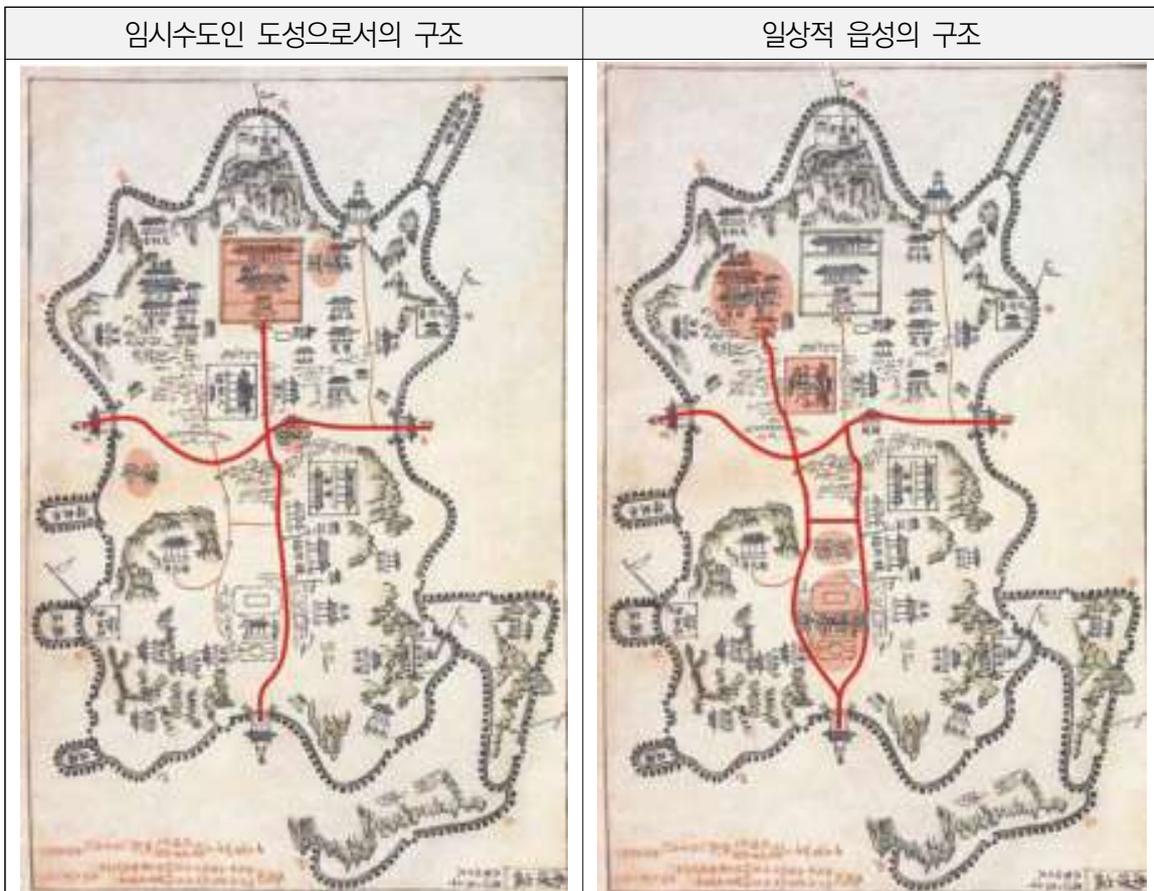
■ 남한산성의 도시구조적 특징

- 남한산성의 도시형성은 전례없는 형태로 산성이나 그 안의 구조를 살펴보면 읍성과 도성의 구조를 동시에 갖고 있음

[그림 14] 남한산성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남한산성의 구획별 토지 이용



[그림 15] 남한산성의 도시구조적 특징을 나타내는 지도



- 남한산성은 행궁이 중심으로 기능하기 위한 도시구조는 도성의 구조를 따르고 있고 남한산성은 한양도성을 대신하는 임시수도를 상징적으로 의미함
 - 남한산성 내에서 행궁은 임금이 비상시 머무는 조선 내의 왕궁으로 비유할 수 있음
 - 종묘와 사직은 숙종 때 만들어진 좌전과 우실이 되면서 유사시에 종묘·사직의 위패*를 남한산성의 좌전과 우실에 모실 수 있어, 유사시에 왕실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함
 - ※ 위패 :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 그의 혼을 대신한다는 상징성을 갖는 나무 조각
- 행궁과 객사를 향하는 각각의 동서 간선로가 성내의 중심에 평행하고 동등하게 놓이게 되는데, 일상의 경우와 비상시의 경우 각각 다르게 작용하여 도성과 읍성의 구조를 보임
 - 평상시에는 객사로 향하는 남쪽 동서로가 읍성의 중심로로 인식되어 남한산성이 광주읍성으로 기능하게 만들
 - 비상시에는 행궁이 중심이 되면서 북쪽 동서간선로가 중심로가 되면서 한양도성과 같은 수도로써 작동하며 도성의 구조를 지님

2. 전승가치조사

가. 병자호란 이전까지 남한산성의 역사

- 삼국시대 문무왕시절 나당전쟁을 대비하여 한산주에 주장성을 축조하였고, 이는 지금의 남한산성의 토대가 되었음
 - 668년 신라는 당나라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한반도 전역을 점령하기 위해 진격해 오는 당나라를 막기 위해 신라는 대비책을 만들
 - 당나라 정계에 진출한 신라인이나 유학승려 등을 통해 당시 당나라의 서역지방에 반란이 일어나 당나라가 신라와의 전투에서 총력을 기울이지 못한다는 정보를 입수함
 - 병력면에서 열세였던 신라가 택한 전술은 ‘청야입보(淸野入保)’술이었고, 이는 험준한 산위에 성을 쌓아 산성에 올라오려는 적들을 공격하는 방어전략임
 - 신라는 적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험준한 산에 성을 쌓은 후 평지의 식량을 모두 산성으로 올려 적들을 피하였다가 적이 지친다면 공격하고, 적이 우회하여 지나가면 적의 보급로를 차단함
 - 문무왕 12년(672년), 한산주에 둘레 4,360보에 달하는 당시 신라가 쌓은 성 중에서 최대 규모인 ‘주장성’을 축성하였고, 당나라의 공격을 방어하는 제 2방어선으로 기능함

- 신라의 제1 방어선은 당군과 경계를 이루던 임진강이었고, 칠중성이 그 거점성 역할을 맡음
 - 신라는 임진강의 방어선이 붕괴될 경우를 대비하여 한강 방어선을 강화하고자 한산주에 '주장성'을 축성함
- 한산주에 축성된 주장성은 남한산성의 토대가 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기록에 있음
- 한산주는 삼국통일 후 신라가 설치한 9주 중에 하나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송파구 일대, 경기도 광주시 및 경기도 하남시 지역까지 구성되었음
 - '신라 문무왕 12년에 성을 쌓고 이를 주장성이라고 하였으며, 일장성이라고도 불렀다. 『동국여지승람』에 광주의 일장산성은 신라 문무왕이 쌓은 것이니, 주장성은 곧 남한산성이다'라는 기록도 있음
 - 2000년에 진행된 토지공사의 남한산성 지표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측량 결과와 신라가 한산주에 축성한 '주장성'의 규모는 거의 비슷함
 - 현재 남한산성의 외성과 옹성을 제외한 본성의 둘레가 7,545m인데, 이는 4,360보라는 주장성의 규모와 비슷함
 - 남한산성 행궁지 발굴조사에서 대형건물지와 기와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672년 축성된 주장성의 건물 잔해와 일치하여 남한산성이 신라시대에 축성된 주장성과 같다는 의견에 부합함

[그림 16] 남한행궁 하궐 터에서 확인된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 고려시대 몽골에 대항하여 사용된 남한산성

- 몽골의 1차 침입으로 인한 패전 이후, 몽골이 다시 고려로 침입할 수 있다는 위협과 향촌 사회의 저항으로 위기를 느낀 고려시대 무인정권은 강화도로 천도를 강행하였음
 - 무인정권의 강화도 천도로 인해 버려진 개경과 향촌 사회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몽골과의 전면전을 준비해야 했음
- 몽골은 자신들의 무리한 조공과 횡포를 들어주지 않자 2차 침입을 단행하였고 개경을 지나 경기도 광주를 포함한 남쪽 지역까지 공략함
 - 몽골군의 주력세력은 개경을 거쳐 한양산성을 공취하고, 이어 광주를 거쳐 처인성으로 향한 것으로 보아 경기·충청도를 경유하여 경상도로 진로를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남
 - 처인성에 이르는 길목인 경기도 광주에서 몽골군의 주력세력인 살리타이군은 저항하는 광주민과 일대 접전을 벌임
 - 광주는 주요도로상의 거점이고 수도 남쪽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이며 몽골군의 핵심 타깃이었음
- 부사 이세화의 지휘하에 전력으로 싸운 결과, 수개월에 항쟁 끝에 광주 주민들은 일장산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성을 지키는데 성공함
 - 남하하는 몽골군 본대를 막기 위해 이세화는 일장산성의 성을 수리하고 몽골군의 공격에 대비함
 - 살리타이의 몽골군은 1232년 8월 말 경부터 12월에 걸쳐 일장산성을 수십 겹으로 포위하고 공격했지만, 끝내 일장산성을 함락하지 못함
 - 이 전투는 제2차 몽골 침입 때 고려 지방세력만으로 정부군의 도움 없이 거둔 승첩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음
- 이 성이 오늘날의 남한산성이고, 당시 일장산성 전투를 참여한 고려인들은 전략적인 필요에 의해 부분적으로 개조 및 수축을 진행함
 - 일장산은 낮이 가장 긴 산을 의미하여 일장산이라고 불렸고, 남한산성이 위치한 곳과 같음
 - 일장산성이 고대로부터 국방상의 요충지에 해당하여 산성의 증축 및 개축이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과 몽골군의 다음 목적지가 일장산성의 아래인 용인이었다는 기록이 일장산성이 경기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이라는 점을 나타냄

다. 인조 시기의 대대적 축성

■ 임진왜란을 거치며 남한산성을 제대로 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남한산성에 백성들을 이주시켜 전시 상황에 병사로 쓰는 ‘산성거주론’이 등장함

○ 조선시대 초기에 국경을 중심으로 읍성 및 행성 축조에 주력하여 국토방어체계를 갖추었으나 평지 읍성* 위주의 방어전략이었기 때문에 방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 읍성 : 마을이나 도시 같은 중대규모 거주지를 치안, 행정, 방위의 목적으로 방벽으로 둘러친 성곽형 방어시설을 의미함

-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침략으로 국경방어선이 무너지고 한양도성을 내주는 사태가 있었음
- “그대 나라 사람들은 어리석다. 성을 낮은 곳에 쌓았으니 적군이 높은데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쓰는 것을 당하지 못했다. 우리들이 그대 나라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이유다.”라고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포로에게 들었다는 기록이 있음

○ 임진왜란을 겪은 이후, 산성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유성룡이 ‘산성유익론’을 제시하여 산성의 축성을 건의하였지만 바로 받아들여지지 못함

- 유성룡은 산성을 통해 전란에 승리했던 행주대첩을 예시로 들어 산성의 이점을 제시하였고, 3가지의 이점을 제시함
 - 첫 번째로 높은 곳에서 적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점, 두 번째로 성 안은 외적에게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 세 번째로 높은 고도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지 않아 산성을 올라오는 적의 힘을 미리 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함
- 남한산성 인근은 지형이 험준하고, 농사엔 여건이 부적합하여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 바로 받아들여지지 못함

○ 일본 포로로 끌려갔던 강항이 산성은 백성들이 거주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성 내에 ‘읍치’를* 이전하여 백성들을 산성 안으로 이주시켜 수성군으로 활용하자는 ‘산성거주론’을 제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함

※ 읍치 : 조선시대에서 관아가 있는 마을과 같은 행정중심지를 이르는 말

- 당시 실학자였던 유형원은 자신이 집필한 『반계수록(磻溪隨錄)』에서 산성의 지형적 이점에 읍을 더하면 이상적인 요새를 만들 수 있다 하며 ‘산성거주론’을 높게 평가함
- 그러나, ‘산성거주론’이 논의된 당시의 조선은 임진왜란으로 인해 피폐해진 삶을 회복하는 것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산성거주론’은 실현되지 못함

■ 인조가 친명정책의 복원을 집권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며, 남한산성 수축 역시 후금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 광해군은 명나라의 원병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하는 등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음
- 광해군 말기로 갈수록 광해군의 친금 정책에 대한 신료들의 반발이 커져가 결국 인조반정이 발생하게 되고 인조는 다시 친명배금 정책으로 회귀하였음
- 인종은 1623년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직후부터 후금의 침략에 대비하여 전시수도로 활용할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하여 1624년부터 남한산성의 수축에 들어갔으며, 수축이 끝난 1626년엔 남한산성 수비를 위한 부대로 수어청을 창설함

■ 인조 시기에 청나라의 침입에 대비한 요새로 남한산성 축성이 본격 시작됨

- 인조 재위 시절, 후금과의 불안정한 외교관계와 이괄의 난으로 인해 인조가 공주로 피난가는 상황에서 도성 가까이 대피할 수 있는 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남한산성의 축성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됨
 - “강도(강화도)는 구석진 곳으로 온 나라를 호령하기 어려우니, 사변이 있을 경우, 남한산성에 들어가면 중앙에 있으면서 통제할 수 있을 겁니다.”라는 『인조실록』의 기록으로 이괄의 난 이후에 축성에 관한 논의를 알 수 있음
- 영의정 이원익이 남한산성을 축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고, 인조는 이를 받아들여, 이서를 남한산성 축성의 책임자로 임명함
 - 이서는 인조반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인조의 측근으로 별호는 완풍군, 관직은 총용사*였으며 남한산성 축성과 시민의 거주를 관리함
 - ※ 총용사 : 조선 후기 한양과 경기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군 총용청의 대장을 의미하는 관직명
- 남한산성의 축성은 이서의 관리 하에 16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1625년 7월 남한산성의 체성(體城)이 완성되었고, 1626년 11월에 남한산성의 축성을 마침
 - 완성된 남한산성은 청량산을 정점으로 주변의 능선을 따라 곡면을 이루며 축조됨
 - 산성 내에 왕이 임시로 머물 행궁도 마련되었는데, 기존 행궁과 달리 종묘와 사직에 해당하는 좌전(左殿)과 우실(右室)을 갖추

- 남한산성 완공 직후, 광주부 읍치를 산성 안으로 옮긴 후 모민정책을 실시하였고, 모민정책을 중지할만큼 많은 인구수가 산성 내로 모이며 남한산성의 산성거주론을 실현시킴
 - 읍치의 이전과 함께 산성 내에 백성들을 거주시키기 위해, 경작지를 개간할 권리, 국가적 공역 면제 등의 특혜를 주는 복호*(復戶)를 실시하는 등의 모민정책을 실시함
 - ※ 복호 : 국가가 호에 부과하는 요역(徭役)* 부담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던 제도를 뜻함
 - ※ 요역 : 중앙 정부 및 지방 관아에서 민가의 노동력을 필요에 따라 징발하는 제도를 의미함
 - 산성 보수 공역과 같은 산성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임금 지급과 구휼미 보조 등의 지원책도 제시하여 많은 인구수를 산성에 이주시킴
 - 당시 광주부 읍치가 다른 곳으로 변경되기까지 약 300년간 성내의 4,000여 명의 인구가 꾸준히 지속되어 대도시의 역할을 하였음

■ 남한산성 축성과 관련하여 매바위 설화가 있음

- 남한산성 축성의 책임자 역할을 맡은 이서가 벽암대사와 이회라는 두 인물에게 북과 남으로 나누어 축성을 지시함
 - 주어진 기한 내에 성을 쌓기 위해 북쪽은 벽암대사에게 맡기고 남쪽은 이회에게 맡김
- 산성의 북쪽과 남쪽은 지형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회는 제 시간 안에 일을 완수하지 못했음
 - 당시 북쪽의 지형은 완만하고, 산세가 평탄했으나 남쪽은 험곡이 많고, 깊은 절벽 지형이 많았기 때문에, 무거운 돌을 나르기에 어려웠음
 - 벽암대사는 전국의 사찰에서 승려들을 모집하여, 밤낮없이 이들을 독려한 결과 기한 내에 축성에 성공함
 - 이회는 일반 백성들을 데리고 “인명이 다치는 것보다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일을 해야 옳을 것이다”라는 신념으로 일을 느리게 진행하였기 때문에 기간에 맞추지 못하였음
- 기한 내에 완수하지 못한 이회는 이서에게 지형적인 차이로 인한 일처리의 더듬을 설명하였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고, 참수형에 처하기 직전, 자신이 죽는다면 한 마리의 매가 되어 억울함을 증명하겠다고 말함
- 참수 이후, 매가 나타나 이회의 시체의 주위를 돌다가 뜰 앞에 있는 바위에 앉았다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이회의 억울한 죽음을 믿어, 수어장대* 옆에 ‘청량당’이라는 사당을 짓고, 매가 앉은 바위를 ‘매바위’라 부르게 됨
 - ※ 장대 : 성곽 주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 군사 지휘소를 의미함

[그림 17] 수어장대 뒤편 왼쪽 담장에 있는 '매 바위'



라. 병자호란과 남한산성

■ 병자호란 당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수성전에 들어감

- 인조의 친명배금 기조와 조선군의 방어력 약화가 병자호란의 중요한 배경
 - 인조 집권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친명배금 기조로 들어가며 후금과의 외교 문서 교환을 끊는 등 관계가 악화되었음
 - 또한 인조 집권 초기인 1624년, 후금 방어의 핵심 전력인 북방군을 지휘하던 이괄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조선군의 북방 방어력도 크게 약화됨
- 1636년, 후금이 청으로 국호를 고치고 조선에게 청의 황제국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조선이 거부하자 병자호란이 발발함
 - 청의 황제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것은 조선과 명나라와의 사대 관계를 끊고 청과 새로이 사대 관계를 맺자는 요구로 조선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음
- 청의 부대가 평안도 지역의 수비 거점을 우회하고 수도로 직진하는 전술을 구사하여 불과 열흘만에 한성에 도달하고 강화도로 가는 길을 차단하자 인조가 1637년 1월 13일 남한산성으로 대피하면서 남한산성 방어전이 시작됨

■ 물자 부족, 원군들의 패배 등으로 전세가 불리해졌으나 남한산성의 수성에는 성공하고 있었음

- 당시 남한산성의 병력은 1만 4천여명 정도였으며 비축미는 1만 4천 여석 정도로 50일 정도를 버틸 수 있는 분량이었으나 비전투 인원이 대규모로 피난온 것이 문제였음
 - 한성의 왕족, 종친, 관료 및 그들의 노비 등 대규모 비전투인원 1만 4천여명이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신함으로써 식량 부족을 야기함
 - 겨울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에게 고작 가마니를 지급하는 것이 전부였고 식량이 부족해지자 군마까지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게 됨
- 지방의 군대가 구원을 때까지 버틴다는 것이 조선의 기본적인 전략이었으나 근왕군들이 모두 패배함
 - 충청도 근왕군이 패배한 험천 전투, 경상도 근왕군이 패배한 쌍령전투, 강원도 근왕군이 패배한 검단산 전투 등 남한산성을 구원하기 위해 올라오던 지방군들이 대부분 패배함
 - 전라도 근왕군이 승리한 광고산 전투 등의 예외도 있긴 하나 청군의 포위망을 뚫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인조가 항복할 때까지 남한산성에 이른 구원군은 전혀 없었음
- 하지만 남한산성은 수 차례의 걸친 청군의 대규모 공성 시도를 모두 막아내며 성의 방어력은 입증해내었음
 - “남한산성의 안쪽은 낮고 얇으나 바깥쪽은 높고 험하여, 청나라 군사들이 처음 왔을 때 병기라고는 날도 대보지 못하였고, 병자호란 때도 성을 끝내 함락시키지 못하였다.”라고 『택리지』에 기록되어 있음

■ 물자가 떨어지고 왕족들이 피신한 강화도가 함락되자 결국 인조는 항복함

- 남한산성은 함락당하지 않고 있었으나 대군과 왕실 신료들이 대피한 강화도가 함락됨
- 추운 날씨와 부족한 식량, 강화도의 함락으로 인해 인조는 이 이상의 항전의 어려움을 깨닫고 수성 45일 만에 성 밖으로 나가 항복을 선언함
- 남한산성의 공성엔 끝내 실패한 청나라는 강화도와 남한산성에 대하여 보수하거나 강화하면 안된다는 수성금지 조약을 맺음
 - 청나라는 수성금지 조약을 맺은 이후, 이 합의 내용의 이행을 감시할 사절을 해마다 보냄
 - 조선이 남한산성을 새로 쌓았는지, 기존의 성을 개축하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참견함
 - 청나라의 사신은 조선이 왜적을 막는다는 구실로 남한산성을 보수한 사실을 목격하자, “의주나 부산과 같은 변방의 성은 괜찮다. 다만 남한산성만은 안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남한산성의 보수를 견제함

■ 인조에게 두 번의 도움을 준 사노비 서흔남 이야기

- 남한산성 내에 지수당 연못가에는 반파된 비석과 이후 다시 만들어진 온전한 비석 두 개가 나란히 세워져 있고 이에 관한 설화가 있음
 - 이 비석은 '서흔남'이라는 사노 출신의 인물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 인물과 인조가 엮인 설화가 2가지 있음
- 병자호란 때 산성이 청나라 군대에게 포위되어 안팎의 소식이 끊겼을 때, '서흔남'만이 자원하여 성 밖으로 나가 밖에 소식을 알리고 살핌
 - 청나라 군대가 성 밖에서 삼전도로 옮길 때까지 여러 차례 성 밖을 왕래하며 명령을 전하였고, 적진에 들어가 거지인 척을 하며 적정을 탐지하고 무사히 돌아옴
- 인조가 이를 가상히 여겨 소원을 묻자, '서흔남'은 곤룡포를 원한다고 말하여, 곤룡포를 하사받음
 - 죽을 때 곤룡포를 관 속에 함께 넣어달라고 유언하였고, 서흔남의 묘비는 남한산성 내에 지수당 앞으로 옮겨짐

[그림 18] 지수당 앞에 설치된 서흔남의 묘비 2개



■ 온조왕의 사당을 남한산성 내로 옮긴 장소가 송렬전이고 2022년 보물로 지정됨

- 인조가 남한산성에 머물던 때 꿈에 나타나 청나라가 침략해올 것이라 알려준 백제 시조인 온조왕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온조왕의 사당을 남한산성으로 옮김
 - 기존 충청도 직산에 있던 온조왕의 사당을 병자호란 패배 2년 뒤 남한산성으로 이전함
 - 지어진 온조왕의 사당은 온조왕사로 불렸고, 인조는 예조판서 김상헌을 온조왕사로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함

- 온조왕사는 정조 재위 시절에 ‘승렬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다른 역대 시조묘에게 올리는 격식을 따라 제사를 거행하며 현재까지 그 위치를 지킴
 - 현존하는 조선시대 시조묘 중에서 유일하게 남한산성 승렬전은 17세기에 지은 건물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음
- 남한산성 승렬전은 창건 사실이 역사문헌을 통해 증빙되고, 현재까지 위치를 지키며 제향이 계속되고 있어 역사적, 문화사적 가치가 높고, 간결하고 절제된 건축 형식과 구조로 인하여 2022년에 보물로 지정되었음

[그림 19] 천안 온조왕 사당



마. 병자호란 이후 남한산성의 역사

■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반청의식의 구심점으로 남한산성의 수축을 진행함

- 숙종 재위 기간에 병자호란의 경험을 토대로 남한산성의 외성을 축성하여 남한산성의 방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
 - 병자호란 당시 청군이 한봉성과 봉암성에 홍이포를 설치하고 본성을 내려다보며 공격을 하였기 때문에 조선 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함
 - 본성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청량봉의 높이가 약 497m인데 비해 한봉성이 414m이고 봉암성이 515m로 본성의 내부가 쉽게 노출됨
 - 숙종대에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봉암외성, 한봉외성 등 외성을 축조하기 시작함
 - 한봉외성은 1693년 처음 성을 쌓기 시작하였으나, 1705년(숙종 31년)에 청나라의 사신이 와서 헐어버렸고 1739년(영조 15)에 다시 축조에 진행하여 외성을 완성함
 - 1719년(숙조 45년)에는 웅성과 신남성이라는 외성을 축조하였음

- 정조의 재위 기간에는 본성과 4대문을 수축하고 각 문의 이름을 동문은 좌익문(左翼門), 북문은 전승문(全勝門), 서문은 우익문(右翼門), 남문은 지화문(至和門)으로 지음

[그림 20] 남한산성 내 4개의 성문



■ 남한산성의 각 성문은 각각의 이름과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동문은 좌익문(左翼門)이라고 불리며 충청, 영남 지방과 이어지고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시내에서 가장 멀지만 많은 양의 짐을 말로 운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
- 남문은 지화문(至和門)이라고 불리며 송파와 시흥, 과천 등과 연결되어 있어 서쪽으로부터 물자수송을 주로 진행함
- 북문은 전승문(戰勝門)이라고 불리며 한강을 통하여 쌀과 군사물자를 주로 수송하며 이름과 같이 군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이동통로였음
 - 병자호란 당시 법화골 전투에서 기습 공격에 실패하며 패배한 것을 교훈 삼아 정조3년(1779년) 다시는 패하지 말자는 의미로 북문을 전승문이라고 붙임
- 서문은 우익문(右翼門)이라고 불리며 송파와 거리가 짧은 반면에 경사가 급하여 진입이 어렵다는 특징을 지님
 - 1637년 인조는 청나라에게 항복을 할 때 성 밖으로 나가기 위해 이용한 문이기도 함

■ 을미의병 당시 남한산성에서도 의병 전투가 발발함

- 광주 지역은 주민들의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불만의 소지를 안고 있었고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가혹한 수탈정책으로 인하여 의병의 봉기 기운이 무르익음
 - 당시 경기도 광주는 전근대적인 농촌사회의 모습을 띠고 있었으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수탈로 주민들의 삶이 피해를 겪음
- 단발령 공포 이후 봉기한 남한산성 의병은 을미의병을 상징하는 부대로 이 의병의 모티브는 이천 의병임
 - 1895년 12월 말 서울에 있던 김하락, 조성학, 구연영, 김태원, 신용희 등의 우국지사들이 단발령에 격분하여, 이천으로 내려가 결의하면서부터 시작함
 - 이후 이의진은 음력 1895년 12월 3일 광주와 이천 사이의 고개인 백현에서 일본군 100여명을 상대로 전투에 승리하기도 함
 - 얼마 뒤 서울에서 급파된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이천 의병은 와해당하였고, 김하락, 박준영을 중심으로 흩어진 2,000여명의 의병을 모아 남한산성 의병을 편성함
- 남한산성 의병은 남한산성 점령 이후 인원을 분할하여 성문과 중앙부를 지켰고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유리한 전세를 가짐
 - 1896년 3월 5일 경 첫 전투를 벌여 대포 1문을 노획하는 등 대승을 거두었음
 - 일제는 고종을 위협하여 의병을 토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고종은 끝내 승인하지 않음
 - 이후 두 세 차례의 전투에도 패배한 일본은 강화도에 주둔하던 정예관군 300여 명을 남한산성으로 투입하였지만, 지리적인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의병에게 이길 수 없었음
- 유리한 전세를 바탕으로 서울 진공작전을 수립하였으나 1896년 3월 22일 남한산성의 함락으로 작전은 수포로 돌아가고 을미의병 활동은 차차 와해됨
 - 일본군을 구축하고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고종을 환궁시킬 수 있는 기회였지만 2가지의 함락 원인 가설로 인하여 남한산성은 함락하게 됨
 - 첫 번째 가설은 의병진의 핵심 인물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관군측의 계략에 넘어간 남한산성 의병의 대장 박준영이 보초를 서던 의병들에게 술을 나눠 주고 보초들이 관군에게 성문을 열어 주었다는 것임
 - 두 번째 가설은 동문을 지키던 좌익장 김귀성이 관군에 투항하였고 박준영이 의병 해산을 반대하다가 살해당한 이후 와해당했다는 것임
 - 함락 당한 이후 양평에 모인 의병은 약 2천명으로, 이들은 경상도 지역으로 이동하여 항쟁을 계속하였고, 이후 남한산성 의병의 주요인물이었던 김하락이 살해당하자 흩어지게 됨

■ 6·25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복원 사업

- 남한산성 행궁은 상궐, 하궐, 좌전, 인화관 등 전체 320여 칸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으나 6·25 전쟁에서 건물 대부분과 시설물, 북문인 전승문 등이 파괴됨
- 1979년 전승문의 대대적인 복원작업에 성공하였지만, 점차 성문에 균열이 생기고 성문 위 누각인 문루가 기울어짐
- 2021년부터 재복원 사업을 진행하여 전면 해체 및 보수작업을 벌였고, 1970년대에 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2023년에 남한산성 전승문의 복원 작업을 완료함
 - 보수를 위해 성벽의 돌을 일일이 번호를 붙여 해체했다가 다시 쌓았고 그 길이는 26m, 높이는 약 6m임
 - 40여 년 전 복원할 때에는 돌을 쌓는 과정에서 시멘트를 사용하였는데 이번에는 고증을 거쳐 석회로 자리를 메움

■ 남한산성의 복원과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된 과정

-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6가지 기준이 있고 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며, 문화유산의 진정성이 필요함
 - 문화유산의 진정성은 문화유산의 재질이나 기법 등에서 유산의 본질 및 기원을 증명할 수 있는 유산이고, 그 실체와 근원지가 정확한 기록자료를 가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임
- 남한산성은 심사결과 2번과 4번 기준을 만족하여, 한국의 열 한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음
 - 남한산성이 만족한 세계문화유산의 등재기준 중 첫 번째는 (ii)번의 “특정 기간과 문화권 내 건축이나 기술 발전, 도시 계획 등에서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의 증거”임
 - 남한산성은 시대별 층위가 겹집된 초대형 포곡식* 산성이라는 점에서 이 기준을 만족함
 - * 포곡식 산성 : 산기슭에서부터 시작하여 능선을 따라 정상 가까이까지 축조한 것으로 계곡을 포함되도록 하여 성내의 가용면적을 넓히고 주민들이 평상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산성을 뜻함
 - 두 번째 기준은 (iv)번의 “인류 역사의 중요 단계를 보여주는 건물, 건축,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탁월한 사례”임
 - 남한산성이 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축성술의 시대별 발달 단계와 동아시아 도시계획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군사유산임에 이 등재기준을 만족함

2절. 조선 왕실 백자 관련 자료 조사

1. 자원핵심조사 - 조선시대 왕실용 백자의 유형

가. 순백자

■ 순백자의 특징

- 순백자는 그릇표면에 장식 무늬가 없고 오로지 백색으로만 이루어짐
 - 순수한 흰색만으로 이루어진 백자에는 ‘예(禮)’를 중시하고 검소와 절제를 중시하는 사대부들의 사상이 담겨있음
 - 흰색이라는 조건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우윳빛 감도는 유백색, 눈같이 하얀 설백색, 회색이 감도는 백색, 푸른색을 띤 청백색 등 다양하게 만들어짐
- 조선 초에 백자를 왕실의 자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유약과 태토 모두 양질의 고급품이며 표면의 광택이 은은하고 투명한 회색빛이 감돌음
- 초기에 만들어진 순백자는 왕족의 출산에 따라서 태를 묻어두는 태항아리, 주병, 제기(祭器) 등으로 제작됨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백자는 투명한 흰색에서 회백색으로 유색이 변화함
 - 15세기의 푸르스름한 투명색에서 17세기부터 회백색으로 변화하고 이후 18, 19세기에 제작된 순백자는 청색이 짙어지고 회색을 띠듯 유색이 변화함

■ 국보로 지정된 순백자들

- 백자 달항아리
 - 조선 18세기 전반에 제작된 순백자로 둥글고 유백색의 형태가 둥근 달을 연상하게 만들어 일명 ‘달항아리’라고도 불림
 - 조선왕조 유일의 관요 사옹원 분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광주에 산포해 있던 340여 개소의 가마 가운데 금사리 가마에서 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됨
 - 크기가 커 물레로 한 번에 올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하 부분을 따로 만든 후, 두 부분을 접합하여 완성한 백자임
 - 몸통 중심부에 이어붙인 부분에 일그러짐이 거의 없고 성형 흔적 없이 표면이 일정하게 정리되어 있어 순백의 미와 균형감이 뛰어남

[그림 21] 국보로 지정된 백자 달 향아리



○ 백자 병형 주전자

- 조선시대에 주전자의 형태로 만들어진 순백자로 총 높이 32.9cm, 병 높이 29cm, 입 부분 지름 6cm, 밑 지름, 11.4cm의 크기임
- 사용된 바탕흙과 유약 제작기법으로 보아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 왕실 자기를 생산하던 경기도 광주 지방의 가마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임
- 입 부분은 약간 벌어져 세워져 있고, 짧은 목 밑으로 서서히 벌어지는 풍만한 형태로 위엄있고 단아한 느낌을 줌
- 전체적으로 옅은 푸른색의 유약이 고르게 입혀져 있고, 손잡이와 입 부분은, 병의 몸체와 다른 바탕흙과 유약을 사용하여 제작함

[그림 22] 국보 백자 병형 주전자



나. 청화백자

■ 청화백자의 특징

- 청화백자는 1428년(세종 10년) 명나라에서 처음 전해져 왔고,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 중국에서 수입한 코발트 안료로 백토 위에 무늬를 그려, 순백의 유약을 씌워 제작함
 - 코발트 안료는 조선에서 ‘회청’ 또는 ‘회회청’이라 불렀고, 이것으로 만든 자기를 중국에서는 ‘유리청(釉裏靑)’ 또는 ‘청화백자(靑花白瓷)’, 조선에서는 ‘화사기(畵沙器)’ 또는 ‘청화사기’라고 부름
 - 회회청은 주로 도자기를 굽는 분원과 왕의 옷을 만드는 상의원에서 사용되었음. 특히 상의원에서 회회청 소비가 매우 많았음
- 청화백자를 제작하는 데에 들어가는 코발트 안료는 구하기 어려운 고귀함의 표상으로 왕실 납품 자기에만 쓰일 수 있게 제한한 기록이 있음
 - 코발트 안료는 이슬람권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서 오며 인건비, 위험수당, 약탈 대비 보험금 등의 이유로 가격이 높아 고귀하고 고상함의 표상임
 - 희귀하고 값비싼 이유로 코발트 안료는 왕실에서만 쓰이는 청화백자에만 사용하도록 하였고, 영조 재위 기간에 관리급이 청화백자를 사용하면 곤장 80대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었음
- 청화백자는 왕실에 납품용으로 경기도 광주를 중심으로 제작되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화백자의 모습이 점차 발달함
 - 15, 16세기경의 청화백자는 청화 안료를 아껴 쓴 흔적이 보이고 사용에도 서툰 점이 엿보이며 그릇의 형태는 항아리의 경우 어깨선이 부드러워지고, 병(甁)은 수직으로 올라가는 긴 목으로 아래 부분과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짐
 - 17, 18세기의 청화백자는 넓은 어깨가 아래로 내려와 전체의 모양이 구에 가까워지고, 목이 길어지고 표면에 모를 낸 각병의 형식도 등장함
- 청화백자의 종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에서 궁중 의례에서 사용하는 화준*까지 다양하게 생산되었고, 백자의 무늬도 시대와 그릇의 종류에 따라 각양각색의 그림으로 그려짐
 - ※ 화준 : 왕실 연회장에 놓는 꽃 항아리로 주로 비단과 모시, 밀랍 등 천연소재를 이용해 만든 대형 크기의 비단 꽃을 꽂음
 - 표면에 공간을 많이 남기던 초기에 비하여 굵은 필선(筆線)으로 표면 전체를 충분히 활용하여 무늬를 냄
 - 추초(秋草) 무늬와 같은 15, 16세기의 가냘픈 무늬에서 용(龍), 소상팔경(蕭湘八景), 십장생(十長生) 등을 청화백자에 그림

■ 대표적인 청화백자 유물

○ 백자 청화 구름 용무늬 항아리

- 궁중 의례에서 화준으로 사용되기 위해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청화백자임
- 백자에 조각된 용은 구름 속을 나는 형상으로 다섯 개의 발톱을 지니고, 여의두문*은 영지* 모양으로 왕의 권위와 신성함을 상징함
 - ※ 여의두문 : 법회나 설법 때, 법사가 손에 드는 물건인 여의(如意)의 머리 부분을 떼어 도안화한 무늬
 - ※ 영지 : 십장생의 하나로 불로장생을 의미하는 풀꽃
- 용이 조각된 항아리는 왕의 자리인 어좌 주변에 두어 왕실의 위엄을 높이고, 궁중잔치의 준엄한 격식을 드러냈지만, 그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 주변에는 무늬가 없는 항아리를 놓아 위계를 나타냄

[그림 23] 백자 청화 구름 용무늬 항아리



○ 백자 청화 산수무늬 사각병

- 백자 사각병은 장방형 몸체에 어깨의 모서리를 비스듬히 깎아 도자기 입구를 붙인 형태로 조선 후기에 새롭게 등장한 독특한 형식임
 - 물레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닌 정제된 백토로 얇은 판을 밀고, 반건조가 되면 판을 사각으로 자르고, 흙을 서로 이어 붙이는 방식인 판성형 기법을 사용함
 - 흙과 흙을 이어 붙이는 과정을 소홀히 하거나, 굽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관여하지 않으면 균열과 터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작 공정이 까다로워 백자 사각병은 매우 희귀함
- 어깨부분에는 뇌문*이 장식되었고, 그 위에는 네 면을 둘러 복을 상징하는 박쥐 문양이 당초 무늬와 더불어 그려져 있음
 - ※ 뇌문 : 네모나게 소용돌이치는 무늬
- 도자기 입구의 목 부분에는 ‘만수무강(萬壽無疆)’을 한 자씩 정성스레 써넣어 조선 후기 백자

특징인 길상*과 장식화 경향을 잘 보여줌

※ 길상 :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라는 뜻으로, 길상을 상징하는 사물, 동물들은 국가유산 곳곳에 새겨짐

- 굽바닥에 조각된 ‘함풍성조’라는 중국 연호가 19세기 경기도 광주에 있는 분원가마에서 제작되었고, 왕실에서 사용된 고급품이라는 것을 나타냄

[그림 24] 백자 청화 산수무늬 사각병



다. 청화백자

■ 철화백자의 특징

- 17세기 조선은 여러 차례 전쟁과 동아시아의 정치 상황에 의하여 청화백자가 주로 제작되는 환경에서 철화백자의 제작이 일반화되는 상황으로 변화함
 - 전쟁으로 관요를 운영하는 데에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어 분원에서 백자를 굽는 횟수와 장인의 수를 줄임
 - 전쟁의 상처와 명과 후금의 긴장상태로 인하여 청화 안료를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자, 청화 안료를 대신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철화 안료를 사용함
- 백토로 그릇을 만들어 낮은 온도에서 초벌하고, 그릇 표면에 철화 안료로 무늬를 그린 뒤, 백색 유약을 입혀 구운 백자로 백자에 다갈색, 흑갈색 계통의 무늬가 나타남
 - 백자에 철화 안료를 사용한 것은 고려시대부터였으며, 조선 전기에는 주로 묘지에서 쓰이다가 17세기 이후부터 일반화되고 세련미를 띠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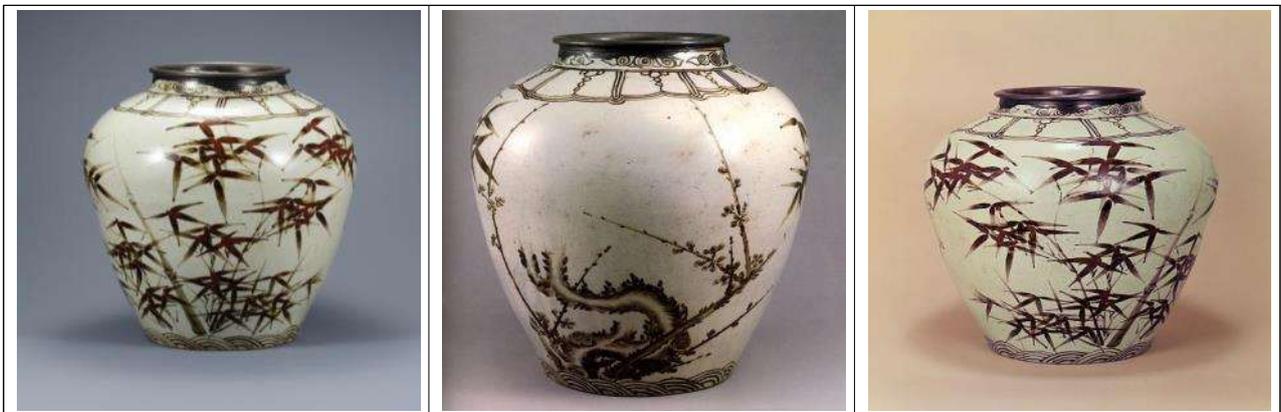
- 조선시대에 생산된 철화백자는 광주 관요에서 생산된 철화백자와 지방 민요에서 생산된 철화백자로 나뉘고, 각각의 특징이 있음
 - 광주 관요에서 생산된 철화백자는 장인이 정성들여 수비한 일정한 백토와 양질의 백자 위에 사실적인 포도덩굴, 대나무, 운룡, 매화 등이 세련된 그림으로 나타남
 - 지방 민요에서 생산된 철화백자는 백토와 유약이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니고, 추상화 된 초(草), 죽(竹), 용(龍) 무늬 등이 자유분방하게 묘사되어 있음

■ 대표적인 철화백자 유물

○ 백자 철화매죽문 향아리

- 철화백자의 초기의 것으로 입 부분 가장자리가 밖으로 말렸고, 목 부위의 경사면부터 풍만하게 벌어졌다 서서히 좁아지는 둥근 몸체의 향아리임
- 색이 짙게 들어간 검은 안료로 목과 어깨 부분에 구름무늬와 꽃잎무늬를 돌렸고 아랫부분에는 연속된 파도무늬를 장식함
 - 어깨 부분과 아랫부분에 표현된 무늬들은 17세기 전반기까지 계속 이어짐
- 몸체의 한 면에는 대나무를, 다른 한 면에는 매화의 등걸*을 그려넣었고, 유약은 푸르름이 감도는 유백색으로, 전면에 고르게 발려져 은은한 광택이 나타남
 - ※ 등걸 : 줄기를 잘라 낸 나무의 밑동
 - 매화와 대나무 그림은 왕실의 납품하기 위해 솜씨가 뛰어난 궁중화가가 그린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향아리 형태는 16세기 분청사기에서 보이며, 중국 명대의 향아리와 비슷함
 - 매화, 대나무 모양과 유백색의 유약으로 보아 16세기 후반 경기도 광주의 관음리 가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됨

[그림 25] 백화 철화매죽문 향아리



○ 백자 철화 포도 원숭이 무늬 항아리

- 어깨부터 등글게 부풀어 올랐다가 허리부터 좁아져 바닥에서 약간 벌어졌고 입 부분은 곧고 낮은, 전형적인 17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항아리들의 특징을 담고 있음
- 철화 안료를 사용해 입 둘레에 연속적인 무늬가 있고 어깨에서 허리 부분에 걸쳐 포도와 넝쿨, 그리고 원숭이가 그려져 있으며 그림들이 각각 상징성을 담고 있음
 - 포도는 한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어 풍요를 상징하고, 어디서나 잘 자라고 겨울철에도 쉽게 얼지 않아 강인한 생명력을 뜻함
 - 넝쿨을 의미하는 만대(蔓帶)는 오래도록 계속되는 세대를 의미하는 만대(萬代)와 같게 여겨져 자손이 끊이지 않고 번성하는 모습을 의미함
 - 원숭이의 한자어인 '猴(후)'와 제후의 '侯(후)'와 발음이 같아 관직에 등용되거나 승급하는 것을 상징함
- 철화 안료가 짙게 색칠되어 발색이 강해져 그림과 도자기의 섬세한 묘사가 약간씩 번지거나 뭉그러졌지만, 오히려 철화 안료의 깊고 진중한 색과 온화한 유백색 바탕, 그림의 능란한 구도가 모두 어울려 세련됨을 드러냄

[그림 26] 백자 철화 포도 원숭이 무늬 항아리



라. 조선과 주변국 백자와의 비교

■ 조선의 백자는 간결하고 실용적이며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나, 명청의 백자는 화려하고 부의 상징으로 쓰임

- 명나라와 청나라에서 가장 유명했던 백자는 청화백자이고, 정교하고 화려한 그림들이 특징임
- 사용성과 미학을 중시하여 담백하고 여백을 남기는 디자인인 조선시대의 백자와 달리 화려하고 정교한 그림을 새겨 귀족과 왕족의 부의 상징으로 쓰이고 고급스러움을 강조함

[그림 27] 조선과 명나라의 청화백자



■ 일본의 백자는 조선과 명나라의 도공이 일본으로 이주하면서 발전하였으며, 두 나라 백자의 특징들이 드러나 있음

- 초기에는 조선의 청화백자 제작방법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검소함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외관상의 차이점이 나타남
 - 화려한 것을 배척하고 검소한 것을 추구하는 일본의 불교 선사상을 토대로 만들어 조선 백자와 비슷하게 간결하고 소박한 외관이 특징임
 - 백자를 만드는 환경과 도공의 차이로 조선의 백자는 매끄럽고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이나, 일본의 백자는 표면이 거칠고 다듬은 자국이 남아있음
- 중국 도공들에 의해 생산된 청화백자인 스와토우 백자의 방식도 영향을 받아 도자기가 두껍고 무거우며, 바닥면에 굵은 모래들이 보임

[그림 28] 일본의 초기 백자 형태인 이마리 백자의 특징



2. 전승가치조사

가. 조선 초기 백자의 부상

■ 고려청자의 몰락과 백자의 등장

- 원나라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 청자의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하고 권문세족들이 이 과정에 개입하면서 고려청자의 품질은 급속도로 악화됨
 - 조공용으로 기존보다 대량의 청자가 생산되고, 권문세족들이 원나라 납품용 청자를 만드는 도공들을 수탈하면서 청자의 품질이 기존보다 매우 떨어짐
- 전쟁과 혼란 속에서 많은 도공들이 자기소에서 이탈한 것도 청자 품질 하락의 주요한 원인
 - 특히 1350년대 이후 왜구의 침입으로 해안가에 위치한 많은 도자기 가마터가 파괴되거나 약탈당하며 도자기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됨
- 조선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도자기 양식과 생산 방식이 도입됨
 - 조선은 백자를 국가의 상징적인 도자기로 삼고 이를 통해 조선의 문화와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함
 - 섬세한 무늬를 가진 고려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결한 디자인 형태를 띄고 있는 백자는 대량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조선에 들어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

■ 조선시대 초기, 금·은 어기(御器)* 금지령과 사대부들의 사상으로 인해 백자의 수요가 증가함

※ 어기(御器) : 왕실에서 왕이 사용한 그릇을 의미함

- 조선시대 건국 초부터 금과 은의 그릇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하여 국가의례용 백자 및 일상용으로 사용할 다른 그릇의 필요성이 대두됨
 - 명나라에 지속적으로 금·은을 조공하여 금·은 보유량이 바닥나자, 조선은 금·은 상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기존의 금·은 어기도 백자로 변경하여 명나라에 금·은을 조공하는 것을 면제받았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이 있음
 - 세종 11년(1429) 8월 18일 조선은 공·사적으로 금·은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명나라 황태자에게 금·은 공납을 면제하고, 토산물로 대신하게 해줄 것을 간청하는 내용의 표문을 보냄
 - 세종 11년(1429) 12월 13일 명나라에서 온 칙서에는 조선이 금·은을 생산하지 않으니 앞으로는 토산물로 공물을 바치라는 내용과 명나라에서 보낸 내관이나 내사가 오더라도 물품을 주지 말고 예로만 대하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었음
 - 면제 후에는 어기를 금·은기에서 백자기로 바꾸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음. 어기로 금·은기를 계속 쓰면 황제를 기만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음

- 명 사신과의 접대 과정에서 백자를 사용하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백자를 명에 바치는 경우가 많아짐
 - 세종 13년(1431) 7월 22일 금은 세공 면제 이후, 사신을 대접하는 연회에서 은반(銀盤)을 계속 사용할지 주홍반(朱紅盤)으로 대체할지를 두고 의정부와 제조가 논의함
 - 금은 기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명 황제의 명령을 어길 우려가 있어, 주홍반으로 대체하는 의견이 나왔고 사신이 보는 앞에서 금은띠나 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되었음
- 사대부들의 사상인 검소함을 드러낼 그릇을 찾다가 세종 연간에 왕실에서 사용할 그릇을 백자로 변경하며 백자의 수요가 증가함

나. 조선 왕실의 상징이 된 백자

■ 처음으로 백자를 위계질서에 맞게 통제되도록 지시한 세조

- 세조는 단종의 왕위를 빼앗아 즉위한 수양대군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왕위의 명분을 세우는 일에 평생의 업으로 행동하였고 이는 백자 사용의 통제에도 나타남
 - 세조부터 왕실은 백자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백토의 사용와 산지의 보급을 통제하였고 분원을 운영시켜 왕실과 관청의 독점적인 백자 보급 환경을 조성함
-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통제할 뿐만 아니라, 왕실 내에서도 유교 이념에 맞춰 백자를 철저히 신분에 따른 위계질서 속에 편입시킴
 - 왕과 세자의 그릇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 쓴 사용원의 별좌를 엄하게 별한 기록이 있음
 - 세조는 “아비와 아들이 그릇을 같이하고 임금과 신하가 그릇을 같이 하며 주인과 종이 그릇을 같이 하는 것이니, 명분이 어디에 있으며 야인(野人)들과 무엇이 다르겠냐”라고 말한 『세조실록(世祖實錄)』의 기록이 있음
 - 이후, 왕이 사용하는 그릇과 왕세자가 사용하는 그릇은 철저히 구분되었고, 제작과정에서부터 그릇의 재질, 문양, 품질에도 모두 차등을 두게 만들
 - 백자 중에서도 최상의 백자는 오직 왕만이 쓸 수 있었고, 왕세자는 백토로 빚은 도자기에 청색의 유약을 입혀 만든 청자를 써야 했음
- 이러한 위계질서는 왕이 바뀌어도 철저히 지켜짐
 - 1795년 수원 화성에서 열린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에 대한 기록에 따르면 혜경궁 홍씨와 정조, 대군, 내빈 등 격에 따라 음식의 종류는 물론 백자의 종류와 개수에도 차등을 두었음

■ 영조는 왕세자 시절부터 왕실에 납품되는 자기에 관심이 많았음

- 영조는 왕세자 기간에 사옹원 분원의 최고 책임자인 도제조(都提調)로 지냄
 - 분원백자 진상품이 왕실 이외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상다병(進上茶瓶)’ 네 글자를 허리 부분에 석간주로 쓰라고 조치하는 등 분원에서 나오는 백자에 높은 관심을 가짐
- 왕이 되어서도 영조는 왕실에 납품하는 백자용준에만 청화 안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왕실에 납품되는 백자의 전통성을 중시함
 - “당시에는 그림 그린 그릇에 석간주를 썼으나 지금은 청화 안료를 사용하여 그리는데 이는 사치풍조”라고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기록됨
 - 왕실 체통과 대의명분을 위해 청화 백자용준의 정당성을 재천명하고 민간에 유통되는 백자에는 청화 안료를 금지하며 왕실 백자의 전통성을 지키려 함

■ 정조는 분원의 폐단으로 인해 착취 당하는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분원을 활성화시키며 도자기 품질을 주요하게 관리함

- 정조는 사치 풍조를 배격하고 검소한 생활을 몸소 실천함
 - 의복이나 음식뿐 아니라 그릇 또한 화려한 꽃이 그려진 자기나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갑기 대신 보통 그릇을 사용하면서 관료와 백성에게 모범을 보이고 근검절약을 권장했음
- 분원의 폐단을 바로 잡으며 분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 양구 지역의 백성들이 도자기 제작 때문에 노동을 착취 당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엄벌에 처하겠다고 지시함
 - 정조는 도자기 제작을 왕실의 중요한 문화적, 경제적 요소로 인식했으며, 특히 광주 분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분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음
 - 분원 장인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않도록 관리하면서 도자기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폐단을 줄이고, 도자기의 품질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함

■ 흥선대원군은 서양 도자기들의 유입에도 전통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했음

- 쇄국 정책을 펼치며 조선의 고유한 공예 기술을 중시했고 분원자기 같은 공예품의 전통을 고수하려 함
 - 대원군 시기에 만들어진 자기의 굽바닥에는 ‘雲岷운현’이라는 명문을 새긴 것들이 적지 않게 남아있어 분원이 민영화 된 후에도 운현궁에서는 그릇을 분원에 주문했음을 알 수 있음
- 왕권 강화를 위해 경복궁을 중건하려 했던 흥선대원군은 많은 도자기 수요로 광주 분원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면서 도자기의 질적 저하를 불러일으킴

■ 고종은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도자기 양식의 도입을 적극 추구함

- 고종 시기는 전통적 도자기 산업이 쇠퇴하면서 다양한 서구 도자기 양식이 유입됨
 - 고종은 왕실에서 사용하는 그릇에 분원자기만을 고집하지 않고 일본·중국·러시아 등 서양에서 수입한 그릇을 다양하게 사용함
 -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한제국기 황실의 그릇 가운데는 영국·프랑스·일본 등지에서 수입한 도자기가 많은데 이 그릇들 대부분에는 대한제국 황실의 상징인 오얏꽃 문양이 새겨져 있어, 주문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고종은 외교적 선물로서 외국의 사절이나 외교 인사들에게 조선의 도자기를 선물하는 일이 많았음
 - 조선 백자는 그 우아한 흰색이 조선의 청렴함과 순수함을 상징했고, 이는 조선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됨
 - 도자기를 선물하는 것은 단순히 물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왕실의 위엄과 조선의 국가적 정체성과 문화적 자주성을 상징하는 물품으로서의 역할을 함

라. 왕실 도자기용 관요의 광주 설치와 운영

■ 광주는 왕실용 관요가 설립되기에 최적의 장소였음

- 경기도 광주는 늘어나는 왕실의 백자 수요를 맞추고, 지리적으로 한양과도 가까우며 백자의 품질로도 완벽한 지역임
 - 당시 수도인 한양과 가까운 곳에 왕실에 납품할 가마를 설치하여 운반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없애려 하였고, 경기도 광주는 도자기 품질이 높았던 자기소 중에서 한양과 가장 가까움
 - 광주는 물이 풍부하고 백자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하기 용이하여 조선 초기부터 백자 생산에 관하여 유명했음
 - 이미 양질의 백자를 많이 생산하기로 전국적으로 유명하여 자기소*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상품(上品)자기소'로 구분됨
 - ※ 자기소 : 자기를 생산해 국가에 공납하는 장소
- 중앙관청인 사옹원의 관리·감독을 받아 자기를 제작하여 왕실에 납품한 장소인 분원의 지역으로 발전함
 - 사옹원은 임금에게 올리는 음식을 포함하여 궁궐 내 음식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왕의 식사와 궁중의 음식 공급에 관한 일을 맡은 조선시대 행정기관 소속 관청임
 - 사옹원은 왕과 왕실 가족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식사 문제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였고, 사옹원의 최고 수장인 도제조의 책임하에 분원에서 왕실에 납품하는 그릇을 만들게 됨

- 세조 13년(1467)에서 예종 즉위년(1468) 사이에 광주에 분원이 처음 설치되어 조선 말까지 전국 유일의 왕실용 관요*로서 기능함

※ 관요 : 왕실용 도자기만을 굽는 가마

- 세조는 현재 각기 다른 양식, 색상, 문양을 가지고 있는 도자기들이 왕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보아, 그릇을 사용함에도 철저하게 계급을 나누어야 하고 왕의 그릇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인 분원을 광주에 설치함
- 분원에서 만들어진 백자는 단순한 왕실로 납품되는 그릇이 아닌 제왕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어기(御器)'라는 특별한 위상을 가짐
- 제왕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분원은 백자에 최고의 품격과 멋을 담아내고, 백자의 모양, 크기, 색상, 무늬에도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관리하여 왕실에 백자를 납품함

■ 광주 사옹원 분원은 주기적으로 광주 내에서 이동하다 조선 후기에 양근에 정착함

- 분원들은 백자를 제작할 재료들의 조달이 어려워지면 광주 내에서 장소를 찾아 이동함

- 당시의 광주 자기소들 중 하나인 동쪽 벌내에 위치한 자기소가 최초의 분원으로 알려졌고 현재의 지도 상으로는 초월면 변천리에 있던 것으로 추정됨
- 백자를 구울 때 땀나무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같은 자리에서 머무를 수 없었고 무성한 수목을 따라 이동해야 했음
- 주로 경기도 광주목의 초월면·실촌면·퇴촌면 등지를 이동하였고 땀나무와 도자기의 운반의 편의성을 위해 남한강의 지류인 변천(樊川)·곤지암천(昆池岩川)·우천(牛川) 강가 주변으로 분원의 자리를 잡음

- 분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문제들로 인해 18세기 중반에 '양근 분원'을 마지막으로 분원의 이동을 중단함

- 분원이 꾸준히 이동함에 따라 광주 일대는 '사방의 산이 민둥산이 되어 실로 땀나무를 취할 길이 없다'는 말이 나올 만큼 허허벌판이 됨
- 또한 분원을 옮기고 다시 설치하는 작업은 번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사기장들도 정착해 살던 곳을 떠나기 싫어하였기 때문에 정부측에서 분원을 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함
- 18세기 중반에 양근의 우천강변*으로 분원을 정착시켰고, 양근 분원은 도자기의 제조와 운영, 시설 확충, 안정적인 일상 생활공간 확보 측면에서 이점을 얻게 됨

※ 현재 행정구역상으로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에 속함

[그림 29] 국가유산으로 등록된 가마터, 광주 조선백자 요지



■ 백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의 관리는 분원에서 책임지고 관리함

○ 도자기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원료인 백토는 전국 각지에서 조달됨

- 도자기를 만드는 흙은 입자가 곱고 끈끈한 점성이 있는 점토를 사용하였고, 이를 도토(陶土)라고 부름
 - 도토의 종류에는 백토(白土)·수토(水土) 등이 있으며, 조선의 백자는 우유빛의 백토를 사용함
- 광주 내 무갑산, 앵자봉에서 분원에서 파견된 낭청과 장인들의 감독하에 우수한 흙을 운반하여 이를 곱고 백토로 만듦
- 이외에도 물량을 맞추기 위해 전국 팔도에서 우수한 흙을 받아 시험해보았고 그 중에서 양구흙, 진주흙, 곤양흙, 선천흙, 경주흙이 많이 이용됨
 - 이렇게 만들어져 분원에 조달되는 백토의 일년간 소비량은 대략 500~700석으로 추정됨
- 이중에서 선천흙, 경주흙은 우수한 품질을 가져, 왕실 납품 자기 중에서도 특수한 제기(祭器)와 같은 자기 제작에 사용됨

○ 백토의 채굴을 위해 인근에 있는 농민들을 임금없이 강제로 동원하여 백토의 운반까지 시켰기 때문에 작업에 동원되는 농민들의 불만이 매우 컸음

- 백토를 채굴하는 국역에 동원된 백성들은 토맥을 찾아 산봉우리를 뚫으며 백토를 캐내는 작업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낭떠러지 언덕이 무너져 내려 압사하는 위험까지도 무릅쓰가며 일해야 했음
- 백토 채굴에 그치지 않고 백토를 운반하며 상납하는 일까지 덧붙여 시켰기 때문에 작업에 동원되는 농민들의 불만이 매우 컸음

○ 자기소에서 자기를 구울 때의 연료인 땀나무의 조달도 관에서 책임짐

- 백자를 구울 때 필요한 땀나무는 광주 6개면과 양근 1개면에 있는 산지를 시장으로 지정해 그곳에서 땀나무를 조달하고, 수목이 전부 채취되면 무성해질 때까지 산지를 비우고 10년 후 다시 돌아와 그곳에 분원을 설치함

- 시장은 관아에서 필요한 땔나무를 채취하기 위해 지정한 산림 지역을 일컫음
- 광주 6개면은 현재의 도척, 초월, 퇴촌, 완촌, 경안, 오포면이고 양근 1개면은 남종면을 가리킴
- 분원에서 시장에 장졸을 파견하여 나무를 베게하고, 벌목한 나무를 강변으로 운반하여 땃목을 사용해 수상으로 운송함
- 비어있는 산지가 화전이 되는 문제가 생기자 18세기 중반에 남종면에 분원을 고정하고 화전민들에게 세를 거두어 시목을 조달하는 방식을 채택함
 - 한강으로 흘러 내려오는 수상목을 대상으로 1/10세를 받아 땔나무의 구입비로 사용하는 방안을 첫 번째 방안으로 사용함
 - 시장 안에서 화전을 일궈 사는 백성들로부터 화전세를 받아 땔나무 구입에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두 번째 방안으로 사용함
 - 사옹원의 시장을 분원 주변에 한정하지 않고 강원도 등지로 확대하여 그곳에서 땔나무를 공급 받는 방안을 세 번째 방안으로 사용함
- 땔나무 또한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나무를 베고 운반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이 많았음
 - 분원 운영 초기에는 분원 주변을 사옹원의 시장으로 지정하여 그곳의 나무를 베어쓰도록 했음. 시장이 분원에서 먼 거리에 있으면 벌목한 나무를 강변까지 운반한 다음, 땃목을 만들어 수상으로 운송했음
 - 그러나 분원에서 사용하는 화목은 수량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나무를 베어내고 운반하는 일에 많은 인력과 물력을 쏟아부어야 했고 이 때문에 부역을 피해 도망가는 경우도 자주 있었음

■ 왕실 도자기의 한양으로의 운송 과정

- 분원에서 생산된 자기는 한강의 수로를 따라 배를 띄워 한양의 사옹원에 일괄로 납부됨
- 사옹원에 모아진 많은 양의 백자들은 정기 진상을 통하여 1년에 두 번씩 봄, 가을에 진상되었고 이러한 활동은 ‘연례원진상자기’라고 불림
 - 봄에는 2월에 구워 6월에, 가을에는 10월에 방대한 수량의 자기를 진상함
 - 1694년 숙종재위시절에 “봄·가을에 구운 자기의 수는 1,300죽에 이른다“하였고, 『육전조례』에 기록된 고종재위시절 모습을 보면 1,372죽을 구워 진상하였다고 나타남
 - ‘죽’이 10벌을 묶어 세는 단위이므로 왕실로 납품되는 백자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왕실을 비롯한 중앙 관서로의 상납이기에 한양의 사옹원에서는 완성된 자기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진행하고 이후에 왕실로 자기를 납품함

■ 광주에서 생산된 왕실용 도자기임을 인증하는 ‘명문’

- 분원 이전 대부분의 백자에 표시된 명문은 관사명이나 지명으로 표시하였지만, 광주에서 제작된 백자는 왕실 내용 자기임을 나타내는 ‘內用’이 표시되거나 관아에서 관리한다는 ‘各司’이 각인됨
 - 광주 가마터에서는 ‘內用’, ‘內’, ‘司’ 등 명문이 인각된 백자가 다수 출토됨. 이 명문이 새겨진 백자들은 퇴촌면(退村面)과 우산리(于山里)에서 주로 제작되었음
 - 광주 가마터에서는 매우 다양한 명문이 새겨진 도판이 출토되었는데 유독 우산리의 일부 가마터에서만 확인됨. 해당 명문들은 주로 궁궐의 소비처를 지칭했음

[그림 30] 우산리 가마터 출토 명문 일람표

도판					
명문	王	殿	二	五	仁
출토지	우산리 4호				우산리 17호

- 후에 궐내의 음식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기관인 사옹원이 생기면서 왕실의 그릇은 다양한 소비처별로 관리되었고 그 때문에 명문의 종류도 늘어남
- 관요 성립 이후 명문 종류와 의미
 - 관요 성립 이후 백자 생산이 경기도 광주로 일원화되면서 지명은 더 이상 표시할 이유가 없게 되었음. 백자의 생산부터 출납까지 사옹원*에서 주관하게 되면서 표시되는 명문의 체계와 방식도 단순명료해짐
 - ※ 사옹원 : 왕실에서 사용하는 도자기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관
 - 사옹원의 관리가 백자 생산을 관리하기 위해 광주로 파견된 이후 제작된 백자에는 관요만의 명문을 표시하여 출납의 효율성을 증대시킴
 - 사옹원에서 활용된 대표적인 명문은 일반 소용을 위한 天(천), 地(지), 玄(현), 黃(황)이라는 천자문 자호와 대내용 백자를 포괄하는 의미의 大(대), 中(중), 世(세), 處(처)가 있음
 - 天(천), 地(지), 玄(현), 黃(황)은 천자문의 자호를 이용한 순서배열법으로 조선시대에는 공사분급·참고명·무기의 종류를 구분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
 - 관요 백자의 굽 안바닥에 표기된 ‘天·地·玄·黃’銘 등은 백자의 제작·수납·출납을 관리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음
 - 天(천), 地(지), 玄(현), 黃(황)이 새겨진 백자는 관요에서 제작된 백자 중 최상품에 속함

- 천자문 자호가 새겨진 백자는 유태의 질이 여타 백자에 비해 양호하고 기형도 단정하여 왕실로 납입 되었던 백자의 질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 역삼각형굽에 가는 모래를 받치고 갑번(匣燻)*으로 제작된 양질의 백자로 기면이 매끄럽고 유색은 대부분 백색이나 설백색임

※ 합번 :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 관요에서 갑에 넣어 구운 고급 사기그릇으로 왕실에 바치던 도자기

○ 1560년대 관요에서는 天(천), 地(지), 玄(현), 黃(황) 명문이 사라지고 左(좌)·右(우) 명문으로 백자가 제작되기 시작함

- 左(좌)·右(우)명은 백자 제작 분반인 좌반과 우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추측하고 있음
- 조선은 관요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제작과 관련된 명문으로 백자의 제작 분반을 의미하는 좌·우 명으로 표기했음
- 1606년에는 처음으로 좌우 명문에 간지가 부가되었고 1626년에는 ‘좌우명문 + 간지명 + 숫자’가 처음으로 표기되었음
- 좌우명문 백자는 같은 시기에 생산된 백자들 중에서도 최상품에 속했으나 운영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사기장의 인원이 줄어들었고, 관요 백자의 백색도가 떨어지고 회색조가 많아지면서 백자의 품질이 하락함
- 관요의 운영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백자 제작에 대한 모든 정보를 표기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 좌우명문을 활용함

○ 명문이 소멸한 이유는 민영화 이후 관요에 대한 관리 감독이 완화된 이유가 크게 작용함

- 관요는 개인이 마음대로 물건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었었음. 그러나 1673년경부터 수요자와 사기장 사이에 주문 제작 체제가 성립하면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사기장은 사적으로 제작한 백자를 판매해 생계를 유지함
- 이런 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기장들이 많아져 사기장 마을이 형성되었고 기술을 축적하거나 백자의 품질을 높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조선 정부는 관영 수공업 체제에서 민간 수공업적 요소를 받아들이게 되었음
- 품질 좋은 백자가 공급되면서 백자 제작을 좌반과 우반으로 나누어 관리하던 방식이 사라졌고 자연스럽게 좌우 명문도 소멸함

■ 하루 천 개의 백자를 빚은 신의 손, 광주 분원의 사기장 장성화

- 장성화는 조선 후기에 태어나 광주 분원에서 도자기 제작에 종사함. 그는 벼슬을 받았을 정도로 그릇 만드는 재주가 뛰어났으며 당대 최고의 기여와 솜씨를 자랑하는 장인으로 손꼽혔음

- 장성화는 공소가 폐지된 후에도 분원에 그대로 남아 그릇을 만들었고 번자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회사에 잔류하였음
- 1900년 이후에는 개별 업주 체제하에서 많은 업주가 각기 사기장을 고용하여 그릇을 만들었으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왕실 그릇을 주문받을 때는 특별히 장성화에게 부탁했음
- 그는 사기장들 사이에서도 명망이 높았음을 알수 있는 일화가 있는데 그의 동료 김비안의 손자는 장성화를 아래와 같이 설명함

이를테면 분원 가마에 장성화라는 장인이 있었는데, 백자 사발을 하루에 천 개나 빚었다는 것도 있다. 그런 재주로 나중에 민간 사기막에서 일하기도 하여 돈도 많이 벌었건만, 주색에 굶아 만년이 비참했다 하더라고 했다.

마. 조선 왕실에서 도자기의 역할

■ 조선왕실 왕실에서 사용된 '백자용준(白磁龍樽)'의 특징

- 용준은 조선시대의 궁중 의례용 향아리를 의미함
- '백자용준'은 조선시대 만든 백자 중에서 푸른색 용을 그린 백자이고, 이 백자용준은 용도에 따라 완성도와 그려진 용의 특징이 다름
 - 지금까지 알려진 용준 가운데 60cm가 넘고 두 마리의 오조(五爪)룡이 그려진 용준은 왕실에서 중요한 의례에 사용한 백자로 청화로 용이 그려졌고, 완성도가 뛰어남
 - 백자에 그려진 오조룡은 다섯 발톱을 가진 용이며, 왕과 왕비는 오조용을, 왕세자와 왕세자비는 사조용을, 왕세손과 왕세손비는 삼조용을 상징함
 - 40cm 내외의 중형 용준의 경우는 청화, 혹은 석간주를 사용해서 한 마리만 그렸으며 대형 용준에 비해 규모도 작고 전반적인 완성도도 떨어짐
- 백자용준을 생산한 것은 백자 제작을 전담했던 사옹원 분원이고, 분원부터 중앙관청과 왕실까지 가장 중요하고 신중하게 생산과 관리를 담당하였음

[그림 31] 백자 청화 쌍룡문 대준



높이 60cm라는 최대규모 백자로 푸른 오조룡 2마리가 그려진 '백자 청화 쌍룡문 대준'

■ 백자용준(白磁龍樽)의 왕실 내 사용사례

- 오례(五禮)는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이며 조선시대에 왕실에서 주도하는 국가의례 5가지를 나타냄
 - 오례(五禮)는 길례(吉禮), 흉례(凶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가례(嘉禮)를 나타내며 중국 고대 단어인 주례(周禮)에서 비롯됨
 - 길례(吉禮)는 나라의 제사, 흉례(凶禮)는 나라의 상사(喪事), 빈례(賓禮)는 외교, 군례(軍禮)는 군사 의식, 가례(嘉禮)는 혼례 등 왕실 행사,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의례를 진행함
- 백자용준은 오례(五禮) 중에서 국왕이 주체가 되어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지내는 길례(吉禮)의 의기로 사용됨
 - 길례(吉禮)에서 사용된 의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백자에 오조룡을 그려 사용하였고, 이 용준은 최상의 지위와 최고 규모의 의기를 상징함
 - 이렇게 왕실과 국가의 막중지사인 오례(五禮)에서 사용된 큰 규모의 백자용준은 『오례의』, 『국조오례의서례』에 기록되고 계승되었으며, 새로운 용준을 만들 때마다 기준이 됨
- 오례(五禮)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의식이나 왕실의 축하 의식에서 진행되는 잔치인 연향 의식에서도 백자용준이 사용되었고, 계층마다 차등을 두어 용준을 배치했다는 특징이 있음
 - 군왕의 앞에는 오조용을 그린 대형 용준을 두고, 세자는 사조용을 그린 중형 크기의 용준을 배치했으며, 공주 이하에게는 문양을 넣지 않은 백준(白樽)을 쓰도록 정해짐

- 청화 백자용준의 제작과 공급이 원활해지는 상태가 되었을 때, 중국사신과 같은 외빈을 맞이하는 빈례 의식에도 백자용준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음
 - 연산군 8년(1502년) 이후 빈례에 청화 백자용준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인조 12년(1634년)에 전쟁과 명·청 교체기에 따른 불안정한 동아시아 정세로 인해 청화 안료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화* 또는 석간주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음
 - ※ 가화 : 완성된 순백자에 그림을 붙여 장식하거나 초벌구이를 한 백자 위에 그림을 묘사하고 재벌구이를 거치지 않고 완성시키는 자기 제작 기법

마. 조선 왕실 백자의 몰락 과정

■ 조선 후기, 분원 민영화로 인해 백자의 왕실 고유 상징성이 몰락함

- 분원 민영화가 진행된 계기
 - 분원에서 왕실과 관청에 바치는 그릇은 원 진상과 별번 진상으로 나뉘지만 원 진상보다 별번 진상이 그릇의 양과 종류가 두 배 이상으로 훨씬 많았음
 - 왕실에서는 시시때때로 각종 별번진상을 요구했으나, 정작 그릇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토와 땀감 등 재료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원에 고충이 많았음
 - 분원에서 제작된 그릇은 퇴기 명목과 관리들의 수탈, 사기장의 개인적 판매와 같은 이유로 유통되어 민간에 유통되었고 후기에는 매매를 허용하기도 함
 - 민가에서도 분원자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이처럼 분원자기가 민간에 흘러들어 유통되는 추세는 결국 분원의 민간 운영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함
- 분원에서 일하는 사기장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음
 - 도자기 제작 기술을 가진 사기장들은 세습을 통해 직업을 이어가야 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었음
 - 사기장 가문은 세대에 걸쳐 도자기 제작을 담당했으며 이는 국가에 의해 통제관리 되었음. 도망을 시도할 경우 강제적으로 잡혀와 다시 그 직무에 종사해야 했음
 - 사기장은 조선시대 중인 계층에 속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천한 신분으로 취급 받았음
 - 사기장들은 기술적 중요성이나 공로에 비해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관료들의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그들의 개인적 목적을 위한 도자기 제작을 강요하는 경우도 허다했음

- 임진왜란으로 인해 사기장들이 납치되며 도자기 생산에 차질이 발생함
 - 일본의 다도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본은 조선의 도자기 기술에 눈독을 들이며 우수한 문화를 자국으로 가져가고자 했음
 - 임진왜란 동안 많은 도공이 일본으로 끌려가면서 조선 내에는 도자기 생산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고 이로 인해 진상 양이 줄어들거나 품질이 저하됨
- 왕실 납품과 시장 판매를 동시에 진행한 분원자기공소로 변화함
 - 분원자기공소는 왕실과 정부에 도자기를 납품해야 했는데 그 양이 매우 많았으나 납품 기일이 늦어지면 공인들을 가두거나 벌을 주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음
 - 분원자기공소는 시장 판매를 통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 창출의 창구가 되었으며 왕실에 납품하여 발생한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음

■ 근대화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일본의 생산 공정에 밀린 백자 생산의 몰락

- 1876년 조선은 문호를 개방하면서 근대화가 시작되었고 회사 설립 장려와 분원 폐지로 인해 분원도 민간 회사로 전환됨
 - 광무개혁이 진행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회사설립을 장려했고 갑오개혁 중에 정부가 분원자기공소를 없애면서 분원 사람들은 시장에서 도자기를 판매하며 새로운 회사 설립을 도모함
 - 공소 공인이었던 지규식과 변주헌은 여러 사람을 만나며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했고 투자자를 찾아 결국 번자회사 설립에 성공함
- 번자회사는 주로 도자기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이로써 이윤을 최대화하는 일을 했음
 - 분원자기의 시장 판매는 분원 수입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했기 때문에 번자회사가 분원자기의 판매망을 서산, 안면도 지역까지 넓히기 위해 노력함
 - 이 무렵 일본제 자기의 수입이 급증하며 서울경기 일대의 시장이 위협을 받게 되었고 해가 갈수록 일본제 도자기 판매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이와 같은 시장 환경은 번자회사의 사정을 더욱 악화시킴
 - 일본산 도자기의 수입이 증가하자 서울 경기 지역 시장에서는 일본 그릇을 취급하는 점포의 비중이 높아지며 일본산 도자기는 수도권 시장에서 분원자기를 밀어내고 주도권을 장악해갔음
 - 수입자기가 가격도 저렴하고 백자에 비해 화려한 색상과 디자인을 띠고 있어 이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남

○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자기 제조업에 진출하며 도자산업을 지배함

-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 도자기 제조업자들이 조선의 분원을 방문해 일본식 기술을 가르치겠다고 하거나 그릇 가게를 열어 일본 도자기를 판매함
- 1896년에는 '일본 가마'가 설치되었고, 1897년에는 일본인이 분원 근처에 '대통회사'라는 요업 회사를 설립하려 했음
- 1911년, 조선의 요업 공장 중 일본인이 운영하는 비중은 61%, 생산액 중 일본인 공장이 89%를 차지하는 반면, 조선인 공장은 11%에 불과할 정도로 일본인들이 요업을 장악함
- 일본 그릇의 수입 증가와 일본인의 자기업 진출로 조선의 분원 자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 도산의 위기로 내몰렸고 자본과 기술, 디자인 등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던 조선의 도자 산업은 유통 시장의 환경변화와 식민 정책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됨

3절. 토마토 관련 자료 조사

1. 기초조사

■ 식물종으로서의 토마토

- 가지과에 속한 여러해살이 식물
 - 낮은 온도에서는 죽기 때문에 하우스가 없던 예전에는 여름이 수확철이고 겨울에 죽는 한해살이 식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하우스 재배가 늘어나면서 어느 때나 맛볼 수 있는 식물로 변모함
- 원산지는 남미 안데스 산맥의 고랭지대이나 명확한 원산지가 알려져 있지는 않음
- 적당한 생육온도는 섭씨 18~27도이며, 위도 30~40도 사이의 지역에서 보통 재배됨
 - 최근에는 더 높은 온도에서도 잘 자라는 개량종이 만들어져 재배 지역이 늘어나는 중
- 덩굴식물이므로 자연상태에선 줄기가 땅바닥을 기면서 자라지만, 재배할 때는 보통 지주대를 세워서 재배함
- 파종부터 수확까지는 품종과 재배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적게는 60일, 길게는 100일 정도가 소요됨

■ 한국의 토마토 생산 개요

- 한국의 토마토 생산량은 2014년 50만톤을 정점으로 차츰 감소하여 2023년엔 총 33.2만톤
- 2023년 기준 수출은 0.75만톤, 수입은 6.2만톤으로 자급율은 85.9%에 이르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소비량은 7.5kg 정도
- 재배면적에서 일반 토마토는 57%, 방울 토마토는 43%를 차지함
 - 재배 면적은 영남(28%), 호남(25%), 충청(23%) 등의 순
- 현재 토마토 종자 자급율(국내에서 개량한 종 비중)은 54.9%에 이르고 있음

■ 식재료로서의 토마토

- 서구권 요리에서는 요리의 베이스 재료로 주로 활용됨
 - 감칠맛을 더하면 요리의 맛이 더욱 풍부해지며, 따라서 감칠맛을 내는 성분인 글루탐산이 풍부하면서도 다른 재료들의 맛을 가리지 않는 재료들이 동서양 요리 모두에서 베이스 역할을 수행해왔음
 - 이렇게 음식에 감칠맛과 전반적인 맛을 더하는 역할을 동양권에선 다시마, 마늘, 간장 등이 맡고 있다면, 서구권 요리에서는 토마토가 이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임

- 토마토는 다시마, 마늘 등과 같이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 함유량이 높고 신맛, 단맛이 동시에 나면서도 맛이 강하지 않아 다른 재료들과 잘 어울리므로 서양권 음식에서 베이스 식재료로 널리 쓰이고 있음
- 특히 스투, 수프류의 요리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고 토마토 페이스트나 같은 토마토가 재료로 사용되며, 토마토 소스도 매우 널리 활용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권에서는 토마토가 과일처럼 생식용으로 주로 소비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양권은 과즙이 많고 당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껍질이 분홍색인 도색계 품종을 많이 재배하고 서구권은 껍질이 붉은 빛이고 과즙이 적어 경도가 높은 적색계를 주로 재배하고 있음

■ 토마토는 채소인가 과일인가

- 과일은 식물학적으로 ‘씨방 또는 이와 연관된 기관이 함께 발달한 것’을 의미함
- 씨를 포함한 씨방을 과육이 감싸고 있는 토마토 역시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에 속함
-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문화적으로 과일은 통상적으로 ‘다년생의 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의미하고 채소는 나무가 아닌 식물의 잎, 줄기, 뿌리 등을 의미하는데 채소에서 난 열매는 과일인지 채소인지 헷갈리게 되며 토마토도 이런 경우에 속함
- 우리나라는 토마토를 공식적으로 채소(과채류)로 분류하고 있음
 - 식품에 대한 분류를 제시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선 과일과 채소를 구분하고, 채소류를 다시 엽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과채류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과채류는 열매를 먹는 채소들을 의미하며 토마토, 수박, 멜론, 호박, 고추 등이 속해 있음
- 미국에서는 토마토를 채소로 규정하기 위해 소송까지 벌어졌음
 - 19세기 미국에선 수입 과일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고 채소에만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자국 토마토 농가를 수입산 토마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토마토를 채소로 규정함
 - 이에 토마토 수입상인 Nix 일가가 1887년, 토마토가 채소로 분류되는 바람이 부당하게 관세를 납부해왔다고,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1893년 연방대법원은 토마토를 후식이 아닌 식사로 먹으므로 채소라고 규정함

2. 전승가치 조사

가. 토마토의 유럽 전래

■ 토마토 이름의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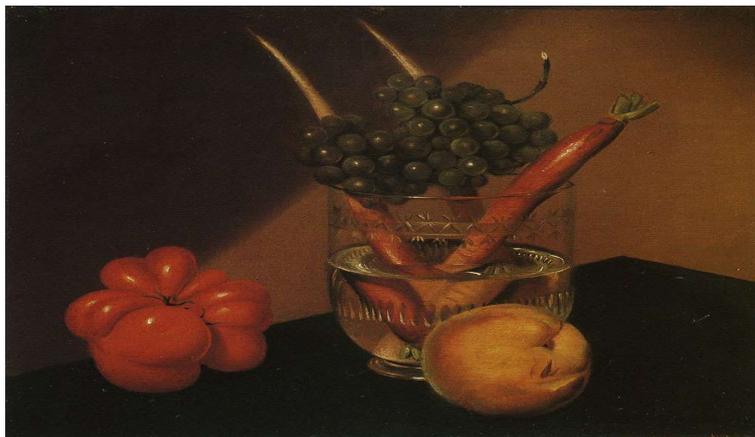
- 대부분 유럽국가에서 토마토의 이름은 아즈텍 문명에서 온 단어인 ‘Tomatl(토마틀)’에서 유래됨
 -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에서 처음 발견된 토마토는 속이 짝 찬 과일을 의미하는 ‘Tomatl(토마틀)’이라는 별명을 가짐
 - 16세기 스페인 정복자들이 토마토를 유럽으로 가져오고,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에서 ‘Tomatl(토마틀)’이 ‘Tomate’로 변형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옴
- 이탈리아에서는 토마토를 ‘Pomodoro(보모도로)’라고 부르고 2가지 유래가 퍼짐
 - 스페인에서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할 때, 토마토의 색이 노란색이었기 때문에 토마토는 ‘황금사과(pomo d'oro)’로 불리다가 변형되었다는 설이 있음
 - 유럽에서 토마토가 퍼지기 시작할 때, 무어인들이 주로 섭취하여 토마토의 별명은 ‘무어인의 사과(pomo dei mori)’였고, 훗날 ‘Pomodoro(보모도로)’로 변했다는 설도 있음
 - 이베리아반도와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이슬람계 사람인 무어인들은 토마토를 먹었으나, 유럽인들은 이것을 관상용으로 사용함

■ 토마토는 토마토가 일찍 전파된 유럽권에서 오랫동안 관상용으로만 사용됨

- 르네상스 시대 의사들의 저거너트라고 불린 페르가몬의 갈렌은 체액 이론을 활용하여 음식을 분류하였고 토마토는 ‘차고 습한’ 성질로 몸에 좋지 않다고 평가함
 - 체액 이론은 히포크라테스의 이론으로 인간의 건강과 행동을 통제하는 체내 물질을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으로 구분하여 4가지 물질이 완벽하게 있는 상태가 ‘건강함’이라고 규정함
 - 갈렌은 이 이론을 확장하여 식품을 덩거나 찬 것, 습하거나 건조한 것을 교차해 식품을 분리함
 - 토마토는 이 이론에서 ‘차고 습한’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갈렌과 대부분의 식물학자들은 토마토를 ‘위험하고 해로운’ 식품이라고 규정함
- 또한 토마토는 뿌리에 환각 유발 성분이 있고, 구약성서에도 등장하는 가지과의 독초 ‘맨드레이크’의 생김새와 유사하다는 설이 세간이 퍼짐
 - 맨드레이크의 뿌리는 남녀가 서로 부둥켜안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켰고 당시 유럽인들은 맨드레이크를 최음용으로 사용했음
 - 토마토는 이런 맨드레이크와 유사한 생김새로 인해 색욕을 자극하는 음식으로 여겨져 금기시되었음

- 당시의 토마토는 오늘날의 토마토보다 외향과 냄새가 좋지 않았기에 유럽인들은 토마토 섭취를 거부함
 - 1581년 플랑드르의 본초학자 마티아스 데 로벨은 “토마토의 강하고 역한 냄새가 먹기에 고역이며, 건강에 얼마나 해로울지도 알려준다.”고 경고함
 - 그 시대의 토마토는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이 먹는 “이상하고 혐오스러운 것들”이라는 인식이 있기에, 토마토의 맛에 대한 후기의 기록도 많지 않음
 - 오늘날까지 토마토의 품종 개량을 통해 좋은 냄새를 지니고, 더 달콤하고 덜 신 토마토를 얻었으나, 당시의 토마토는 “냄새가 강하고 노란 즙이 나오며 골이 진 모양에 독소가 있는 멸종 식물”이라고 묘사할 정도로 토마토에 거부감을 지님
 - 초상화가 라파엘 필의 그림 ‘과일과 채소가 있는 정물화’를 보면 그림 왼쪽에 빨갭게 익은 토마토를 볼 수 있으며 빨갭고 울퉁불퉁한 당시 토마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2] 과일과 채소가 있는 정물화



나. 토마토가 식품으로 정착하게 된 과정

- 1820년, 미국에선 한 육군 대령이 토마토가 유독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마토를 먹는 해프닝도 있었음
 - 유럽권에선 18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식자재로 사용된 반면, 미국에선 여전히 토마토를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음
 - 1820년 9월 28일, 미 육군 대령 로버트 존슨은 토마토가 유독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뉴저지 주 셸렘 재판소 앞에서 토마토를 먹는 행사를 벌임
 - 마을 의사였던 미터 박사는 토마토는 유독하므로 대령은 금세 열이 나서 죽을 것이라 단언했으나 사람들 앞에서 24kg의 토마토를 먹어치운 대령에게 당연히 아무 일도 없었음

- 실제로 덜 익은 토마토와 토마토의 잎과 줄기 등에는 약간의 독성 물질(토마틴)이 있으므로 완전히 근거가 없는 미신은 아닌 셈

-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초, 심한 겨울 한파로 인해 방울 토마토가 저온 생장하면서 토마틴이 많이 생성되어 방울 토마토를 먹고 구토와 복통을 겪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음

■ 나폴레옹 전쟁에서 최초의 ‘병조림’ 음식으로 이용된 토마토

- 나폴레옹 당시, 전쟁에서의 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마토 ‘병조림’이 등장함
 - 나폴레옹은 군인들에게 식품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하였고 파리의 요리사인 니콜라 아페르가 유리병에 포장하고 저장하는 방식을 선보임
 - 군 보급품으로 먼저 출시된 토마토 병조림은 1820년대 말 상업적으로도 유통되기 시작함

■ 남북전쟁으로 최초의 통조림 공정과정의 일원이 된 토마토

- 병에 담겨 유통되는 토마토는 이후에 영국인 피터 듀런드에 의해 캔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함
-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군용식량으로 토마토캔이 보급되었고 토마토 통조림 산업은 전쟁 이후에도 계속 발전하게 됨
 - 전쟁 기간 동안 토마토 통조림을 맛본 양 진영의 병사들이 통조림을 찾으며 통조림의 맛과 생산량을 발전시켰고, 전쟁 전보다 토마토 통조림의 생산량을 6배 넘게 증가시킴
- 통조림 공장에 저렴한 비용으로 기계를 도입하여 통조림 생산라인에서 효율적인 자동화를 성공하였고, 많은 토마토 농부들이 자신들만의 통조림 공장을 열어 통조림의 전성기를 열음
 - 미국의 통조림 공장 숫자는, 1870년 100개에서 1900년에 최소 1,800개로 18배가 넘게 증가함
- 통조림 산업의 발전과 함께 토마토는 고도로 가공된 간편식으로 자리잡음
 - 산업화와 자동화의 산물인 통조림은 여성들을 음식 준비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줌으로써 노동 시장에 쉽게 뛰어들도록 도왔고, 미국인의 식단과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

■ 미국에서 토마토가 식탁에 오르게 된 계기

- 토마토의 인기는 갑작스럽게 얻게 된 ‘건강식품’이라는 평판, 그리고 팬데믹이 합쳐진 결과임
- 1830년대 미국은 국민들이 ‘건강’과 그 반대에 대한 자각을 크게 한 시기임
 -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 대통령의 반지성주의자 시각에서 단서를 얻은 대중건강운동이 활발해짐
 - <건강 저널 및 생리적 개혁 옹호Health Journal and Advocate of Physiological Reform> 같은 타이틀의 주간지가 번성함

- 전세계적인 콜레라 유행은 건강한 생활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여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려는 열성가들을 등장하게 함
 - 1830년 러시아에 상륙한 콜레라는 유럽 전역과 아메리카로 확산되었으며, 당시에는 아직 예방 수단이 없었던 시점이었음
 - 그레이엄 크래커로 유명한 실베스터 그레이엄(Sylvester Graham)이나 아모스 브론슨 올코트(Amos Bronson Alcott)는 채식과 목욕, 그리고 섹스와 알코올 절제가 건강에 유익하다고 주장함
 - 존 쿡 베넷(John Cook Bennett)은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 토마토의 건강상 이점에 대해 강의했던 내용을 1834년에 책으로 출판해 전국적인 명사로 떠오름
 - 토마토가 건강을 증진하고 위장과 장 질환을 예방해준다는 베넷의 주장은 널리 전파되어 200여 개의 미국 신문을 통해 재생산됨
- 결국, 토마토는 만병을 치료해주는 강장제로 인식되어 미국인들의 식단에 오름

■ 토마토 레시피의 변화

- 신문과 요리책, 잡지 등은 토마토 피클부터 소스, 스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하여 식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옴
 - 1830년대 말, 토마토는 널리 받아들여져 ‘패셔너블한’ 음식으로 인식되었으며,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토마토를 즐김
 - 토마토를 우유나 식초, 머스터드, 설탕, 당밀과 곁들여 먹거나, 토마토 파이와 토마토 패티, 선드라이드 토마토, 토마토 통조림 등을 먹음
 - 음식 역사가 앤드류 F. 스미스(Andrew F. Smith)는 이 시기를 “엄청난 토마토 광풍(Great Tomato Mania)”이라고 표현했으며, 토마토는 빠르게 대중화됨
 - 1858년 뉴욕의 종자상 토머스 브리지먼(Thomas Bridgeman)은 거의 모든 종류의 알약과 만병통치약이 10년 전만 해도 기피 대상이었던 토마토의 추출물로 만들어졌다고 평가함

■ 토마토와 가짜 약과의 연관성

- 아치볼드 마일즈(Archibald Miles)의 ‘토마토 추출약(Compound Extract of Tomatoes)’
 - 마일즈는 토마토 추출약이 콜레라와 매독은 말할 것도 없고 소화불량, 황달, 쓸개 질환, 결석, 류머티즘, 기침, 감기, 인플루엔자, 인후염, 신경질환, 위산과다, 각종 임파선 부종, 변비, 복통, 두통 등을 낮게 해준다고 주장함
- 가이 펠프스(Guy Phelps)의 ‘토마토 알약’
 - 마일즈와 펠프스는 서로를 사기꾼으로 비난하며, 상대방이 특허법을 위반했다거나 수은이 함유

- 된 약을 생산하여 대중을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함
- 양쪽의 싸움이 이어지는 동안 ‘할록의 토마토 파나세아(Hallock’s Tomato Panacea)’ ‘닥터 페인의 토마토 컴파운드 필(Dr . Payne’s Compound Tomato Pills)’ ‘벤저민 브랜드레스의 유니버설 베지터블 필(Benjamin Brandreth’s Universal Vegetable Pills)’ 등의 경쟁자가 나타남
 - 1840년대 초반, 양쪽의 주장을 대중이 받아들이면서 토마토 알약 시장은 붕괴하기 시작함
 - 콜레라 유행이 잦아들며 알약의 소멸을 재촉했고, 1837년 경제 위기가 강타하며 건강 약품은 소수만 구입할 수 있는 사치품이 됨
 - 다만, 토마토의 유익성에 대한 주장은 대중의 의식 속에 확고히 자리 잡음

다. 토마토 활용 방법의 확대

■ 마르게리타 피자 탄생의 기원

- 1850년대, 나폴리의 도시재생계획인 리사나멘토의 공식적인 개시를 알리기 위해 나폴리로 동행한 사보이 여왕 마르게리타는 시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역의 음식을 먹고 싶다 요청함
- 평범한 농부이자 피자이올로*였던 라파엘 에스포시토가 여왕을 위하여 카포디몬테 궁에서 3가지 피자를 만들
 - ※ 피자이올로 : 이탈리아에서 피자를 만드는 기술자를 부르는 호칭
 - 세 번째 피자에는 새 이탈리아의 국기의 색깔인 빨강, 하양, 초록을 나타내는 토마토, 모짜렐라, 바질로 피자를 만들
- 이탈리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결한 도시였던 나폴리에서 여왕이 서민들의 음식인 피자를 먹었고, 그 중에서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는 세 번째 피자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여 세 번째 피자는 상징성을 얻음
- 세 번째 피자에 여왕의 이름을 붙여 ‘마르게리타 피자’가 탄생하였고, 이때 사용된 토마토의 품종은 개량되어 최상급 가공 토마토인 ‘산 마르자노 토마토’ 품종 발견에 영향을 줌

■ 케첩의 주재료가 토마토가 된 과정

- 케첩은 중국에서 케치압이라고 불리던 기원전 300년부터 존재하였던 피쉬소스로부터 유래되었음
 - 기원전 300년, 생선 내장, 육류 부산물, 간장으로 담근 ‘케치압(kê-tsiap)’이라 불리는 젓갈에서 유래됨

- 많은 소금을 사용하여 담근 액젓이기 때문에, 케치업은 항해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조미료였고, 1700년대 초반부터 동남아시아에 전파되고 이후 영국으로 전파됨
 - 초기의 케첩은 토마토를 먹기 무서워하던 시절에 나왔기 때문에, 주로 버섯, 호두, 생선 등을 주재료로 사용함
 - 초기의 케첩은 주재료를 수개월 간 소금물이나 식초에 절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토마토케첩보다 묽고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었음
- 토마토케첩은 1812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의 과학자 제임스 메이스가 ‘토마토 혹은 러브 애플 케첩’ 레시피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표함
- 초기의 토마토케첩 산업은 토마토 통조림업자들이 처치 곤란이던 토마토 부산물, 찌꺼기들을 처리하려는 부업 형식으로 발달하였음
 - 토마토 통조림업자들은 병들거나 덜 익거나 상한 토마토를 끓여 찌꺼기를 건어내고, 양념하고, 발효한 이후, 갈색이 된 케첩을 인공 색소 콜타르 염료를 사용하여 빨간색 토마토케첩을 만들
 - 19세기 말 미국에는 1,800개의 통조림 공장이 있었고 통조림 공장마다 부업으로 소규모 케첩 공장을 병행하였고 1915년 이전에 미국에서 판매되던 케첩 브랜드는 약 800개로 추정됨
- 초기 토마토케첩은 유통기한이 짧은 단점이 있었지만, 1876년, 하인즈가 토마토케첩에 양조식초, 흑설탕, 소금 및 각종 향신료를 더해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날의 토마토 케첩 형식까지 영향을 끼침

■ 토마토 파스타의 레시피가 대중화되는 과정

- 1800년대 초, 이탈리아인들이 토마토를 먹는 것이 대중화가 되어갈 때, 이탈리아에서는 토마토 파스타보다는 라드 파스타를 선호하였음
 - 19세기 전까지 이탈리아인들은 파스타에 라드(돼지기름)을 넣어 조리함
 - 19세기 중반, 이탈리아에서 소비하는 돼지의 주 품종이 흑돼지에서 대백종, 랜드레이스, 듀룩 같은 품종으로 변화하며 라드의 질이 떨어짐
 - 파르마 지역에서 이탈리아 전역으로 돼지의 품종이 변화하며 파스타를 주로 소비하던 나폴리인들의 향의와 불평이 쏟아짐
- 토마토 파스타는 프랑스인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고, 1873년, 라드의 수요가 줄어들었을 시기에, 이폴리토 카발칸티의 『나폴리 가정식 안내서』에 토마토 파스타의 레시피가 자세히 나타남
 - 1807년 프랑스인 그리모 드 라 레니에르의 저서 『미식가 연감』에서 토마토 소스로 만든 파스타라고 처음으로 언급됨
 - 『나폴리 가정식 안내서』에는 현재 토마토 파스타의 제작 레시피와 가장 유사한 레시피가 적혀 있었음

- 1891년 이탈리아 최초의 국민 요리책인 펠레그리노 아루트시의 저서 『부엌의 과학 그리고 잘 먹는 법』에도 토마토 파스타의 두 가지 레시피가 적혀 있고, 그중 하나는 전통적인 ‘파스타 알 포모도로’ 레시피임
 - 첫 번째는 토마토와 미트소스를 조합하여 만드는 레시피였고, 두 번째는 토마토와 볶은 양파, 올리브오일, 치즈 가루를 사용하는 레시피임
 - 두 가지 레시피가 요리책에 적힐 만큼, 19세기 말에 와서야 토마토 파스타는 일반적인 파스타가 되었고, 대중에게 레시피가 알려지게 됨
- 토마토와 파스타 속 토마토의 인기는 산 마르자노 토마토 통조림을 만들던 통조림 식품회사 치리오(Cirio)에 의해 20세기에도 가속화됨
 - 치리오 사는 이탈리아의 거장 일러스트레이터 ‘레오네토 카피엘로’를 섭외하여 포스터를 만드는 등 토마토 통조림에 아낌없는 광고를 투입함
 - 치리오 사는 토마토 통조림을 활용한 레시피 템플릿을 무료로 배포하고, 요리 경연대회를 열어 캔 토마토와 토마토 제품 사용을 촉진함
 - 1936년에 열린 치리오 사의 토마토 요리 경연대회에서는 약 3,000명의 경쟁자가 몰릴 정도로, 20세기에 토마토와 토마토를 활용한 요리는 이탈리아 요리의 주류로 자리 잡음

■ 현대의 토마토 외관을 탄생시킨 알렉산더 W. 리빙스턴

- 식물학과 유전학이 세간에 알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육종가들은 주어진 식물에서 난 토마토들이 모두 유전적으로 일치하는 사실을 몰랐음
 - 토마토 육종가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수천 개의 토마토 품종 씨앗을 부러 열매를 맺게 하고, 그중에서 가장 먼저 익는 토마토를 취해 씨앗을 뿌리고, 다시 그중에서 가장 빨리 익는 토마토를 취하여 씨앗을 뿌리며 품종을 개량함
 - 기존의 토마토 육종가들은 새로운 토마토와 표본으로 둔 토마토를 교배했기 때문에, 새로 얻은 토마토에서는 표본의 안 좋은 성질이 나타남
- 리빙스턴은 토마토 교잡육종*으로 우수한 과실을 얻어도, 과실에서 얻은 씨앗으로 나온 토마토가 열등한 특징을 다시 가져, 신뢰할만한 씨앗을 판매할 수 없는 문제를 파악함
 - * 교잡육종 : 열매의 다른 두 품종을 교배시켜 새로운 잡종을 만들어 내는 행위
 - 우수한 과실에서 나온 씨앗을 심어 다음 세대에서 맺어진 과실이 기존의 과실과 다른 외형과 색깔로 나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함
 - 리빙스턴은 ‘여러 세대를 지나면서 보이지 않았던 지난 과실들의 열등한 특징들이 다시 나타난다’는 문제로 이 상황을 정리하였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함

- 리빙스턴은 수천 그루의 나무중에서 표면이 매끄럽고 반반한 모양의 토마토를 발견해 표본용 토마토를 대신하여 씨앗으로 심었고, 그 결과 부모와 닮은 우수한 토마토만이 열리는 나무를 얻었고, 씨앗을 지속적으로 개량함
 - 토마토의 크기가 아직 작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익고, 실한 토마토에서 씨앗을 얻어 다시 심고 년마다 가장 좋은 씨앗을 선택하는 과정을 반복함
 - 5년이 되지 않은 시기에 과육의 품질, 크기 그리고 외관에서 월등히 개량된 토마토의 씨앗을 얻게 됨
- 마침내 1870년, 리빙스턴은 오늘날의 토마토의 외관과 가장 유사한 토마토인 ‘리빙스턴 파라곤’을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함

■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샌드위치 조합 BLT의 시초

- BLT는 Bacon, Lettuce, Tomato 3개의 단어의 앞글자를 사용하여 만든 축약어임
 - 일반적으로 샌드위치와 햄버거의 레시피로 들어가며 특히, 샌드위치의 구성요소로 널리 알려짐
- BLT 샌드위치가 처음 소개된 책은 1903년, 요리책자 ‘Housekeeping Everyday Cook Book’이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슈퍼마켓이 늘어남과 함께 인기를 얻기 시작함
 - 2차 세계대전시기에 슈퍼마켓이 생기면서 베이컨, 양상추, 토마토와 같은 재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어 입소문을 타게 됨
- BLT라는 표현은 1970년대 브루스 제이 프라이드만의 연극 “A B.L.T. for God, hold te mayo”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이후 대중적인 표현이 됨
- 현대인들은 BLT 3가지의 재료만을 사용하지 않고, 재료를 추가하며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고 있음
 - 그중에서 TBLT 샌드위치는 기존의 BLT샌드위치에 칠면조를 더해 변형한 건강 샌드위치임
 - 칠면조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 사람들의 행복한 감정에 연관을 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하는데에 도움을 줌

라. 토마토 관련 일화와 속설들

■ 토마토 관련 속담

-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는 특징으로 서구권에서 속담이 퍼짐
 - 유럽 속담에 ‘토마토가 빨갭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된다’는 말이 있음

- 빨갭게 익은 토마토에는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라이코펜(lycopene)’이라는 성분이 풍부함
- 잘 익은 토마토를 먹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을 정도로 건강해진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임

○ 북한에는 ‘사과가 되지 말고 도마도가 되라’라는 속담이 있음

- 사과는 겉만 붉은색이고 속은 하얀색을 가졌지만, 토마토는 겉과 속이 모두 붉은색을 띄고 있음
- 사과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닌 토마토처럼 겉과 속이 같은 건실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표현함

■ 토마토 던지기는 스페인 토마토 축제 ‘라 토마티나’에서 유래함

○ 스페인에서 열리는 대규모 토마토 축제인 ‘라 토마티나’의 다양한 유래들이 세간에 알려져 있음

- ‘라 토마티나’ 축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5년에 스페인 발렌시아 부근에 있는 ‘부놀’에서 처음 시작함
-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동안 서로에게 토마토를 던지는 ‘두 시간의 토마토 전쟁’은 ‘라 토마티나’를 유명하게 만든 중요한 문화임

○ ‘라 토마티나’의 유래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거인과 큰 머리’ 축제와 연관됨

- 부놀에는 서구 라틴 문화의 전통에서 파생된 ‘거인과 큰 머리’라는 민속 축제가 있었음
- ‘거인과 큰머리’의 주요행사는 종이로 만든 큰 머리 인형에 옷을 입히고 연주에 맞춰 시민들이 인형을 들고 행렬을 지어 춤을 추는 것임
- 청년들이 행렬을 따르는 아이들이나 아가씨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곤 했는데, 1945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 이들은 집에서 토마토를 들고나와 행렬의 사람들에게 던짐
- 이후 몇 년간 해마다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토마토를 던지면서 노는 것이 유행하며 이것이 ‘라 토마티나’ 축제가 되었다는 유래로 발전함

○ 한편, 분노의 표시로 토마토가 사용된 것이 ‘라 토마티나’의 유래라는 설명도 있음

- 시위와 항의의 도구로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토마토도 분노의 표시로 사용되고 있음
- 1944년 큰 흉작이 지나고 토마토 값이 폭락하자, 분노한 농부들이 시의원들에게 토마토를 던지며 분풀이를 한 것이 ‘라 토마티나’ 축제로 발전했다는 설이 있음
- 또한, 스페인에서 독재정치가 이루어졌던 ‘프랑코 시대(1936~1975)’에 시민들이 독재 치하에 저항의 의미로 토마토를 던지기 시작한 것이 발전하여 지금의 ‘라 토마티나’ 축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음

■ 토마토의 상태로 달라지는 토마토 꿈의 해몽

- 일부 문화권에서 붉은색의 싱싱한 토마토가 나오는 꿈은 길몽으로 취급함
 - 토마토는 평소에도 불과 연관되어 열정으로 주변에 생명력과 창의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음
 - 꿈에서도 싱싱한 토마토를 본다면 좋은 운세가 도래하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는 길조로 해석됨
- 반대로 썩거나 덜 익은 초록색 토마토가 나오는 꿈은 자신 혹은 주변인들에게 경고 역할을 함
 - 썩은 토마토는 반대로 불운을 상징하고, 주변인이나 자신에게 질병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줌
 - 덜 익은 녹색 토마토는 현재의 미성숙함을 의미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는 신호를 줌

마. 한국에서 토마토의 대중화 과정

■ 토마토의 한국 전파

- 한국에서 토마토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조선시대 실학자인 이수광의 「지봉유설」(1614)에 등장함
 -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토마토를 '남만시'(남만 지역의 감)로 칭하고 있음
 - 옥수수, 고추, 담배 등과 비슷하게 임진왜란 전후의 시기에 도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러나 식품으로서의 대중화는 최근의 일

■ 언론 보도를 통해 살펴본 한국에서의 토마토 대중화 과정

- 토마토는 일제강점기 시기 한국에 보급되었고, 1920년대에 건강을 목적으로 섭취가 권장되며 대중화됨
 - 조선일보 1925.8.20. 「토마토와 우유」
 - 과거 토마토는 특유의 냄새로 인해 먹지 않고 화초로만 키움
 - 토마토도 다른 과실과 다름없이 맛있으니 우유에 꿀이나 설탕을 넣고 토마토를 얇게 썰어 넣어 먹도록 장려함
 - 비타민B가 풍부한 토마토를 비타민C가 풍부한 우유와 함께 먹도록 권장되며, 우유에 꿀이나 설탕을 넣고 토마토를 얇게 썰어 넣어 먹게 됨

- 조선일보 1928.4.28. 「각기병치료법」
 - 비타민B의 부족은 각기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고, 토마토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섭취해야 하는 과실로 소개되었음
- 1920년 후반부터 토마토를 사용한 요리들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고, 특히 한국식 요리가 아닌 서양요리를 알려주는 칼럼에서 주로 나타남
 - 조선일보 1928.10.9. 「가정에서 알아줄 간단한 서양요리」
 - 송이버섯을 튀겨먹는 요리법을 알려주는 신문 칼럼에 토마토 케첩(“도마도켓톱부소-쓰”)이 소스로서 처음 언급된 기사이며, 케첩은 서양 식품점에서 판매한다고 홍보함
 - 동아일보 1932.10.16. 「서양요리」
 - 토마토를 사용한 스페니쉬 라이스(“스판니쉬라이쓰”) 조리법을 서양요리 조리법 중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음
- 토마토가 대중화되면서 제철이 아닌 계절에도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소개되기도 함
 - 조선일보 1935.9.1. 「몸보하는토마토는 요새흔한때사서 겨울에도잡숫게합시오」
 - 늦여름에 나온 기사로 ”벌써 여름 동안 많이 먹어서 질렸을 분도 있을 것 같으나“란 말로 기사를 시작하고 있어 1930년대 중반쯤엔 토마토가 상당히 대중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 기사는 토마토가 현재 제철이지만 토마토가 안 나오는 철에도 먹을 수 있도록 토마토 퓨레, 토마토 펄프 등 토마토를 장기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음
 - 하우스 재배 덕에 사계절 토마토를 먹을 수 있는 현재와 달리 이 당시엔 아직 온실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법이 조선에는 소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 해방 이후 토마토의 온실재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사계절 내내 토마토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 경향신문 1958.1.16. 「토마토 한 개50환 풋오이도 주렁주렁」
 - 서울 중앙원예기술원에서 영하 11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온실재배를 통해 토마토와 오이를 키우기 시작했음을 이슈성 뉴스로 소개하고 있어 토마토 온실재배가 1950년대 후반에야 실험적으로 시도되기 시작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이렇게 재배된 토마토는 수량이 부족하여 외국인을 고가인 50환(10센트)에 판매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동아일보 1959.2.27. 「봄을 최촉하는 미각」
 - 59년 2월, 토마토가 겨울철인 2월에 남대문 시장에서 팔리기 시작한 것을 놀라운 일로 소개하는 기사(“산에는 아직 눈도 채 찾아지지 않았는데 「토마토」라니..“)

- 다만 토마토 한 관이 600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이어서 서민층의 식탁에 오르지 못하고 고급요리상, 미식가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 소개하고 있음
- 조선일보 1972.3.26. 「토마토 나왔으나 비싸」
 - 토마토의 온실 재배가 점점 확산되고는 있었으나 70년대까지도 제철이 아닌 때의 토마토는 서민들이 먹기에 부담스러운 가격임을 알 수 있음
- 한겨레 1992.6.20. 「광양제철소 온실선진농법」
 - 광양제철소의 국내 최대규모 대형 유리온실에서 재배된 토마토의 양은 285톤이었음을 소개하는 기사로 90년대 초반 쯤엔 유리 온실 재배가 화제가 될 정도로 토마토의 하우스 재배는 보편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기사임

바. 퇴촌면과 토마토

■ 퇴촌면에선 90년대 초반 일촌일품(一村一品) 운동과 함께 본격적으로 토마토 재배가 육성됨

- 당시는 농업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우르과이 라운드가 진행되며 농업의 고부가치화가 전국적으로 중요한 농정 과제이던 시점임
- 광주군도 각 마을의 지역여건에 맞춘 관광농업단지 및 고소득 특산작물 육성을 위한 「1촌1품 운동」을 전개함
 - 다수 농가의 생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며, 꿀, 참외, 상추, 가지, 토마토, 고들빼기, 고추 등 6종의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도록 함
 - 퇴촌면과 남종면에 위치한 농가에 토마토의 시설재배를 지원하여 우량 및 무공해 농산물 육성을 촉진함
- 「1촌1품 운동」은 농촌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며, 지역 주민 및 수도권 시민, 관람객 등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제공함
- 이때 퇴촌면은 남종면과 함께 토마토를 대표작물로 지정받고 토마토의 시설재배와 무공해 재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음

■ 퇴촌면 토마토의 특징

○ 친환경 재배에 적합한 환경 조건

- 면 전체가 한강 인근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이 제한되므로 친환경 농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무농약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90%를 넘음
- 벌이 서식하기 좋은 청정지역인 퇴촌면은 호박벌로 자연 수정을 하여 착과율이 높고 과육의 경도와 당도에 좋은 영향을 줌

○ 친환경 농법으로 관리된 토양환경으로 퇴촌면 토마토는 당도가 높음

- 목초탄을 토마토의 밑거름으로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자재만으로 토마토의 생육이 왕성하도록 만들음
- 광주시에선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배양한 유용 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하였고, 이를 물과 섞어 사용하여 작물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단단하고 저장성이 높은 토마토를 생산함

○ 유통 대신 직판으로 가격과 맛에 일반 토마토보다 우위를 가짐

- 토마토는 껍질이 약해서 유통·운송 과정에서 파손 가능성이 높으며, 판매기한을 늘리기 위해 아직 덜 익은 상태로 수확하고, 유통 과정에서 익히는(후숙) 경우가 많음
- 퇴촌면은 80% 이상의 농가에서 각자의 직판장을 운영하여 완숙된 토마토를 당일 수확하고 판매해서 맛이 좋고, 유통 과정이 없어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음

제4장 축제별 스토리 도출 및 활용방안

1절. 축제별 스토리 도출 및 활용 방안 구성 절차

[그림 33] 축제별 스토리 도출 및 활용 방안 구성 절차



■ (1단계) 축제별 스토리 자원 추출

- 3장에서 수행하였던 각 축제의 핵심소재에 대한 자료조사 결과를 4개의 스토리 속성별로 나누어 스토리 자원을 추출함
- 4개의 스토리 속성은 지역 연고성, 전승 문화성, 관광 기반성, 인물 기반성을 의미함
 - 지역 연고성 : 각 축제 소재들이 광주 지역과 얼마나 강한 연관성을 갖는지를 나타내는 속성
 - 전승 문화성 : 각 축제 소재들이 역사적 가치, 전통성을 얼마나 가지는지를 나타내는 속성
 - 관광 기반성 : 각 축제 소재들이 관광 기반 자원으로서의 잠재성을 얼마나 가지는지를 나타내는 속성
 - 인물 기반성 : 각 축제 소재들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을 나타내는 속성

■ (2단계) 스토리 자원 속성별로 스토리로서의 매력도 평가

- 추출된 스토리 자원들을 각 속성별로 축제 기반 스토리로서 얼마나 매력도를 가지는지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평가
- 각 속성에 대한 매력도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지역 연고성 : 지역 연고성이 높을수록 축제 기반 스토리로서의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 전승 문화성 : 우리 역사, 광주 지역의 역사와 연관성이 높을수록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 관광 기반성 : 관광 기반 자원으로서의 잠재성이 높을수록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 인물 기반성 : 축제 소재들과 관련된 인물들이 스토리에 활용하기에 좋은 캐릭터성을 가질수록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 (3단계) 매력도 평가를 바탕으로 스토리 도출 방안 결정

- 매력도 평가를 종합한 결과가 높으면 조사 내용 그 자체로 축제의 기반 스토리로 활용하기에 좋은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 내용 중에서 축제 스토리를 ‘발굴’함
- 매력도 평가를 종합한 결과가 낮으면 조사 내용 그 자체만으로 축제 기반 스토리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새롭게 축제 스토리를 ‘개발’함
 - 스토리를 개발하는 경우라도 기존 자료 조사 내용 중 매력도가 높게 평가된 속성의 자료들은 최대한 스토리 개발시에 반영함

■ (4단계) 축제별로 핵심 스토리 발굴 또는 개발

- 결정된 스토리 도출 방안에 따라 각 축제별로 축제 프로그램들의 기반 스토리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전체 핵심 스토리를 발굴 또는 개발함

■ (5단계) 축제에서의 스토리 활용 방안 개발

- 각 축제의 핵심 스토리를 기반으로 축제별 프로그램 개발

2절. 남한산성 문화제 스토리 발굴 및 활용 방안

1. 속성별 스토리 자원 추출

■ 스토리 자원 속성별로 남한산성의 주요 스토리 자원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7] 남한산성의 주요 스토리 자원 목록

스토리 속성	내용
지역 연고성	광주, 성남, 하남시에 걸쳐 있으나 산성의 가장 핵심적인 유적인 행궁, 읍치 등이 모두 현재 광주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어 광주시와의 지역 연고성이 매우 강함
전승 문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번도 함락되지 않은 성 : 당나라, 몽골, 청나라, 일본군 등 우리 역사의 중요한 외적들에 대항하며 단 한번도 함락되지 않은 성 • 전시 수도 : 전국 행궁 중 가장 큰 규모로 유일하게 종묘와 사직까지 갖춘 조선의 전시 수도 • 요새 도시 : 읍치를 갖추고 대규모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된 요새 도시 • 축성 기술 :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우리 역사의 축성 기술을 한번에 볼 수 있는 곳
관광 기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진왜란과 명청 교체기 이후 조선 후기의 역사를 가장 잘 압축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우수 문화재를 보유한 광주시의 대표 관광자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정도로 우수한 보존·복원의 수준 • 날씨가 좋은 날엔 강북 주요지역까지 보이는 수려한 경관자원 보유
인물 기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조반정으로 집권하여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병자호란 당시 청군에 저항하다 항복한 인조 • 대대적으로 포위 공격을 하였으나 남한산성을 끝내 함락시키지 못한 청 태종 홍타이지 • 인조의 꿈에 나타나 청의 침략을 경고한 백제 시조 온조왕 • 당나라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거점으로 주장성을 쌓은 문무대왕 • 고려 시대 일장산성에 침략한 살리타이(몽골)와 그에 대항한 고려 군민 • 백성을 걱정하여 무리한 축성을 하지 않다 일정을 지키지 못해 사형당하고 매로 부활한 이회 설화 • 병자호란 당시 포위당한 성 안팎을 오고가며 소식을 전한 노비 서흔남 설화

가. 지역 연고성

■ 남한산성은 현대의 행정구역 상으론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하남시의 3개 지역에 걸쳐 있으나 역사성 면에서 볼 때 광주시와의 지역 연고성이 가장 강함

- 현재 광주시는 조선시대에 광주부를 계승하고 있는데, 인조대에 남한산성 축성 완료 이후 광주부를 통치하는 관아가 남한산성 내에 위치하고 있었음
- 또한 조선 후기 전시 수도로서 축성된 남한산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유적은 행궁 등 왕실 관련 유적들인데 이 유적들은 모두 현재의 광주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음

나. 전승 문화성

■ 남한산성의 시초인 주장성 축성은 당나라의 야욕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음

- 남한산성은 나당 전쟁 시기에 최초로 ‘주장성’이라는 이름으로 축성되었는데, 당시 한반도 남부를 노리던 당나라의 야욕에 맞서 한강 이남의 방어거점으로 건축되었음
- 주장성은 현재 남한산성의 토대가 되었음
 - 현재 남한산성의 외성과 옹성을 제외한 본성의 둘레가 7,545m인데, 이는 삼국사기에 남은 주장성의 둘레 기록인 4,360보와 거의 유사함
 - ‘신라 문무왕 12년에 성을 쌓고 이를 주장성이라고 하였으며, 일장성이라고도 불렀다. 『동국여지승람』에 광주의 일장산성은 신라 문무왕이 쌓은 것이니, 주장성은 곧 남한산성이다’라는 기록도 있으며, 실제 발굴을 통한 현대의 고고학적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즉, 남한산성의 시초가 되는 주장성 축성부터가 한반도의 중남부 지역의 운명을 걸고 벌여졌던 나당전쟁에서 당나라라는 외적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음

■ 이후 남한산성은 외적에 맞서 한번도 함락되지 않았음

- 몽골의 2차 침략 당시, 백성과 관군이 함께 대항하여 일장산성을 지켜내었음
 - 일장산성은 고려 시대에 남한산성을 지칭하던 명칭으로 고려 시대에도 이전의 성벽터를 따라 잡아 산성의 증축과 개축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몽골의 2차 침략 당시 몽골군 본대는 한반도 남쪽으로 진출하려는 과정에서 교통의 요지인 남한산성을 공격함
 - 목사 이세화가 이끄는 관군과 주민들은 1232년 8월 말부터 12월까지 살리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에 저항하였고 몽골군은 끝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였음
- 친명 정책을 표방한 인조가 집권하면서 남한산성의 대대적인 축성이 이루어지고 남한산성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게 됨
 - 평지에 지어진 읍성 위주의 방어 전략이 임진왜란 당시 실패하면서 외침으로 인해 한양이 위협해지면 저항할 수 있는 산성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임난 이후 제기됨
 - 인조는 친명 정책을 표방하면서 후금(이후의 청나라)을 적대시하였고, 청의 침략에 대비하여 왕실이 저항할 수 있는 거점으로 1624년부터 남한산성을 축성함
 - 남한산성의 축성은 1626년 완료되었고, 이를 계기로 남한산성은 전시 비상 수도, 중앙군의 주둔지, 지역 행정 중심지, 산성 도시의 위상을 동시에 지닌 중요 거점으로 거듭났음

[표 18] 조선 후기 남한산성의 복합적 위상

구분	내용
전시 비상 수도	비상시 왕이 거주할 수 있는 행궁(行宮)은 물론 전국 행궁 중 유일하게 종묘와 사직까지 갖춘 전시의 비상 수도
중앙군 주둔지	조선 후기 5개 중앙부대 중 하나였던 수어청(守禦廳)의 주둔지
지역 행정 중심지	광주부의 읍치(邑治)가 위치한 지역 행정 중심지
산성 도시	산성 내에 4천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산성 도시

- 병자호란 당시에도 청군은 남한산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였음
 -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청군은 압록강을 넘은지 열흘만에 한성에 도달하는 등 전격전을 펼치며 진격해왔고, 이에 인조는 충분치 못한 병력과 군량만을 가지고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면서 남한산성 전투가 시작됨
 - 청군은 성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성 주변 고지를 점령하고 대포를 설치하여 포격하는 등 맹공격을 감행하였으나 남한산성은 45일 동안 함락당하지 않았음
 - 지방에서 오던 증원군이 모두 패배하고 군량이 바닥나 병사들이 굶주렸으며 추위까지 병사들을 괴롭혔으며 강화도로 피신한 왕족들까지 사로잡히자 인조는 행복하긴 했으나 결국 남한산성은 군사적으로 함락되지 않았음
- 이후, 조선 후기 을미의병 봉기 당시에도 의병들이 남한산성을 거점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대포를 노획하는 등의 승리를 거두었음
- 즉, 남한산성은 성의 존재 그 자체로 통일 신라 시기엔 주장성, 고려시대엔 일장산성, 조선시대엔 남한산성 등 시기별로 이름이 바뀌는 동안 몽골, 청나라, 일본군 등 우리 역사의 주요 적들에 맞서 함락되지 않은 호국과 민족 정신의 상징이자 증거라 할 수 있음

다. 관광 기반성

■ 광주시의 대표 역사관광자원

- 남한산성은 훌륭한 보존 및 복원 상태를 자랑하고 있으며, 그 우수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명실상부한 광주시의 대표 역사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음

■ 경기 남부권에서 우리 역사를 가장 잘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

- 나당 전쟁, 고려 시대 몽골과의 전쟁, 인조반정과 병자호란, 조선 말의 의병 등 우리 역사의 각 시기별로 최대의 외적에 맞서 싸웠던 역사의 현장임

- 행궁, 읍치, 마을 등이 위치하여 전쟁사 뿐만 아니라 조선 왕실과 조선 시대의 사회상을 한 번에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음
- 또한 남한산성은 고원 위의 평탄한 지대가 펼쳐진 지형으로 날씨가 좋은 날엔 강북의 아차산까지 관측할 수 있을 정도이며, 밤에는 서울 강남 일대의 야경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려한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라. 인물 기반성

■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며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남한산성에 저항하다 항복한 인조

- 친명배금 정책은 인조 집권의 주요한 명분이자 인조 시기의 주된 정책 기조였음
 - 인조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자신이 집권하는 계기인 인조반정의 주된 명분 중 하나로 광해군이 명나라의 편을 들지 않고 후금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을 꼽았음
 - 인조는 단순히 집권의 명분으로만 친명배금을 표방한 것이 아니었으며 인조 집권 이후 친명배금 정책은 조선 대외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조가 되었음
- 인조는 청의 침입에 대비하여 남한산성을 수축하였고, 그곳에서 저항하다 항복함
 - 인조는 군사적으로도 청과의 전쟁에 대비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도성 남쪽의 방어 거점이자 전시 수도로 남한산성을 축성하였음
 -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는 왕실과 군대, 신하들을 이끌고 남한산성에 입성하였고 혹독한 추위와 보급 부족, 주전파와 주화파 신하들의 갈등 속에서도 청군에 대한 저항을 이어나갔음

■ 청을 건국하고 병자호란으로 조선을 굴복시킨 홍타이지

- 후금을 건국한 누르하치의 8번째 아들로 형제들을 제치고 후금을 계승받음
- 이후 정복군주로서 청나라를 건국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선에도 2차례 침략함
 - 1626년 후금의 칸으로 즉위한 직후인 1627년 조선을 침략하였고(정묘호란), 이후 명나라의 심양, 요양, 몽골 등을 정복함
 - 1636년엔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황제를 칭하였으며, 조선에게도 자신을 상국으로 모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병자호란을 일으켜 조선을 굴복시킴
- 이후 명나라에 대한 정복을 계속 이어나갔으나 중원 진출을 목전에 두고 급사하였음
 - 명나라의 마지막 명장이었던 원숭환을 모략을 통해 처리하였고, 1641년엔 송산 전투에서 명군 14만을 대패시키는 대승을 거두며 산해관 코 앞까지 진출함

- 그러나 청나라 군대가 본격적으로 만리장성을 넘어 중원에 진출하기 직전이던 1643년, 전투에서 얻은 부상이 악화되는 바람에 중원 정복의 꿈을 이루진 못한 채 급사하였음

■ 그 외에 남한산성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은 다음과 같음

○ 온조왕

- 백제의 시조로, 조선시대에도 그에 대한 제사가 이뤄지고 있었으나 인조의 꿈에 나타나 청의 침략을 경고하고 실제로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병자호란 이후 그의 사당이 남한산성 안으로 옮겨짐(현재의 온조왕사)

○ 문무대왕

- 신라의 30대 왕으로, 백제와 고구려에 대한 정복을 완수하여 삼국통일을 이루었고 이후 당나라와의 전쟁에도 승리하여 통일신라의 첫 군주가 된 인물
- 나당전쟁 과정에서 주요 방어선은 임진강이었으나, 임진강이 뚫릴 경우 한강을 제2방어선으로 삼았고 그 남쪽 수비 거점으로 현재 남한산성의 기반이 되는 주장성을 쌓음

○ 살리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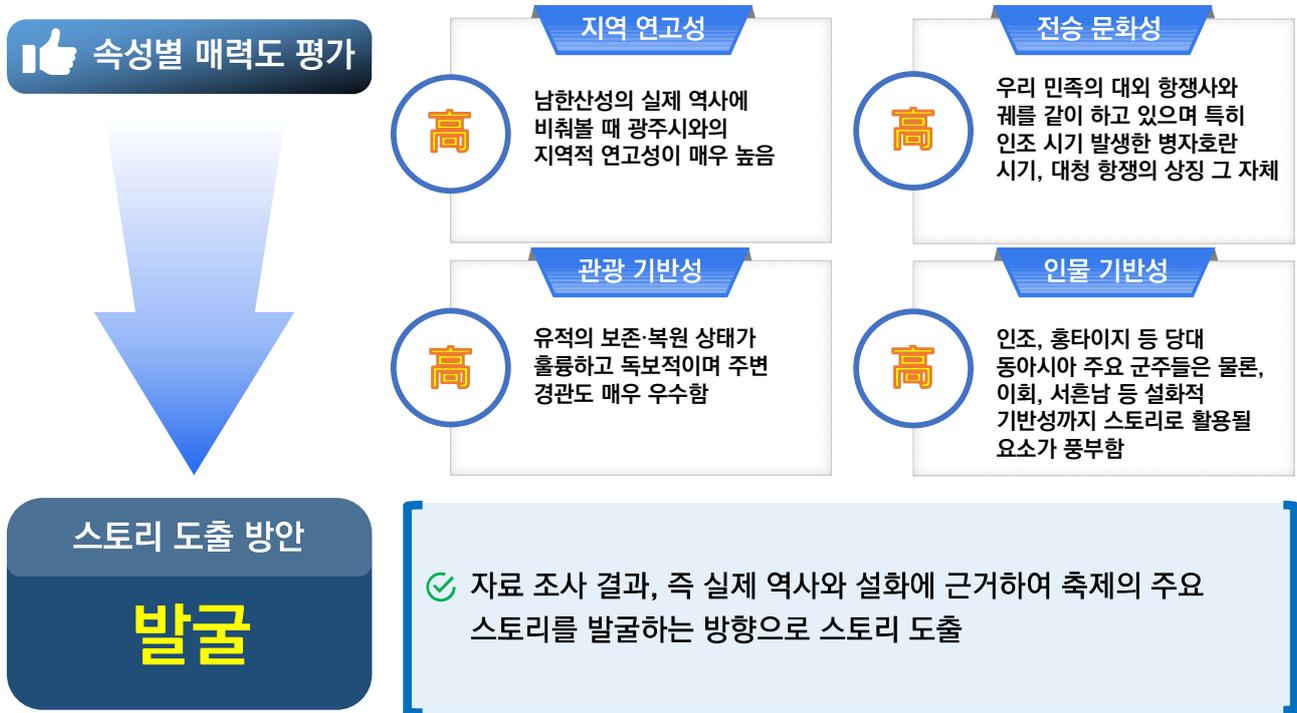
- 몽골 제국의 장수로 몽골군의 1, 2차 고려 침략을 지휘하였음
- 2차 침략에선 현재 남한산성의 고려 시대 명칭인 일장산성을 공격하였다가 실패하였으며, 이후 일장산성을 우회하여 처인성(오늘날의 용인)을 침략하였다가 김윤후의 화살에 맞아 사망

○ 이회, 서흔남

- 둘다 설화성의 인물로 정사(正使) 상의 인물은 아님
- 이회는 남한산성 축성 당시 지형이 험한 남쪽의 축성을 맡은 인물로 성벽 건설에 동원된 백성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축성을 느리게 하다가 기간을 완수하지 못한 죄로 사형당했음
 - 이회는 사형 직전, 자신이 죽는다면 한 마리의 매가 되어 억울함을 증명하겠다고 말하였고 참수 이후 매가 나타나 이회의 시체의 주위를 돌다가 돌 앞에 있는 바위에 앉았다가 사라짐
 - 사람들은 이회의 억울한 죽음을 믿어, 수어장대 옆에 '청량당'이라는 사당을 짓고, 매가 앉은 바위를 '매바위'라 부르게 됨
- 서흔남은 병자호란 당시 성이 포위당하여 외부와의 소식이 끊기자 거지인 척 위장하여 적진을 뚫고 소식을 전하였고 인조가 이를 가상히 여겨 소원을 묻자 곤룡포를 청하여 하사받고, 서흔남은 죽을 때 곤룡포를 관에 같이 넣어달라 부탁함
 - 서흔남의 묘비는 현재 남한산성 내 지수당 앞에 설치되어 있음

2. 스토리 자원의 매력도 평가 및 스토리 도출 방안

[그림 34] 남한산성의 스토리 자원으로서의 매력도 평가 및 스토리 도출 방안



- 남한산성의 스토리 자원에 대해 각 속성별로 매력도 평가를 시행한 결과, 모든 속성에서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이에 따라 남한산성 축제의 스토리 도출은 실제 역사와 설화 등에 근거하여 축제의 주요 스토리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결정함

3. 스토리 활용 방안

[표 19] 남한산성 스토리의 축제 활용 방안

프로그램의 기반 스토리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남한산성이 건설되다	남한산성 퍼즐&그리기	<p>〈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한산성 고유 유적들의 디자인을 활용, 경쟁적 요소를 넣은 단체 퍼즐 맞추기 및 색칠도안 칠하기 체험 행궁, 수어장대, 사대문 등 남한산성 고유 유적들의 아름다움을 퍼즐 게임과 색칠도안 칠하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체험
	이회와 함께	<p>〈공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험준한 지형에 견고하게 쌓여진 남한산성의 축성 과정과 이 과정에서 백성들을 보살피다 사형당한 이회의설화를 재현한 공연 남한산성의 축성 과정에서 사용된 기술, 백성들의 노고, 이회의애민 정신을 테마로 함 <p>〈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벽 쌓는 과정에 필요한 여러 고된 작업들을 재현한 체험 프로그램
	축성장사 선정 대회	<p>〈참여형 이벤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한산성 성벽의 벽돌의 디자인을 모방한 벽돌을 누가 가장 많이 드는지 선정하여 상품 증정 성인 남성/여성/청소년 부로 나누어 진행
	로봇을 입은 희귀자	<p>〈퍼포먼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력을 향상시키는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한 로봇기업 연구원들의 남한산성 모양 벽돌 들기 퍼포먼스 축성장사 선정 대회 직후에 배치하여 웨어러블 로봇의 성능을 개연성 있게 보여줌 국내 웨어러블 로봇 개발사들에게 자연스러운 시연을 통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여 협찬 유도
인조와 남한산성	수어청 사열 재현	<p>〈재현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한산성에 주둔하던 수어청 부대를 인조가 사열하고 병사들이 무술 시범을 보이는 모습을 재현 조선 후기의 핵심 부대인 오군영 중의 하나로 남한산성 방어부대였던 수어청의 강인한 모습, 이를 사열하는 인조의 당당한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어 기획 수어청의 편제, 사용하던 무기, 복식 등이 모두 기록에 남아있으므로 사료에 기반한 재현 가능

프로그램의 기반 스토리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남한산성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파사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도시로 지어진 남한산성의 모습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미디어 파사드 • 철저히 구획화된 계획도시였던 남한산성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이미지를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표현
	인조의 꿈	〈VR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조가 꿈꾸던 요새도시인 남한산성의 이상적인 모습을 가상공간에 재현하고 VR을 착용, 산성 위를 날아다니며 살펴보는 체험 프로그램 • 강인한 군대, 행복한 백성들, 청렴한 관리, 장엄한 행궁 등 인조가 남한산성을 건설하며 꿈꾸던 모습을 재현
	인조의 선택 (닭백숙 경진 대회)	〈닭백숙 체험 및 경진 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산성과 일대 유명 식당들의 닭백숙의 맛을 관람객들이 평가하며 최고의 닭백숙을 뽑는 경진 대회 • 청에게 행복하기 직전, 닭백숙이 인조에게 마지막으로 진상된 음식이라는 설화에 기반함
청군의 포위를 45일간 견뎌내다	서흔남을 잡아라!	〈게릴라 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된 시간 동안 행사장 곳곳에 숨어 있는 조선시대 거지 복장을 한 배우들을 찾는 게릴라 이벤트 • 거지 복장을 한 채 청군의 포위망을 뚫고 소식을 전하던 서흔남의 설화를 차용한 이벤트
	병자호란 퀴즈쇼	〈단체 OX 퀴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자호란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적 지식을 집단 OX 퀴즈 게임으로 제시하고 우승자 등에게 상품 제공 • 병자호란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므로 매년 끊임없이 다양한 소재를 선정할 수 있고 퀴즈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병자호란과 관련된 역사 지식도 익힐 수 있음
	승렬전 제향의식	〈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렬전에 위패를 모신 온조대왕을 기리는 전통 제향의식을 최대한 원모습 그대로 재현
	남한산성 대동굿	〈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산성 축성 및 병자호란 때 죽은 영혼을 달래는 의식으로, 남한산성 문화제의 유래가 된 청량당 굿 재현 행사

프로그램의 기반 스토리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한번도 함락되지 않은 성	남한산성 복식 체험	<p>〈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한산성과 관련된 당나라, 신라, 몽골, 고려, 청나라, 조선 등 각국 군인들의 복식을 직접 입어보는 체험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남한산성이 숭한 침략자들의 공격을 견뎌낸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장소임을 자연스레 알게 함
	활쏘기 재현	<p>〈재현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한산성의 역사에 등장하는 각국 병사들이 사용하던 활을 재현하고, 해설과 함께 전문 궁수의 활쏘기 시범을 보이는 행사 근대 이전 공성과 수성에서 필수 무기이던 활의 다양한 모습과 성능을 보여주고 우리 민족의 대표무기였던 국궁의 우수성을 알 수 있게 함
	난공불락	<p>〈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한산성의 험준한 지형과 성벽을 재현한 세트장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행사(예시 : 성벽에 걸쳐진 사다리를 올라가기, 성벽 위 표적 맞추기 등) 남한산성이 왜 단 한번도 함락당하지 않은 천혜의 요새인지 공격자의 입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3절. 왕실도자컨퍼런스 스토리 개발 및 활용 방안

1. 속성별 스토리 자원 추출

■ 스토리 자원 속성별로 조선 왕실 백자의 주요 스토리 자원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0] 조선 왕실 백자의 주요 스토리 자원 목록

스토리 속성	내용
지역 연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 왕실에서 쓰인 백자는 모두 광주의 사옹원 분원 소속 가마에서 만들어졌으므로 광주와 조선 왕실 백자와의 지역 연고성은 확고함
전승 문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자 특유의 단아함과 절제감이 조선 시대의 사회 이데올로기와 부합하였으며 말 그대로 조선 시대의 모든 계층이 사용하던 조선 대표 도자기 그 중에서도 왕실 백자는 뛰어난 품질과 엄격한 사용 규범을 요구하고 있어 그야말로 조선 시대 백자의 최고 정수 금은자기를 대체하여 왕실에서 제기와 식기로 백자를 채택하는 과정 그 자체가 조선의 대외정책과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음
관광 기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한 백자 유물들 절대 다수가 광주시 관외의 대형 박물관에 있음 가마터 유적들은 발굴되고 있으나 온전한 상태로 보존된 것은 없으며 설령 잘 복원되었다 해도 그 자체로서 큰 감흥을 일으키기 어려움
인물 기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 : 명나라의 금은 조공 요구를 피하기 위해 왕실에서 금은자기를 모두 백자로 대체함 세조 : 왕과 왕비용 백자의 용 그림에만 다섯 발톱을 쓰게 하는 등 백자 사용에 엄격한 질서와 권위를 부여함

가. 지역 연고성

■ 조선 왕실 백자는 조선 시대 내내 오직 광주에서만 생산되었음

- 조선 왕실 백자를 만드는 사옹원 분원은 오직 광주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가마터를 옮기더라도 그 이동 역시 광주 관내에서만 이루어졌으므로 광주와의 지역 연고성은 확고함

나. 전승 문화성

■ 백자는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

- 섬세함과 화려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인 청자와 달리 백자는 여백의미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제작되었음

- 이러한 백자 특유의 단아함과 절제감이 조선 시대의 사회 이데올로기인 유교의 정신과 부합하였으므로 백자는 조선의 지배 계층에게 사랑을 받음
- 왕실 백자는 생산과 유통, 사용 모두가 중앙 관청인 사옹원에 엄격히 통제받는 조선 백자의 정수임
 - 사옹원은 백자의 생산과 유통, 사용 모두를 엄격하게 통제하였고 아예 왕실에서 사용될 백자의 생산 거점을 광주로 선정하고 백자의 생산을 관리하기 위해 광주에 사옹원 분원을 설치함
 - 사옹원은 궁궐 내 음식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왕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왕의 식사와 궁중의 음식 공급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고 왕실의 입과 몸에 닿는 자기 역시 사옹원의 관할이었음
 - 또한 왕실 백자는 금은자기를 대체하여 왕실에서 자기로 쓰인 것은 물론 왕실의 중대 의식에서도 제기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였음
- 조선 왕실에서 백자가 쓰이게 된 과정도 조선이 처했던 대외적 상황과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조선은 명나라의 금은 조공 요구를 피하기 위해 금은자기를 백자로 대체하였는데, 이 과정 자체가 명나라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던 당시 조선의 대외적 위상과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음

다. 관광 기반성

- 조선 왕실 백자는 광주 지역에서의 관광 기반성이 높지는 못함
 - 우수한 백자 유물들의 절대 다수가 광주시 관외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서 전시하거나 소장 중임
 - 가마터 유물들은 광주 곳곳에서 발굴되고 있으나 온전한 상태로 보존된 것은 없으며, 설령 잘 복원되었다 하더라도 도자기 가마 자체가 보는 이들에게 큰 감흥을 일으키긴 어려움

라. 인물 기반성

- 조선의 왕들이 주로 관련되어 있으며 그 외의 인물들은 조사 과정에서 발굴되지 못하였음

○ 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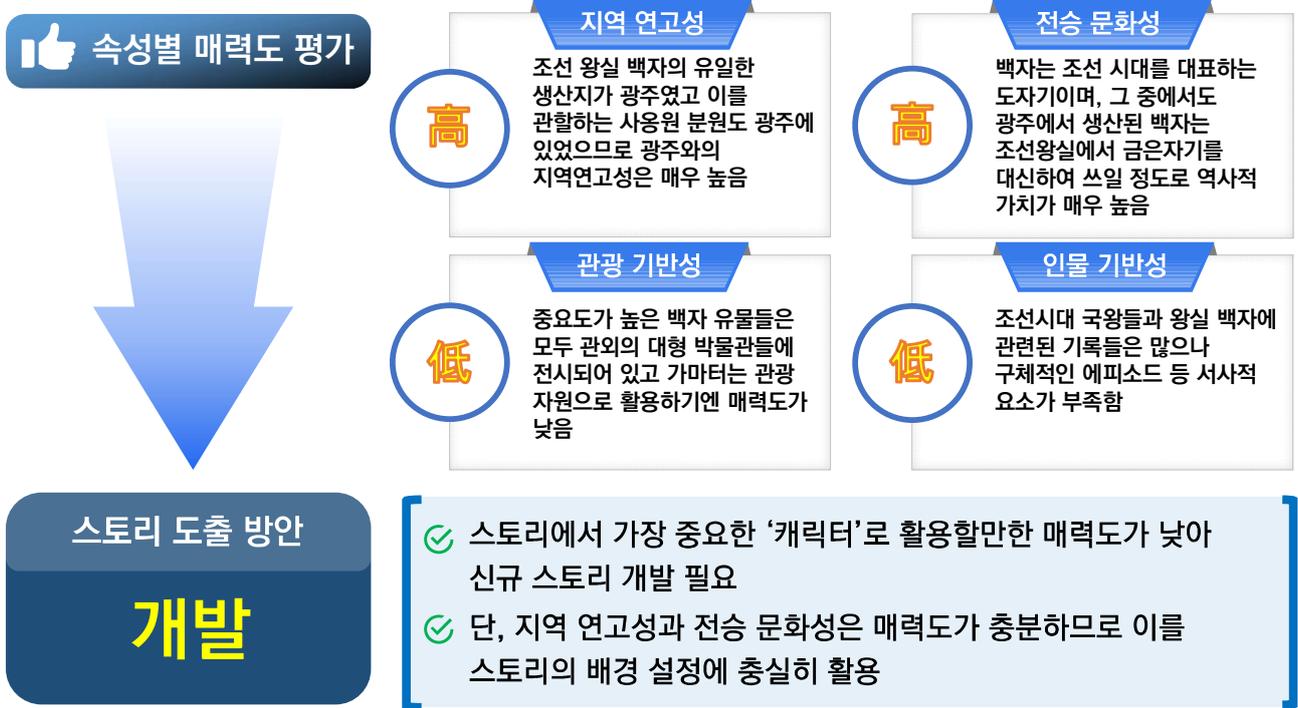
- 명나라의 금은 조공 요구를 면제해줄 것을 꾸준히 요청하여 금은 조공 면제를 받아냈고, 그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왕실의 금은 제기를 백자로 대체함으로써 백자를 조선 왕실의 중요 상징으로 승격시킨 인물임

○ 세조

- 반정(쿠데타)으로 집권하여 정당성이 약했던 세조는 왕실의 권위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왕실에서의 백자 사용에 엄격한 질서를 부여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임
- 왕과 왕비의 백자에만 오조룡(발톱이 5개인 용)을 쓸 수 있게 하고, 세자는 발톱이 4개인 용이 그려진 백자를 쓰게 하는 등 백자에 엄격한 질서를 부여하고 그 질서를 통해 왕권을 드러내고자 하였음
- 또한 사용원 분원을 광주에 설치하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자기는 왕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광주가 조선 왕실 백자의 생산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한 인물이기도 함

2. 스토리 자원의 매력도 평가 및 스토리 도출 방안

[그림 35] 조선 왕실 백자의 스토리 자원으로서의 매력도 평가 및 스토리 도출 방안



■ 지역 연고성과 전승 문화성 측면에선 매력도가 높으나, 관광 기반성과 인물 기반성에선 매력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조선 왕조의 주요 왕들이 왕실 백자와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에피소드 등이 결여되어 있고, 관련된 설화들도 부족하여 축제의 기반 스토리로 활용될 수 있는 서사적 요소가 부족한 것이 문제임

■ 이에 따라 왕실도자컨퍼런스의 스토리 도출은 신규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결정함

○ 단, 지역 연고성과 전승 문화성은 매력도가 충분하므로 스토리의 배경 설정에 충실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스토리를 도출하기로 결정함

3. 핵심 스토리 개발

가. 스토리 개발 개요

■ ‘달해(達該)’라는 가상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스토리 개발

■ 스토리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 후기로 설정함

- 조선 후기는 사옹원 분원에 대한 왕실의 엄격한 통제가 무너지고 양반 지배층들의 도공들에 대한 착취가 심해지면서 도공들의 처우가 지속적으로 저하되던 시점
- 이런 시기에 당시 천민 신분인 도공의 아들로 태어나 역시 도공으로 살아갈 예정인 ‘달해(達該)’라는 소년을 스토리의 주인공 캐릭터로 설정
 - ‘달해(達該)’라는 이름의 뜻은 통달하고 해박하다는 뜻으로 소년 도공에서 명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달해의 인생사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설정됨

■ 달해라는 가상 인물을 중심인물로 설정하되 스토리의 역사적 개연성을 높이기 위해 왕실 백자에 대한 자료 조사 과정에서 얻은 역사적 사실과 시대상 등을 달해의 스토리에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스토리를 개발함

- 달해가 겪는 고난은 모두 당시의 국제관계와 시대상, 도공들의 처우 등을 반영하였음
- 달해가 일하는 공간 역시 광주의 사옹원 분원으로 설정하여 광주가 조선 왕실 백자를 생산하던 유일한 공간이었음을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광주 백자의 독보적인 우수성을 알 수 있도록 스토리를 구성함
-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주요 타겟으로 상정하고 효심 깊은 소년인 달해가 허드렛일을 하다 명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스토리의 전반적인 골자가 되도록 스토리를 구성함

나. 핵심 스토리 ‘달해전’의 내용

[표 21] 핵심 스토리 ‘달해전’의 주요 내용

조선 후기 광주의 한 마을에 병에 걸린 아버지를 보살피며 살아가는 달해(達該)라는 소년이 살았다. 소년의 아버지는 왕실에서 사용할 백자를 만드는 최고의 도자기 명인이었다.

※ 달해라는 이름은 통달하고 해박하다는 뜻을 가지며, 주인공인 달해가 도자기에 통달하고 해박한 장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임을 암시함

달해의 아버지가 만든 도자기는 너무나도 뛰어나서 이를 탐내는 양반들이 많았는데 그에게 양반들

은 아들인 달해를 면천시켜주겠다는 사탕발림으로 도자기를 요구하였다. 당시 도공들은 대를 이어 도자기를 만들어야 하는 천민이었고, 아들이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랐던 달해의 아버지는 밤낮으로 도자기를 빚었다.

하지만 수년간 무리하며 도자기를 빚는 달해의 아버지는 결국 큰 병에 걸리고 말았다.

몸져 누워있던 아버지에게 분원으로 들어오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청나라에서 갑자기 사신을 보낼거라 통보하면서 조공으로 바칠 백자가 급히 필요했고 서둘러 도자기를 빚을 장인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당시 조선팔도에서 왕실에서 쓰는 백자는 단 한 곳-오직 광주 분원에서만 만들어졌다. 이는 광주가 한양과 가깝고 백자에 꼭 필요한 백토, 가마를 돌리기 위한 물과 땀감으로 쓸 나무가 풍부하여 백자를 만들기 위한 적임지였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분원으로 갈 결심을 한다. 하지만 소년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도자기 분원으로 향한다. 나이는 어리지만 아버지 곁에서 도자기 만드는 것을 보며 익힌 소년. 하지만 혹독한 관리들과 선배들의 무시와 천대로 허드렛일만 하게 되고 도자기를 만들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의 사옹원 관리들이 화가 잔뜩 난 채로 분원에 찾아온다. 청나라에 조공으로 바치기 위해 조정에 공납된 도자기들에 결함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된서리와 같은 문책을 당한 그들이 분원으로 찾아온 것이다.

청나라 사신의 방문 일정에 맞춰 서둘러 백자를 다시 빚어야 하는 상황. 드디어 달해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

달해는 아버지와의 시간을 추억하며 영롱한 빛깔의 백자 도자기가 탄생하던 순간을 떠올린다. 아버지가 빚은 방법대로 한 단계 한 단계 도자기를 빚기 시작하는 달해. 가마 속으로 들어간 도자기가 완성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과연 달해는 완벽한 백자를 만드는데 성공해서 광주 분원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까?

4. 스토리 활용 방안

[표 22] '달해전' 스토리의 축제 활용 방안

프로그램의 기반 스토리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아버지를 대신해 분원에 들어가게 된 달해. 하지만 관리들과 장인들은 어린 달해를 업신여기고 분원에 들어오려면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왕실 도자기 OX 퀴즈 대전	<p>〈단체 체험형 이벤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숫자 이상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단체 퀴즈 서바이벌 프로그램 • 왕실 도자기와 광주에 있던 사옹원 분원에 대해 퀴즈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문제 해결과 정보 전달 두 가지를 제공하는 버라이어티 퀴즈 프로그램
나이는 어리지만 장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기술을 갈고 닦은 달해처럼 직접 도자기 제작에 도전해보자. 그 첫 걸음을 도자기에 들어갈 그림 도안을 그리는 것이다.	달해의 꿈	<p>〈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자기에 들어갈 도안을 마음대로 그려보는 체험으로 당시의 도자기에 들어가는 학이나 난 등 다양한 시안들도 볼 수 있고 직접 도안을 그려볼 수도 있게 함 • 자기가 그리고 싶은 도안을 그리면 레이저 프린트로 각인된 자신만의 도자기 키링 또는 그림을 만들 수 있음
왕실에서 지정한 도자기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 이를 배우기 위해 달해는 물레를 이용해 흙을 빚는 수련부터 시작하게 된다.	물레를 돌려라	<p>〈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도자기를 빚을 때 사용하는 물레를 이용해보는 체험 프로그램 • 도자기가 완성되기 전의 애벌된 도자기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모양으로 도자기를 빚어볼 수 있음
분원에서 많은 도자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아름다운 모습에 달해는 자신이 만들어야 할 도자기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된다.	왕실 도자기 전시회	<p>〈전시 및 판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도자기가 만들어진 분원의 가마를 재현한 공간을 테마로 하여 광주의 백자 명인들이 제작한 다양한 백자들을 관람·구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조선 왕실 백자를 명인들이 각자의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만들어진 백자들을 전시하고 그에 대해 명장들이 직접 도슨트(해설)을 제공 • 당시 어떤 체계와 시스템으로 분원에서 백자가 만들어져 왕실로 납품되었는지도 알려주는 장치들을 전시장 곳곳에 설치하여 광주 백자의 독보적 위상 홍보

프로그램의 기반 스토리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백자의 재료 중 가장 귀했던 회회청. 달해는 멀고 먼 서역(중동) 땅에서 캐내진 회회청이 조선까지 오게 된 과정을 궁금해한다.	회회청 패션쇼	<p>〈이벤트 및 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회청이라 불리던 백자의 재료 중 가장 귀한 코발트 안료가 아시아 대륙을 건너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벤트)당시의 아랍 상인, 그들이 중국으로 오기 위해 건넌던 실크로드에 위치했던 무역 도시들 거주민, 명·청과 조선 상인들의 각기 다른 복색을 입은 배우들이 자신들이 이끄는 낙타, 조랑말을 이끌고 축제장 곳곳에서 등장함 (체험)관람객들도 직접 그 의상을 입고 낙타, 조랑말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제공
광주를 벗어날 수 없는 달해는 자신이 빚은 도자기가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에서 어떻게 쓰일지 상상해 본다.	조선 왕실 백자 드론쇼	<p>〈군집 드론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왕실 백자가 궁궐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드론쇼 왕실 의례 등 궁궐에서 백자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군집 드론을 통해 표현하여 왕실 백자의 역사적 용도와 아름다움을 표현
인고의 시간을 기다리며 마침내 도자기를 완성한 달해. 도자기는 조정에 공납되기 전에 엄격한 감정을 받게 된다. 최선을 다해 만든 달해의 도자기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내가 최고 감정사시다!	<p>〈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감정사들이 도자기를 감정할 때 기준들에 대해 배워보고 직접 도구를 이용해 샘플로 제공되는 도자기들을 감정하고 가치를 매겨보는 체험 프로그램 굽과 약물 처리 정도, 연대 등 6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도자기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달해와 선배 도공들이 고생하여 만든 도자기가 마침내 왕실에 납품된다. 그 행렬의 모습에 달해는 피곤함을 잊고 빠져든다.	왕실 백자 진상식 및 진상행렬	<p>〈재현 행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왕에게 도자기를 진상하는 진상식과 진상행렬을 재현한 공연
고된 일과 중 달해를 위로해주는 것은 도자기 가마에 구워서 몰래 먹는 감자. 오늘도 달해는 몰래 가마 속에 감자를 굽는다.	도공만의 특별한 즐거움	<p>〈미식 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뜨거운 가마에서 구운 삼겹살, 군고구마, 감자, 전 등을 맛볼 수 있는 미식 체험 코너

4절. 퇴촌 토마토 축제 스토리 발굴 및 활용 방안

1. 영역별 스토리 자원 추출

■ 스토리 자원 속성별로 토마토의 주요 스토리 자원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3] 토마토의 주요 스토리 자원 목록

스토리 속성	내용
지역 연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촌면은 상수도 보호 지역으로 환경이 우수하며 호박벌이 다수 서식하는 등 지리적 여건이 토마토 재배에 적합함 • 토마토는 퇴촌면에서 70년대부터 재배되어 현재는 퇴촌면의 대표 농작물이 되었음
전승 문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항해시대에 유럽으로 전해졌으나 종교적 금기와 편견으로 인해 기피되었음 • 이후 특유의 맛과 풍미로 서구인들의 식단에선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이자 감칠맛을 더해주는 필수 조미료(주로 소스 형태)로 쓰이고 있음 • 현재 토마토를 던지는 것은 사회 저항의 표현 방식으로 활용되는 등 서구권의 역사와 시대상 변화가 토마토의 역사에 반영됨
관광 기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마토 축제 이외에는 관광 기반성 면에서 광주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움
인물 기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버트 존슨 : 군중 앞에서 토마토 24kg을 먹어치우며 토마토가 유해하다는 편견을 깨버린 19세기 미군의 대령 • 나폴레옹 : 전쟁에서 보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통조림의 시초가 되는 토마토 병조림을 최초로 개발하는 계기를 제공 • 마르게리타 여왕 : 19세기 중반 나폴리의 여왕으로 현재도 널리 사랑받는 '마르게리타'란 피자 명칭의 유래가 된 인물

가. 지역 연고성

■ 퇴촌면 지역의 자연 환경이 토마토 재배에 적합하며 현재는 퇴촌면의 대표적인 작물로 자리 잡음

- 퇴촌 지역은 한강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강력한 환경 규제를 받고 있어 우수한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음
 - 상수도 보호 구역 내에선 농약과 화학 비료의 사용이 금지되므로 자연스럽게 친환경 토마토 재배 농법이 발달하게 되었음
 - 또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덕분에 토마토의 수분에 필수적인 호박벌들이 다수 서식하고 있어 타 지역과 달리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호박벌에 의한 토마토 수분이 가능함
- 퇴촌면의 지형적 여건 역시 토마토 재배에 적합함
 - 산지에 둘러싸인 분지 지역으로 일교차가 높아 토마토가 맛있게 숙성되기에 좋은 환경임

나. 전승 문화성

- 남미에서 유래한 작물로 현재는 서구권의 필수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과정에 시대상 변화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음
 - 유럽에 전래된 초기에는 기독교적 금기와 편견으로 인해 식용으로 쓰이지 않고 관상용으로 제한적으로 쓰였음
 - 이후 토마토의 풍부한 맛이 제대로 평가받고 갈수록 종교의 힘도 약해지면서 토마토는 서구권의 필수적인 음식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
 - 토마토는 단맛, 신맛과 감칠맛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 먹어도, 다른 음식을 위한 베이스 재료로 쓰기에도 좋은 음식임
 - 이와 함께 서구권에서 근대화와 함께 종교의 힘이 약해지고 토마토에 대한 편견도 약화되면서 토마토는 서구권의 필수적인 식재료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음
 - 단순히 식재료로서의 쓰임만이 아니라 토마토를 던지는 것이 사회 저항의 표현 방식으로 활용되는 등 서구권의 역사와 시대상 변화가 토마토의 역사에 반영되어 있음

다. 관광 기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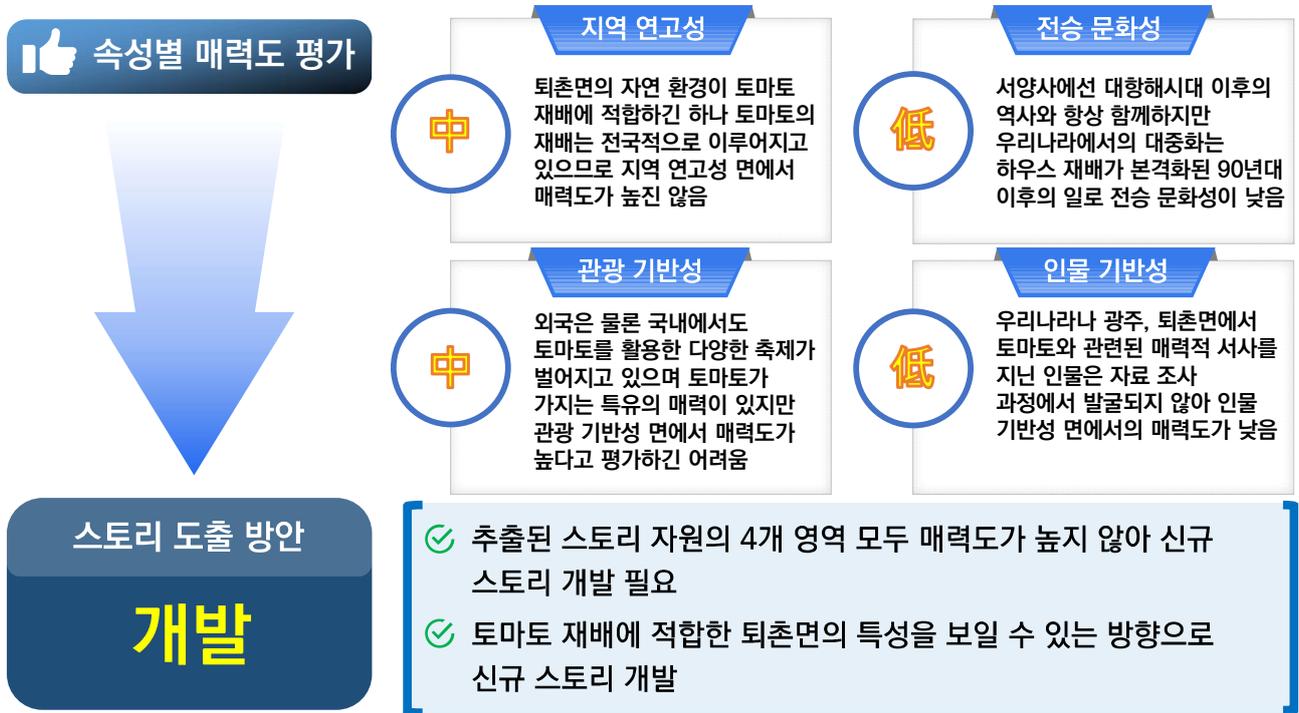
- 토마토 축제 이외에는 관광 기반성 면에서 토마토와 광주와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움

라. 인물 기반성

- 서양권의 인물들이 주로 토마토와 관련되어 있음
 - 로버트 존슨 : 군중 앞에서 토마토 24kg을 먹어치우며 당시까지도 미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토마토가 유해하다는 편견을 깨버린 19세기 미군의 대령
 - 나폴레옹 : 전쟁에서 보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통조림의 시초가 되는 토마토 병조림을 최초로 개발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이후 토마토는 병조림, 통조림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가공되었음
 - 마르게리타 여왕 : 19세기 중반 나폴리의 여왕으로 현재도 널리 사랑받는 ‘마르게리타’란 피자 명칭의 유래가 된 인물

2. 스토리 자원의 매력도 평가 및 스토리 도출 방안

[그림 36] 토마토의 스토리 자원으로서의 매력도 평가 및 스토리 도출 방안



■ 전반적으로 매력도가 높지 않으며 특히 전승 문화성과 인물 기반성이 미흡함

- 역사적으로 서구권과의 관련도가 높으며, 식재료로서의 대중화가 최근에야 진행된 우리나라에선 토마토의 역사가 짧아 전승 문화성 측면에서의 매력도가 낮음
- 토마토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절대 다수가 서구권의 인물들이고 우리나라나 광주, 퇴촌면에서 토마토와 관련되어 매력적인 서사를 지닌 인물은 발굴되지 않아 인물 기반성 측면에서도 매력도가 낮음

■ 이에 따라 퇴촌 토마토 축제의 스토리 도출은 신규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결정함

- 4개 속성 모두에서 매력도가 높지 않아 스토리의 신규 개발이 불가피함
- 단, 퇴촌면이 토마토 재배에 아주 적합한 곳이며, 퇴촌면 토마토의 맛이 우수함을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개발하기로 함

3. 핵심 스토리 개발

가. 스토리 개발 개요

■ ‘토비’라는 가상의 호박벌을 주인공으로 하는 스토리 개발

■ 스토리의 배경은 현대 퇴촌면으로 설정함

- 자료 조사 과정에서 토마토의 깊은 역사성과 세계적으로 중요한 식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한국에선 대중화가 늦게 된 작물이며 광주시에서만 독보적으로 재배하는 것도 아니며 전승문화성, 지역적 연고성 면에서 매력도가 높지 않음
- 따라서 토마토의 수분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토마토가 열매를 맺는 데 필수적인 호박벌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공간적·시간적 배경 역시 현대의 퇴촌면으로 설정함
 - 토마토는 꽃이 깊어 일반 꿀벌은 수분 과정을 도울 수 없으며, 깊은 꽃 속까지 들어갈 수 있는 호박벌이 수분 과정에 반드시 필요함
 - 이를 위해 다른 지역의 토마토 농가들은 호박벌을 구입하여 풀어놓지만, 자연환경이 우수한 퇴촌면 지역은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호박벌의 개체수가 충분하여 자연스럽게 지역 토마토 농부와 호박벌 사이에 상부상조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

■ 주인공은 가상의 호박벌 왕국에 사는 가상의 호박벌인 ‘토비’로 설정함

- ‘토비’라는 이름은 토마토(tomato)와 벌(bee)의 앞 두 글자를 합친 단어
- 호박벌 왕국은 실제와 마찬가지로 토마토 재배 농부들과 우호적인 관계인 것으로 설정

■ 가족 단위 관람객을 타겟으로 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스토리 개발

-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토비’는 잼싸면서도 장난끼 많은 개구쟁이이자 사고뭉치이면서도 유쾌하고 호기심 많은 캐릭터로 설정

나. 핵심 스토리 ‘토비의 모험’의 내용

[표 24] 핵심 스토리 ‘토비의 모험’의 주요 내용

싱그러운 토마토 향기가 물씬 풍기는 퇴촌면. 여기저기 펼쳐진 노란 토마토 꽃의 물결과 함께 맛있는 토마토 수확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마을의 대축제 토마토 축제가 열리는 날도 가까워진다. 50년 동안 퇴촌면에서 재배되며 전국 최고의 맛으로 유명한 퇴촌면의 토마토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데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바로 토마토 넝쿨 사이를 날아다니며 꽃가루를 옮겨주는 호박벌 왕국의 호박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꽃가루를 옮겨주며 많은 토마토 꽃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박벌. 호박벌 왕국은 토마토 농부들을 돕고 꽃가루와 꿀을 채집하여 왕국으로 가져가며 서로를 돕는 존재. 지난 50여 년의 시간 동안 농부들과 호박벌들의 우정은 계속 굳건해져왔다.

토마토 농부와 호박벌의 우정이 얼마나 끈끈한지는 토마토 인장으로도 알 수 있다. 호박벌 왕국이 생겨났을 때 퇴촌면의 토마토 농부들이 농사를 도와주는 호박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특별한 도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토마토 인장이다. 호박벌 왕국에서는 이 토마토 인장을 왕국의 보물로 삼고 오랫동안 대를 이어 간직해오고 있다.

어느덧 퇴촌면에 토마토 축제가 다가오고 호박벌 왕국도 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퇴촌면의 수많은 토마토 농장들에서도 1년에 단 하나만 나오는 황금 토마토, 그래서 축제 1등에게 주어지는 상품인 황금 토마토가 올해도 무사히 수확되면서 축제 준비도 착착 되어간다.

그런데 축제를 얼마 앞두고 호박벌 왕국에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바로 왕국의 토마토 인장이 사라진 것. 사건의 발단은 호박벌 왕국 최고의 사고뭉치 토비. 스스로를 토마토 화분 만들기 챔피언이라 부르는 토비는 날렵한 비행 실력과 꽃가루 옮기기 능력을 갖고 있지만 지나친 장난과 덤벼대는 성격으로 실수가 잦다.

축제를 앞두고 마음이 들뜬 토비는 딱 한 번만 인장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에 몰래 왕국의 비밀 창고에 숨겨진 토마토 인장을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란다. 암전히 보관되어 있어야 할 토마토 인장이 감쪽같이 없어진 것. 때마침 인장을 감시하던 경비벌들이 찾아오자 토비는 엉겁결에 도망치고, 여지 없이 토마토 인장을 훔쳐간 도둑으로 몰린다. 토비는 토마토 인장을 찾아내서 도둑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

4. 스토리 활용 방안

[표 25] '토비의 모험' 스토리의 축제 활용 방안

스토리 연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최고의 호박벌이 되기 위해 가장 많은 토마토 꽃을 피워야 하는 호박벌 토비의도전! 사람들에게 마음껏 능력을 뽐낼 준비가 되었다.	미션 호박벌	〈체험형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서가 장착된 스크린에 많은 호박꽃 봉오리들이 펼쳐져 있고 호박벌 인형을 던져 꽃 봉오리를 명중시키는 게임 • 퇴촌 토마토의 우수한 성장 배경에 호박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착안한 프로그램
	토마토로 말해요!	〈단체 게임 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으로 정답을 표현하는 것처럼 토마토를 이용해 정답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여 참가자들이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퀴즈 서바이벌 프로그램
왕국의 토마토 인장은 최고의 호박벌에게 주는 보물. 토비는 토마토 인장을 훔쳐간 도둑으로 몰렸다. 누명을 벗기 위해 축제 곳곳을 누비며 활약하는 토비의 모험. 과연 그 결과는?	토마토 인장을 찾아라!	〈체험형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장 그림을 퍼즐 조각들로 형상화하여 맞추는 퍼즐 게임 • 체험자가 퍼즐을 구입해서 조각을 맞추면 자신만의 토마토 인장을 가질 수 있고 인장도 찍어서 자신의 물건이나 액세서리에 특별함을 부여할 수도 있음 • 퍼즐의 사이즈를 대형화하여 가족 또는 단체 단위의 대항전 형식으로 진행도 가능
	토마토 레크리에이션	〈대규모 미니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마토를 주제로 한 다양한 음악 속에서 펼쳐지는 미니 게임으로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참가하기 용이한 게임들로 내용 구성
	누가 누가 맞추나?	〈단체 게임 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다양한 토마토의 무게를 눈으로만 보아 가장 정확하게 맞추는 참가자를 뽑는 프로그램 •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참가하기 용이하며 토마토의 성숙 단계, 품종에 따라 단계별로 난이도를 조절할수 있음
	높이 더 높이!	〈체험형 게임 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크기의 토마토들을 높이 쌓아서 참가자들끼리 경쟁하는 프로그램 • 흥미와 경쟁 요소를 위해 토너먼트식으로 진행하고 게임이 계속될수록 쌓아야 하는 토마토의 수를 늘림

스토리 연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1년에 딱 한 개 열리는 귀한 황금토마토! 퇴촌면 최고의 황금 토마토를 찾기 위해 토비와 사람들 사이에 한판 난리가 난다.	황금 토마토를 찾아라!	〈메인 이벤트〉 • 토마토를 대규모로 풀어둔 풀장에 금반지 또는 순금 한 돈을 얻을 수 있는 티켓을 넣어두고 참여자들이 이를 찾아내는 행사
오늘은 토마토 농장에서 맛있는 토마토가 열릴 수 있게 토마토 꽃가루를 퍼뜨려야 한다. 토비와 호박벌들이 어떻게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까?	토비의 하루	〈드론쇼〉 • 퇴촌면 토마토 농장의 일상을 표현한 드론쇼로 풍성하게 자라난 토마토 사이로 열심히 날아다니는 호박벌들의 모습을 군집드론을 이용해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드론쇼
오늘도 최고의 호박벌이 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는 토비. 토비가 더 많은 꽃가루를 채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야한다. 까치가 날아와 토비를 잡아먹지 않도록 조심하자!		〈체험형 게임〉 • 토마토 농장의 꽃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호박벌 토비가되어 장애물들을 피해 꽃가루를 채집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는 VR 게임 • 관람객이 VR을 착용하고 관람객이 직접 토비를 컨트롤하며 장애물과 새를 피해가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함
세상에 이렇게 토마토 요리가 많다고? 퇴촌 토마토로 만들면 더 맛있을 것 같지 않아? 토마토 세상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만나보는 거야!	토마토 김치 페스타	〈전시 체험〉 • 전세계의 다양한 토마토 음식들을 소개하고 토마토 김치와 퓨전 토마토 요리 등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토마토 요리들도 함께 소개함
	토마토 나라 (Tomato Land)	〈전시〉 • 다양한 품종의 토마토들을 전시하여 참가자들에게 볼거리와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토마토 온실안에서 진행하며 포토존을 조성하여 이색적인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공간 구성
축제에서 멋진 활약을 한 호박벌에게 주는 토마토 화분을 직접 만들어 보자. 호박벌 장식과 묘목 그리고 호박벌 문양이 새겨진 화분을 이용해서 나만의 멋진 토마토 화분을 만들 수 있어!	새로운 토마토 킹	〈체험〉 • 관람객들이 토마토 묘목과 화분을 이용해서 직접 토마토 화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 토마토 화분에 멋진 호박벌 문양을 새기고 호박벌 장식을 데코하여 특별한 화분 제작